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2006. **9** Vol.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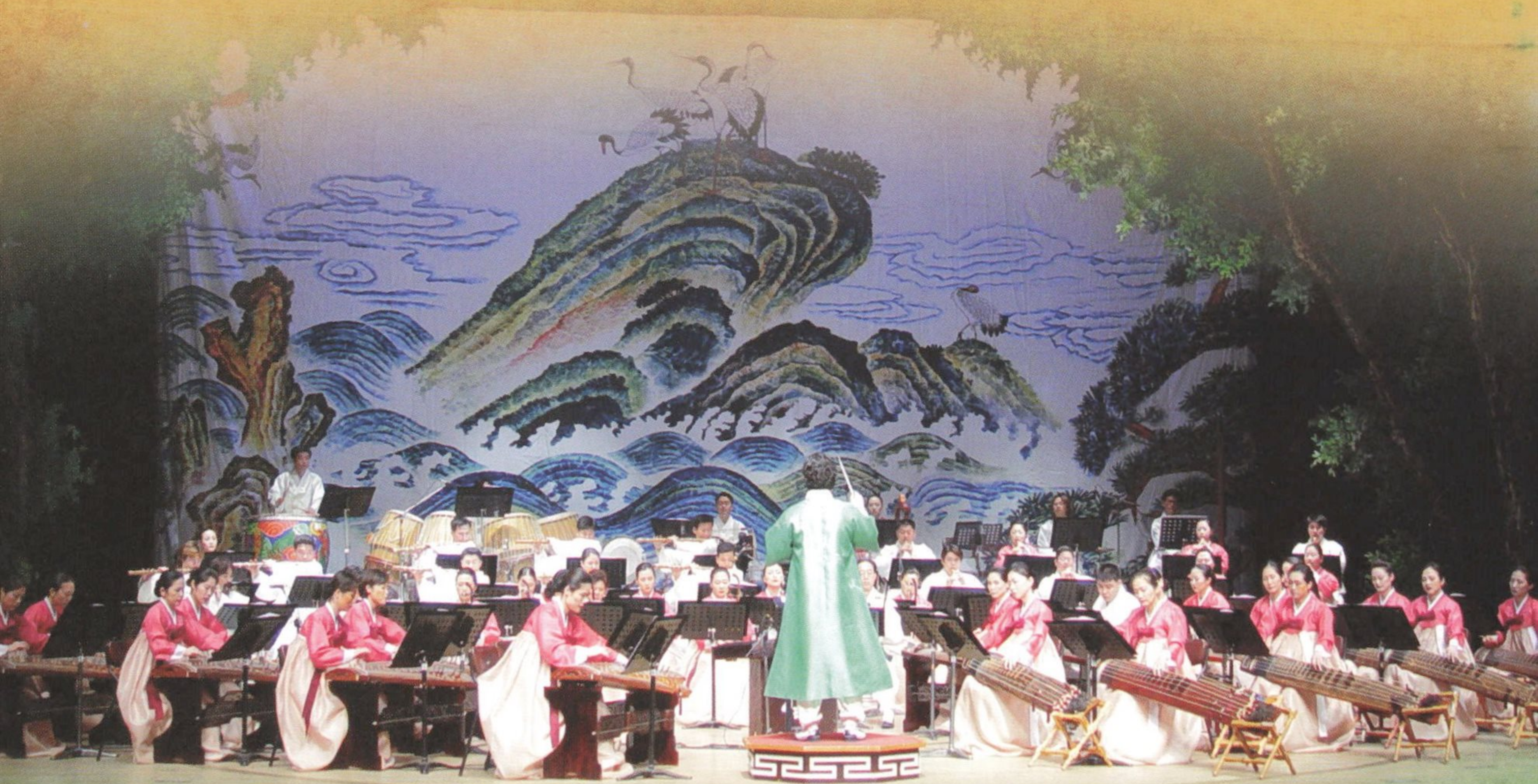
www.bsculture.busan.kr

반갑습니다 _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 위원장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_ 나의 문학의 뿌리 송정해변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_ 국악에 대한 오해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_ 별이 꽃처럼 쏟아지는 밤



부산시립극단 제 27회 정기공연

부산시립극단/동경강가도 韓·日 국제공동제작공연

21세기
망망대해
판타지

고래 고기 고기



작 : 홍원기
연출 : 손기룡 / 시나가와 요시마사
음악감독 : 한재권 (설미도, 한반도의 음악감독) 아시아의 MUSE "이 안" (TV 대장금 주제가) 주연

2006년 9월 21일[목] — 24일[일]

【부산공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 7시30분
일요일 오후 4시

9월 28일[목] — 10월1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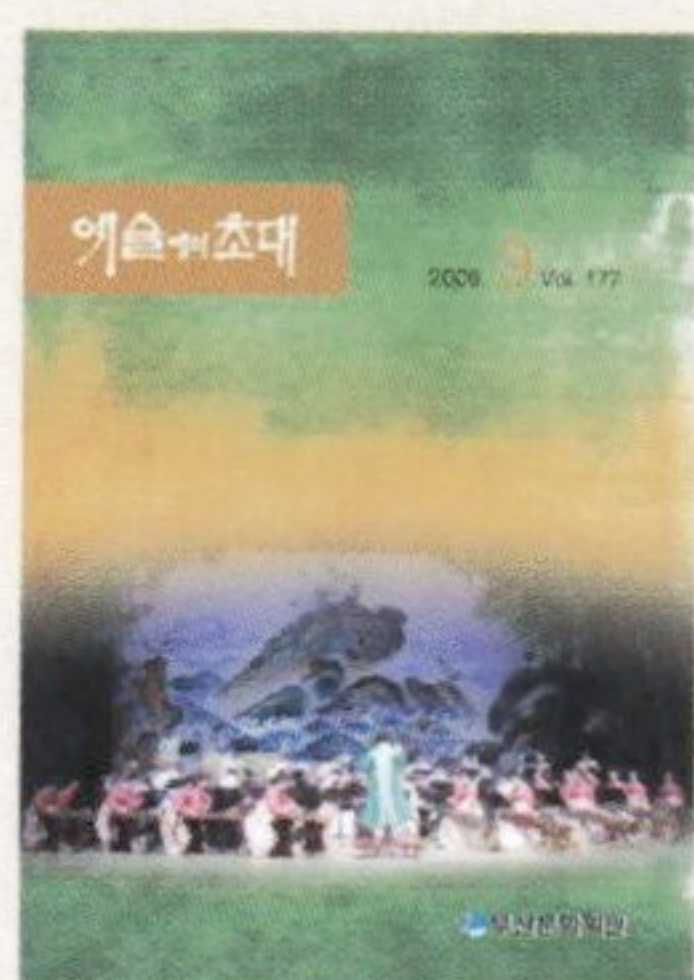
【서울공연】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8시
일요일 오후 3시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문화회관, 부산교통방송 KNN /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6136~8), 홍보부 (607-6070)

Contents

2006 · 09

- 04 부산문화회관 9월 공연 일정
- 06 부산시민회관, 금정문화회관 9월 공연 일정
- 08 마음을 여는 글 | 본적과 현주소 · 김형희
- 10 반갑습니다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 위원장
- 12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 나의 문학의 뿌리 송정해변 · 공재동
- 16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 국악에 대한 오해 · 홍희철
- 18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 별이 꽃처럼 쏟아지는 밤 · 김형술
- 20 부산,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 | 뜨거운 여름 · 김희진
- 22 연극속으로 | 파라다이스 감옥속의 안락함 '빨간 피터의 고백' · 변미선
- 24 그곳에 가면 | 소극장 실천무대 문화센터 '시지프스의 하늘'
- 26 우리는 문화 가족 | 동시를 읽는 어머니모임 부산지부
- 28 캠페인 1인 1기를 배웁시다 | 오카리나 입문 · 박종근
- 30 쉽게 듣는 클래식 | 오페레타 · 곽근수
- 31 이 사람 | 귀국독주회 갖는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
- 32 부산시립예술단 9월 공연관람 가이드
- 38 9월 프로그램 가이드
- 56 새로 나온 음반
- 57 새로 나온 책
- 58 특별기고 | 중남미 순회공연을 다녀와서 · 서정숙
- 60 부산문화회관 소식
- 61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2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안내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번지)
TEL. 625-8130, FAX. 607-6204
- 발행인 조병규 | 편집인 공영훈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6년 8월 25일
- 인쇄처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601-836 부산시 동구 초량 3동 1156-11번지)
TEL. 468-2468, 2757, FAX. 468-2515

※ 예술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 표지설명: 9월 27일부터 3일간 전국의 특색있는 창작관현악을 만날 수 있는 제 4회 부산전국창작국악 관현악축제가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9 월 공연일정

전시실

대한민국 최고 서화예술대전-대전시실

9월 2일(토)~9월 6일(수)

문의 김동준(806-4294, 019-546-9913)

제2회 부경서도 대전-대·중전시실

9월 9일(토)~9월 12일(화) *9일 16:00 오픈

문의 조상래(516-5678, 011-9501-8181)

2006 부산미술제-대·중전시실

9월 17일(일)~9월 24일(목)

*개막식 9. 18 17:30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학술대회 9. 18 13:00~15:30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실

*부산미술인의 밤 9. 18 18:00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예술장터 9. 18~9. 20 대전시실 로비

문의 부산미술협회(632-2400)

고신대학교 조형미술학과 졸업작품전-대전시실

9월 26일(화)~9월 30일(토)

문의 박지현(011-9554-1652)

영산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졸업작품전-중전시실

9월 27일(수)~10월 1일(일)

문의 이상윤(011-9518-6086)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 (안내 : 7쪽)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극장

MAIN THEATER

1	fri	
2	sat	패티김 2006 패티김 부산 콘서트 '객석으로...' 16:00, 19:30 8만 8천원 · 7만7천원 · 6만6천원 · 5만5천원/㈜JN미디어홀딩스(02-3444-2612)
3	sun	2006 진보라 재즈 콘서트 18:00 3만5천원 · 3만원/원스페이스(1588-0881)
4	mon	
5	tue	
6	wed	2006 대학무용제 19:30 1만원 · 5천원/동아대학교(200-7819)
7	thu	2006 대학무용제 19:30 1만원 · 5천원/동아대학교(200-7819)
8	fri	
9	sat	남경주 마지막 뮤지컬 '아이러브유' 부산공연 16:00, 19:30 5만5천원 · 4만4천원/레드슬리퍼 (622-3496)
10	sun	남경주 마지막 뮤지컬 '아이러브유' 부산공연 15:00, 18:30 5만5천원 · 4만4천원/레드슬리퍼 (622-3496)
11	mon	아미피에 성악연구회 제 16회 정기연주회 '아리아와 이중창의 밤' 19:30 균일 1만원/정종철(016-898-2442)
12	tue	
13	wed	
14	thu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22회 정기연주회 '클래식으로 듣는 가을의 소리'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15	fri	2006 부산예술제 개막식 및 음악협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00 한국예총 부산지회(631-1377), 음악협회(634-1295)
16	sat	2006 한국가곡대축제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한국가곡문화예술협회 부산지부(017-540-6641)
17	sun	2006 부산예술제 제 29회 무용예술제 19:30 1만원 · 7천원/무용협회(632-5116)
18	mon	
19	tue	
20	wed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3개 시도립무용단 춤 교류전 '울산, 창원시립무용단 초청 부산공연'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6118)
21	thu	부산원드오케스트라 자선음악회 18:00 균일 1만원/윤두현(011-582-8480)
22	fri	제 8회 고태국 성악콩쿠르 본선 부산일보사(461-4436~8)
23	sat	원향춤연구회 정기공연 19:00 부산대학교(510-2715, 010-7668-0894)
24	sun	부산가톨릭합창단 제 27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손태영(010-3919-2580)
25	mon	러시아 타타르스탄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빈예술기획(010-856-0816)
26	tue	
27	wed	제 4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2006 19:30 균일 5천원/부산문화회관(607-6110)
28	thu	제 4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2006 19:30 균일 5천원/부산문화회관(607-6110)
29	fri	제 4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2006 19:30 균일 5천원/부산문화회관(607-6110)
30	sat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18회 정기연주회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하는 우정만들기' 17:00 균일 2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10/1	sun	

중극장

MEDIUM THEATER

- 1 **fri** 김미란 무용단 '진흙' 19:30
균일 1만원/김미란(503-3971, 017-570-3971)
- 2 **sat** 예원회 네번째 피아노 이야기 '가족과 함께 하는 이지 클래식' 17:00
균일 3만원/김인재(010-3626-0036)
- 3 **sun** 인코리아 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 연주회 18:00
1만원 · 5천원/정성철(627-8088, 011-565-8088)
- 4 **mon** 소프라노 공경자 독창회 19:30
초대/공경자(017-577-4024)
- 5 **tue** 팔레시드와 함께하는 '서울 스트링스콰르텟 초청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부산문화(633-8990)
- 6 **wed**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음악회 II 제 31회 독우회 정기 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예은예술기획(632-6904)
- 7 **thu** 제 8회 고태국 성악콩쿠르 예선
부산일보사(461-4436~8)
- 8 **fri** 제 8회 고태국 성악콩쿠르 예선
부산일보사(461-4436~8)
- 9 **sat** 제 8회 고태국 성악콩쿠르 예선
부산일보사(461-4436~8)
- 10 **sun** 제 73회 부산영남 무용예술제 09:00
정성철(246-2294)
- 11 **mon** 뮤즈앙상블 제 25회 정기연주회 '신 낭만주의 현대음악' 19:30
1만원 · 5천원/뮤즈앙상블(011-854-0500)
- 12 **tue** 양경아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20:00
초대/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 13 **wed**
- 14 **thu**
- 15 **fri** 2006 부산예술제 극단 바다와문화를사랑하는사람들 'PLAY5' 19:00
1만5천원 · 1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 16 **sat** 2006 부산예술제 극단 바다와문화를사랑하는사람들 'PLAY5' 19:00
1만5천원 · 1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 17 **sun**
- 18 **mon**
- 19 **tue**
- 20 **wed**
- 21 **thu** 부산시립극단 제 27회 정기공연 한·일합동 제작 공연 '고래섬' 19:30
2만원 · 1만5천원 ·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22 **fri** 부산시립극단 제 27회 정기공연 한·일합동 제작 공연 '고래섬' 19:30
2만원 · 1만5천원 ·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23 **sat** 부산시립극단 제 27회 정기공연 한·일합동 제작 공연 '고래섬' 16:00, 19:30
2만원 · 1만5천원 ·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24 **sun** 부산시립극단 제 27회 정기공연 한·일합동 제작 공연 '고래섬' 16:00
2만원 · 1만5천원 · 1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25 **mon** 김경출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 26 **tue** 피아니스트 현미경 귀국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 27 **wed** 이명진 첼로독주회 19:30
초대/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 28 **thu** 윤태준 바순독주회 19:30
초대/예술기획(0505-70-9798, 017-216-9798)
- 29 **fri** 부산페스티벌 오케스트라 2006 부산창작관현악 콩쿠르 및 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백진현(011-503-9541), 부산문화(633-8990)
- 30 **sat** 기타와 함께하는 아르스앙상블의 밤 19:30
균일 1만원/(633-8990)
- 10/1 **sun**

소극장

SMALL THEATER

- 1 **fri** 7인 음악회 19:30
무료/성수민(011-9508-0620)
- 2 **sat**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3 **sun**
- 4 **mon**
- 5 **tue**
- 6 **wed**
- 7 **thu**
- 8 **fri**
- 9 **sat** 토요일상설무대 벨칸투스성악연구회 '성악가들이 펼치는 뮤지컬의 향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0 **sun**
- 11 **mon**
- 12 **tue**
- 13 **wed**
- 14 **thu**
- 15 **fri** 조영문, 정안선 첼발로 듀오연주회 19:30
초대/정안선(754-2291, 011-864-0291)
- 16 **sat** 토요일상설무대 정신혜 무용단 '다섯빛깔 우리춤'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7 **sun** 부산팬플룻 사랑회 제 1회 정기공연 17:00
초대/김경훈(418-16355, 010-3618-1635)
- 18 **mon** 한연희 창단 20주년 기념 피아노 렉처 리사이틀 19:30
초대/하서경(741-4904, 010-7309-4904)
- 19 **tue** 소프라노 김소정 독창회 19:30
초대/김소정(010-9999-4966)
- 20 **wed**
- 21 **thu** 2006 부산예술제 극단 맥 '메아리' 19:30
1만5천원 · 1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 22 **fri** 2006 부산예술제 극단 맥 '메아리' 19:30
1만5천원 · 1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 23 **sat** 2006 부산예술제 극단 맥 '메아리' 15:00, 18:00
1만5천원 · 1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 24 **sun** 6대 광역시 및 제주도 예술교류전 부산광역시 극단 동녘 '바리데기' 19:00
1만5천원 · 1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 25 **mon** 6대 광역시 및 제주도 예술교류전 부산광역시 극단 동녘 '바리데기' 19:00
1만5천원 · 1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 26 **tue** 6대 광역시 및 제주도 예술교류전 부산광역시 극단 동녘 '바리데기' 19:00
1만5천원 · 1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 27 **wed**
- 28 **thu** 6대 광역시 및 제주도 예술교류전 울산광역시 극단 푸른가시 '의자는 잘못이 없다' 16:00, 19:00
1만5천원 · 1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 29 **fri**
- 30 **sat** 6대 광역시 및 제주도 예술교류전 광주광역시 극단 진달래피네 '아규아 나오너라' 16:00, 19:00
1만5천원 · 1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 10/1 **sun**

● 부산시내 기타공연 9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문의 : 시민회관(630-5200)

- 1 **fri** 제 2회 바라크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 -소극장
초대/김태석(011-9224-1424)
- 2 **sat**
- 3 **sun**
- 4 **mon**
- 5 **tue** 극단 현 '가족사진' 17:00, 20:00 -소극장
초대/최규현(019-9211-3641)
- 6 **wed** 이영화 부산콘서트 19:00 -대극장
균일 5만원/정병해(010-9333-8911)
- 7 **thu**
- 8 **fri** 금난새와 유라시안필의 클래식여행 20:00 -대극장
초대/대한생명 마케팅전략팀(669-6738)
- 9 **sat** 전국국악경연대회 제 13회 부산국악대전 -소극장
부산국악협회(644-5211)
- 10 **sun**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20주년 기념공연 17:00 -대극장
14만원 · 11만원 · 8만원 · 6만원/올리브엔터테인먼트(1588-4430)
- 11 **mon** 월요일영화 '유실물'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12 **tue** 고신외대 관현악단 제 11회 정기연주회 19:30 -대극장 허재준(011-9533-7394)
제 1회 부산 청소년 플루트 음악축제 19:30 -소극장 옥영호(011-9322-1805)
- 13 **wed**
- 14 **thu** 유키 구라모토 내한공연 19:30 -대극장
8만원 · 6만원 · 5만원 · 3만원/올리브엔터테인먼트(1588-4430)
- 15 **fri**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10:20, 11:40 -소극장
균일 1만2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 16 **sat** 2006 국악대향연 19:00 -대극장 부산국악협회(644-5211)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13:00, 15:00 -소극장
- 17 **sun** 2006 부산예술제 실버가요제 17:00 -대극장 부산연예협회(646-7343)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12:00, 14:00, 16:00 -소극장
- 18 **mon** 월요일영화 '각설탕'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19 **tue** 한낮의 휴 콘서트 11:00 -대극장
균일 1만원/시민회관(630-5200)
- 20 **wed** 볼쇼이 오페라 갈라 콘서트 19:30 -대극장 도토리엔터테인먼트(627-3232)
6대 광역시 및 제주도 예술교류전 '실종' 19:00 -소극장
- 21 **thu** 6대 광역시 및 제주도 예술교류전 연극페스티벌 '실종' 19:00
-소극장 1만5천원 · 1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 22 **fri** 6대 광역시 및 제주도 예술교류전 연극페스티벌 '실종' 19:00
-소극장 1만5천원 · 1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 23 **sat**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11:00, 14:00, 17:00 -대극장 도토리엔터테인먼트(627-3232)
6대 광역시 및 제주도 예술교류전 '실종' 16:00, 19:00 -소극장
- 24 **sun**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11:00, 14:00, 17:00 -대극장 도토리엔터테인먼트(627-3232)
2006 부산영상제 11:00 -소극장 부산영화인협회(441-9084)
- 25 **mon** 월요일영화 '가필드 2' 14:00,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6대 광역시 및 제주도 예술교류전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16:00, 19:00 -소극장
- 26 **tue**
- 27 **wed** 부산심포닉밴드와 함께하는 청소년음악회 19:30 -대극장 손정경(017-559-9063)
6대 광역시 및 제주도 예술교류전 '뮤지컬 캣츠' 16:00, 19:00 -소극장
- 28 **thu**
- 29 **fri** 스모키 내한공연 20:00 -대극장 라이브플러스(02-522-9933)
6대 광역시 및 제주도 예술교류전 '적의 화장법' 16:00, 19:00 -소극장
- 30 **sat** 스모키 내한공연 19:30 -대극장 라이브플러스(02-522-9933)
우수 청소년음악회 18:00 -소극장 무료/차현희(011-862-0980)
- 10/1 **sun**

금정문화회관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2)

- 1 **fri** 브니엘예중 개교 10주년 무용발표회 19:00 -대공연장 브니엘예중(513-9743)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10:20, 11:40 -소공연장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 2 **sat**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11:00, 14:00, 16:00 -소공연장
균일 1만2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 3 **sun**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12:00, 14:00, 16:00 -소공연장
균일 1만2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 4 **mon** 2006년 부산예고 동문무용제 19:30 -대공연장
초대/이화성(011-9147-2733)
- 5 **tue** 박미성 피아노 독주회 19:30 -대공연장
균일 1만원/프로인트(521-5729)
- 6 **wed** 김태기 피아노 독주회 19:30 -대공연장 가람기획(626-6664)
금정수요음악회 '조현미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
- 7 **thu** 부산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예술기획(0505-700-9798)
김성숙, 형희전 듀오콘서트 19:30 -소공연장 프로인트(521-5729)
- 8 **fri** 브니엘예고 정기무용발표회 19:00 -대공연장 브니엘예고(582-7671)
크로노스앙상블 제 7회 정기연주회 19:30 -소공연장 이장호(011-830-4770)
- 9 **sat**
- 10 **sun**
- 11 **mon**
- 12 **tue** Random Art Project 작은방 '목소리' 19:30 -대공연장 진영애(016-593-6658)
계명 소평음악원 교수음악회 19:30 -소공연장 예술기획(0505-700-9798)
- 13 **wed** 금정수요음악회 '소프라노 신정순 독창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
- 14 **thu** 일파야금합주단 창단 10주년 기념공연 19:30 -대공연장 장혜숙(017-544-5505)
임화경 피아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프로인트(521-5729)
- 15 **fri** 박미은 피아노 독주회 19:30 -대공연장 프로인트(521-5729)
플룻앙상블 더블삼 정기공연 19:00 -소공연장 구현욱(016-584-4104)
- 16 **sat** 오난숙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소공연장
균일 1만원/오난숙(017-844-6161)
- 17 **sun**
- 18 **mon** 이수연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대공연장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
- 19 **tue** 소프라노 김현주 귀국독창회 19:30 -소공연장
초대/김현주(010-3120-5221)
- 20 **wed** 우리가곡연구회 제 14회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프로인트(521-5729)
금정수요음악회 '김수진 피아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 21 **thu** 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의 Thee Great Sonata 19:30
-소공연장 3만원 · 2만원/프로인트(521-5729)
- 22 **fri** 뮤지컬 '헤드윅' 20:00 -대공연장 공연기획 예명(804-0087)
이선아 첼로 독주회 19:30 -소공연장 예술기획(0505-700-9798)
- 23 **sat** 뮤지컬 '헤드윅' 16:00, 19:00 -대공연장
5만원 · 4만원/공연기획 예명(804-0087)
- 24 **sun** 뮤지컬 '헤드윅' 15:00, 18:00 -대공연장
5만원 · 4만원/공연기획 예명(804-0087)
- 25 **mon**
- 26 **tue**
- 27 **wed** 금정수요음악회 '송언경 첼로 독주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
- 28 **thu** 금정무용제 19:30 -대공연장 금정구청(519-4064)
금정국악제 19:00 -소공연장 무료/금정구청(519-4064)
- 29 **fri**
- 30 **sat** 오페라 '굴뚝청소부 샘' 16:00, 19:00 -대공연장 무료/금정구청(519-4064)
금정연극제 '삼류배우' -소공연장 무료/금정구청(519-4064)
- 10/1 **sun** 오페라 '굴뚝청소부 샘' 17:00 -대공연장 무료/금정구청(519-4064)
금정연극제 '삼류배우' -소공연장 무료/금정구청(519-4064)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예매할 수 있는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람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9/3(일) 18:00	진보라 재즈콘서트	R석 35,000원 · S석 30,000원	10%	(주)원스테이지 (1588-0881)
	9/9(토) 16:00, 19:30 9/10(일) 15:00, 18:30	뮤지컬 I Love You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10%	레드슬리퍼 (622-3496)
시민회관 대극장	9/23(토)-9/24(일) 11:00, 14:00, 17:00	명작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R석 25,000원 · S석 20,000원 A석 15,000원	25%	도토리엔터테인먼트 (627-3232)
시민회관 소극장	9/15(금) 10:20, 11:40 9/16(토) 13:00, 15:00 9/17(일) 12:00, 14:00, 16:00	명작뮤지컬 피노키오	균일 12,000원	균일 10,000원 (매표소에서 카드제시)	동그라미그리기 (818-1772)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9/22(금) 22:00 9/23(토) 16:00, 19:00 9/24(일) 15:00, 18:00	뮤지컬 헤드윅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10%	공연기획 예명 (804-0087)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9/1(금) 10:20, 11:40 9/2(토) 11:00, 14:00, 16:00 9/3(일) 12:00, 14:00, 16:00	명작뮤지컬 피노키오	균일 12,000원	균일 10,000원 (매표소에서 카드제시)	동그라미그리기 (818-1772)
울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9/22(금) 10:20, 11:40 9/23(토)-9/24(일) 13:00, 15:00				
동아대학교 석당홀	9/9(토) 16:00, 19:00	멜로 브리즈 단독 콘서트	균일 30,000원	10%	(주)원스테이지 (1588-0881)
	9/30(토) 19:00	아카펠라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연인석 50,000원 · VIP 40,000원 일반석 30,000원	5%	PS엔터테인먼트 (805-7877)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지정 예매처

- 부산은행 전 지점, 티켓 365(www.ticket365.co.kr) · 중구/남포문고(245-8911), 문우당서점(245-3843)
- 부산진구/동보서적(서면 제일은행 옆 803-8000), 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 금정구/신나라레코드 부산대점(부산대 앞 518-0686), 골든악기사(부산예고 앞 512-4295)
- 남구/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4) · 해운대구/해운대약국(해운대시장 입구 752-0100), 비바체 클래식(선프라자 1층 743-0003)
- 사하구/향학서점(동아대 하단 캠퍼스 앞 203-9381)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야마하 공식 A/S점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본적과 현주소

김형희 · 트러스트무용단 대표

일 년에 한 번 정도 일까. 어릴 적 물장구치며 갯가재 잡던 추억을 더듬어 고향 구석구석 뒤져보지만 이젠 그때의 맑은 시냇물은 커녕 소음과 매연, 인파들, 아파트만 자리하고 있다.

나의 본적은 거제도다. 무용을 하겠다고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30년이 되었다. 부산에서 1995년에 무용단을 만들었고, 2000년에 서울로 동지를 옮겨와 벌써 6년이 넘어간다. 쉬운 결정은 결코 아니었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 사이에 몽골도 가족이 함께 2년간 다녀왔으니 큰 인생의 경험을 한 셈이다.

인생선배들이 늘상 고백하던 것이 생각난다. '이웃사촌', '정들면 고향이라'고. 늘 그렇듯이 낯선 곳에서 시작하는 삶은 위험과 기대감이 교차되기 마련이다. 이방인에 대한 생각들은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인지 도움과 사랑을 받을 때도 많지만 시기와 따돌림을 받을 때도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날개를 펼치기 위해 늘 도전과 용기를 싸안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를 가야할 지 현재로는 알 수 없지만 항상 어디든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정착민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유목민의 정신을 가지고 말이다.

요즘 세계 여러 나라를 답사하고 다양한 민족과 계층의 사람들을 접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발견하게 된다. 정착과 이동이 바로 그것. 두 단어의 차이만큼이나 정착인과 이동인의 삶도 명확히 대별되어 보인다.

정착인은 정주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단한 평온과 신뢰를 느낀다. 자신의 신분이나 환경의 변화를 원하지 않기에 현 상태에서 모든 위험과 고통이 배제된 채 안정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최고의 미덕과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크고 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될수록 자부심과 안도감은 비례하기 마련이다. 또한 성공의 개념이 뚜렷하여 그 소속된 사회의 가치관(주로 부, 권력, 명예)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를 위해 구성원은 항상 비교와 경쟁으로 유도되기 쉬운 특성이 있다.

편리한 도시 문명을 바탕으로 과학, 각종 학문,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정착하기 쉬우며 사적 소유 개념이 강하고 이에 따른 가시적인 서열현상을 보이는 경향이 크다. 자연스럽게 다양한 계급화가 진행되면서 기득권층과 도태되는 무리 사이에서 불만과 분쟁의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다. 공동 집단속에서 평소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 다른 정체성의 상대를 만났을 때 새로워하고 흥미를 갖기보다 불편해하고 경계심을 강화하게 된다.

반면에, 이동인의 대표적인 모습은 유목민적 속성을 말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 공동체가 함께 관여하고 나눈다. 그런 속성에 동의하여 우리가족은 2000년도에 부산에서 등지를 떠나 몽골로 향했다. 물론 그 사이 여행하면서 수차례 오가며 느꼈던 느낌과는 사뭇 달랐다.

사는 것과 여행.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몽골을 바라보니 정말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까, 내가 살고 있는 현주소인데, 일주일간 집안에서 박혀 잠만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 상태, 무기력증, 힘든 상황이 답답했다.

그래,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사랑하자. 그 곳에 살면서 인생에 가장 귀한 경험이었고 돈으로 교육받을 수 없는 몽골에서의 삶을 통해 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만들어졌다. 아이들을 제도권의 학교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고, 홈 스쿨과 검정고시로 마치게 했다.

지금 독일에서 치의학을 하고 있는 큰아이가 유학 가기 전 날 밤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은 침실, 몽골은 거실, 중국은 부엌, 난 지금 서재로 떠나요. 세계가 곧 우리집이에요 엄마~”

많은 사람들이 집 만들기에 인생을 건다.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차, 아마도 끝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둘 것인가가 중요할 뿐이다.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미래를 위한 현주소란은 항상 열려있다.

현주소를 본적처럼 생각하고 살고 싶다. 지금 내 곁에 다가온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어우러져 살고 싶다. 어쩌면 나는 가장 부유한 인생을 살고 있는 지도 모른다. 물질적 부유함으로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많은 고향, 본적을 가슴에 담고 또 새로운 희망을 찾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런 삶 속에서 무용단이 올해 10주년 공연을 했다. 그동안 많은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을 통해 하나씩 성장해나감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10년 후를 기대해본다.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고, 사람들이 만나 일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 사랑하며 살아간다.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하여 우리는 그 만남의 장에서 춤을 춘다. 진솔한 춤을.

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진정 보고 있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저 보여지는 그 자체일 뿐, 진정성은 그 보이지 않은 것을 품은 그림자라는 것이다. 진정성을 품고 춤이 되는 사람들, 그들과 세상을 유목하며 언제까지나 춤을 출 것이다. 현주소를 본적으로 여기며.

이제는 문화도 산업입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 선 기** 위원장



“문화와 교육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혜택을 받는 분야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사교육비와 문화 생활비부터 줄여나가는 게 보통입니다.”

지난 7월 제 5대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백선기 의원(59). 4대에 이어 5대 부산시의회를 지키고 있는 백선기 의원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부산시의 행정과 문화, 교육 현안을 파악하느라 어느 때 보다 분주한 여름을 보냈다.

백선기 위원장은 시의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교육과 문화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부산시민을 대신해서 평소 관심을 가져온 분야에서 봉사

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

“부산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부산시의 정책과 입법, 기타 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물론 집행기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시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가집니다.”

백선기 위원장이 속해 있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행정자치국, 문화관광국, 공무원교육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경륜공단이 속해있다. 부산의 행정과 문화, 교육 전반을 아우르고, 부서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안과 조례심사 등을 처리한다. 부산의 행정과 문화, 교육이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백선기 위원장은 특히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경성대학교 유아교육학과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부산시의회 내에서는 알려진 교육전문가이다.

“유아들을 지켜보면서 문화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문화적인 사람, 문화적인 도시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아시절부터 좋은 공연을 보고 자연스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안목을 키워나가는 것이 문화 도시 부산을 가꾸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 관람 계획을 세우면서 선택의 폭이 좁다는 부산 문화계의 현실을 직접 경험한 백선기위원장은 평소 부산에서도 부산 시민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공연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

올해는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가 처음으로 개최되어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상영관을 찾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는 백선기위원장은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개최가 부산이라는 도시 규모를 본다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영화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준 영화제 자원봉사자, 영화제 후원회원들의 열정이 자랑스럽다.

특히 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짧은 시간에 부산국제영화제를 성공시킨 부산시민들의 저력을 믿는다는 그는 문화 현장, 교육 현장을 찾을 때 마다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즐거움이 크다. 앞으로 시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공연장 건립과 문화 예술계에 대한 지원이 적절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그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의 몫임을 잘 알고 있다. 백선기위원장은 요즘은 막바지 개관준비를 하고 있는 해운대문화회관을 비롯 부산 지역 공연장의 활성화 방안, 축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지난해 백선기 위원장은 의회에서 해운대가 세계적인 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되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부산 유일의 관광특구인 해운대가 부산관광을 리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연계할 관광자원이 없어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은 여름철 해수욕장 피서객이 대부분인 만큼 해운대 관광특구의 관광기능을 자연경관 위주의 정적인 것에서 체험형 문화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운대 온천센터 일대 2만 2,000여 평과 송림공원 일대 1만 3,000여 평을 아쿠아리움과 연계하여 복합 해양, 과학리조트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오는 부산은 특히 여름 축제가 많습니다. 이제는 문화도 산업입니다. 직접 손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축제를 보며 우리 축제들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부산 재도약’을 기원하는 백선기 위원장의 열정과 추진력을 지켜보는 부산 시민들은 언제나 든든하다.



나의 문학의 뿌리 송정 해변

공재동 · 동시인

송정초등학교

1972년 3월 2일 이른 아침, 나는 해운대에서 송정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탔다. 쌀쌀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낡은 시내버스는 해운대 달맞이 고개를 넘어 산허리를 따라 꼬불꼬불 이어지는 이차선 포장도로를 숨가쁘게 달리고, 달맞이고개 아래로 미포, 구덕포, 청사포가 차례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멀리 푸른 바다 너머로 먼 산들이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냈다. 그날 아침 나는 부산교대를 졸업하고 첫 발령지인 송정초등학교에 출근하는 중이었다.

송정초등학교는 소속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였지만 송정동 아이들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소정, 오신, 원내, 공수, 동암 같은 경상남도 울주군에 속하는 마을 아이들이었다.

4학년 1반 내가 맡은 최초의 아이들이었다. 용기라는 아이가 있었다. 용기는 1학기에는 몇 번

얼굴을 보았지만,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아예 학교를 오지 않았다. 해수욕철이 되면 아이스케키 통을 짊어지고 매일 해변을 누빈다. 송정초등학교에는 용기 말고도 많은 아이들이 여름 한철 아이스케키를 파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였다. 하루는 용기를 만나 팔다 남은 아이스케키를 몽땅 사고는, 식당에 데려가 점심을 먹었다. 새까맣게 탄 용기의 손을 잡으며 2학기가 시작되거든 잊지 말고 학교에 오라고 했다. 여름이 지나고 9월이 되자 용기는 학교엘 왔다. 그리고는 1년 치 육성회비를 모두 냈다. 그 당시 교사들은 아이들로부터 육성회비를 받아내는 일이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꽃의 이름

들길을 걸으며
꽃을 만날 때마다
이름을 물어 보지만
꽃들은 제 이름을 말하는 법이 없다.

“네 이름이 뭐니?”

아무리 큰 소리로 물어도
꽃들은
듣는 채도 않는다.

사람들이 제 맘대로
붙여준 이름이라
대응에 들지 않는 걸까.

꽃들은
아무리 물어도
제 이름을 답해주는 법이 없다.

송정과 구덕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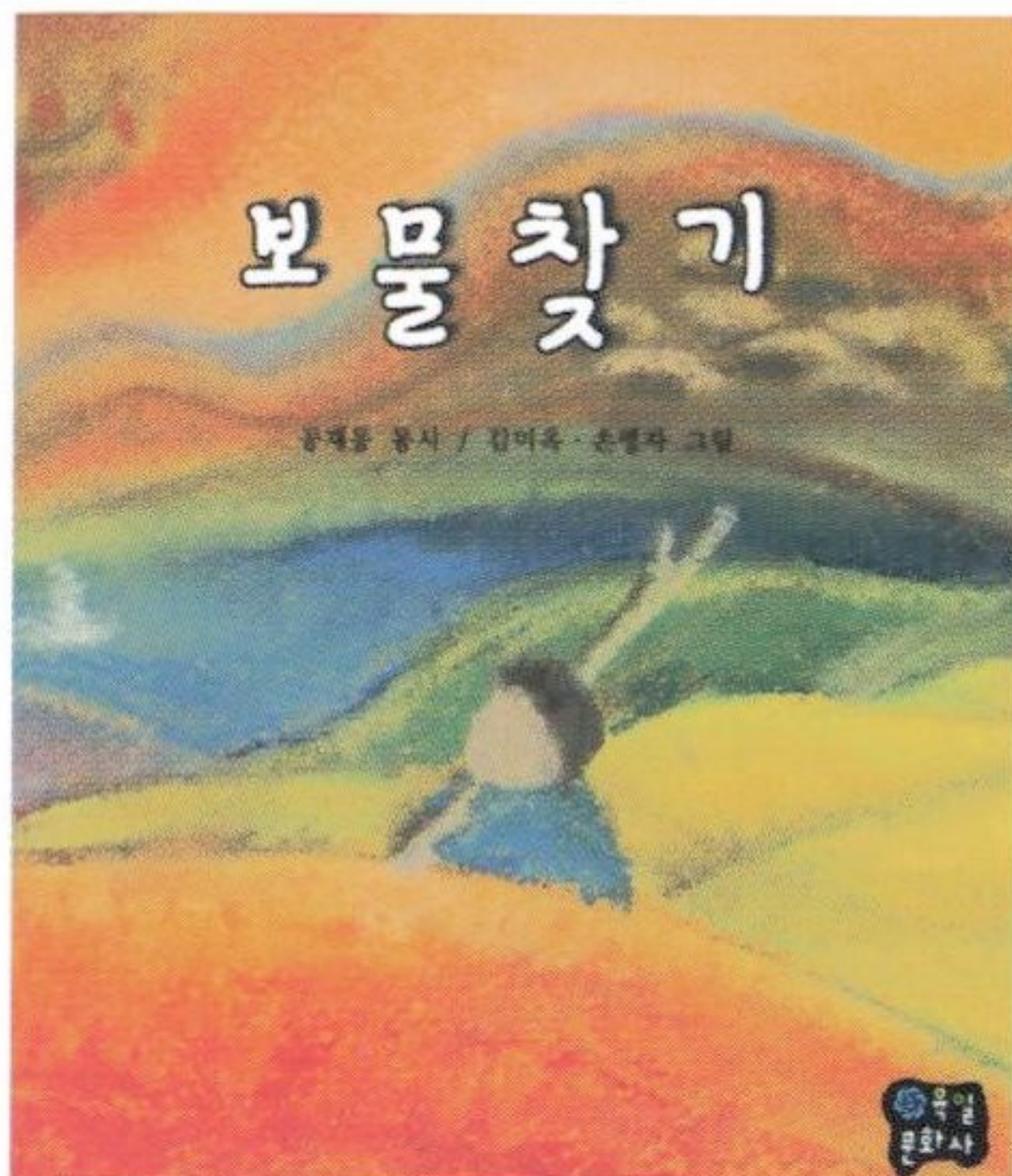
겨울이 되자 나는 일단 송정 바닷가를 걸어 20분쯤 걸리는 구덕포에 하숙을 얻었다. 어부의 아내인 주인아주머니는 나의 간곡한 부탁을 ‘자기들이 먹는 대로 음식을 차려 내어도 괜찮다면’ 그런 조건으로 내 청을 들어주었다. 나는 매일 학교가 과하면 우선 해변으로 나가 청주 반 되에 우렁쟁이 한 접시로 영혼을 채우고 어두운 바닷가를 걸어 구덕포로 갔다. 그러면서 매일 머리 속에는 시를 생각했다.

새싹의 작은 손이 / 땅을 연다. // 새싹의 작은 손이 / 하늘을 연다. // 태양은 새가 되어 / 들판 / 가득히 지저귀고 // 새싹의 작은 손이 / 연두빛 문을 연다. - ‘새싹’ 전문 -

1973년 봄,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쓴 동시라는 이름의 시였다. 물론 나는 시골 초등학교 시절부터 책을 읽고 시를 쓰던 문학 소년이었고, 고향 마을에 있는 시골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1학년 문예반에서 지도교사가 낸 숙제를 하기 위해 지은 ‘장미’라는 시는 지도교사의 소개로 전교에 알려지기도 해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전교생이라야 남녀를 합쳐 네 반 20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였지만.

고등학교 시절에는 소위 문학 선수로 여기저기 백일장에 나가 상을 타오기도 했다. 진주 개천에 술제 백일장, 부산대학교 효원축제 백일장, 마산 항도제 백일장... 나는 학교 대표로 이런 백일장 단골손님으로 상을 타와 전교 조례 시간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상을 전달받고 작품을 낭송하기도 했다.

그러던 내가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으면서 동시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교사들을 위한



공재동 시인의 일곱번째 시집 '보물찾기'

잡지에 이 '새싹'을 동시라는 이름으로 투고를 했다.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돌아가신 김현승 시인이 '내가 작품을 심사하면서 이렇게 기쁠 때가 없었다'로 시작하는 추천사와 함께 '새싹'을 초회 추천작으로 밀어 주었다.

세종아동문학상

송정에서 구덕포로 이어지는 길은 시멘트로 포장되어 차가 지날 수 있지만, 송정역을 지나면서부터는 돌맹이가 박힌 작은 오솔길이였다. 송정역을 지나는 길을 애써 피하고 해변을 따라 모래 위를 걸어갔다. 해변길이 끝나면 곧 돌맹이가 박힌 오솔길이였다. 나는 꼬박 1년 반을 매일 이 길을 따라 출근을 하고 저녁에는

술 한 잔 마시고 이 길을 따라 돌아오곤 했다. 길을 걸으며 시를 생각하고 거의 매일 한 편씩의 시를 썼다.

아침 출근길 풀잎에 맺힌 이슬을 보며,

이른 아침 / 아이 하나 나와 / 풀잎에서 구슬을 탄다. // 아무리 따도 / 두 손만 남고 / 아무리 따도 / 빈 손만 남고 // 이슬은 깨어져 / 눈 속에 숨는다. - '이슬' 전문 -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도 그대로 지나칠 수 없었다.

풀잎이 봄내 / 기도로 피운다. // 풀잎에 글썽이는 이슬과 / 풀잎에 반짝이는 햇살과 / 풀잎에서 격이는 바람이 / 떨며 흐느끼며 / 새로이 태어난다. // 들녘 끝 어디서나 / 문득문득 / 이름도 없이 다가서는 / 낮익은 모습들 // 풀잎이 봄내 / 눈물로 가꾼다. - '풀꽃' 전문 -

그 뒤 1977년 '아동문학 평론'을 통해 정식으로 문단에 나왔으며, 1979년에 나온 첫 동시집 '꽃밭에는 꽃구름 꽃비가 내리고(새로출판사)'는 송정과 구덕포를 오가면 쓴 작품들을 날짜별로 모아 엮은 동시집이다. 이 작품집이야말로 송정 바닷가를 출퇴근길로 삼아 학교와 구덕포를 이은 아름다운 체험의 산물인 것이다. 이 시집으로 그 해 제12회 세종아동문학상을 받았는데 문학이 무엇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20대 후반에 얼떨결에 받은 내 생애 최초의, 최고의 문학상이었던 셈이다.

나는 30여년을 동시에 묻혀 살고 있지만, 나의 동시의 뿌리는 바로 송정과 구덕포를 잇는 해변길이다. 이제는 격세지감이 들 정도로 70년대의 정취는 온데간데 없지만 지금도 그 해변길을 잊지 못한다.

동시는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시

동시인 공재동



한 평생을 어린이들과 호흡하며 많은 동시를 발표해온 동시인 공재동(57)씨.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도 몇번씩 “어떤 시를 좋아하세요, 외우는 시가 뭐예요”고 질문을 던지고 싶다.

시를 읽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린 요즘같은 시기에 동시인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공재동씨는 동시를 너무 쉽게 보는 우리나라의 풍토가 아쉬울 때가 많다.

“동시는 분명 시입니다. 어린이가 지은 시라면 그것은 아동시라고 해야 하겠지요. 동시는 어린이에게 언어적인 재미를 줄 수 있고 문학적으로 승화되어 어른들에게도 감동을

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재동 시인은 1977년 아동문학평론을 통해 등단했다. 어린시절 소문난 글솜씨로 웬만한 상은 다 휩쓴 글짓기 선수였다.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시를 쓰게 되었다. 동시는 시이면서도 어른이 가진 쓸쓸함, 상징적인 표현을 할 수 없어 작업이 더욱 어렵다고 한다. 공재동 시인은 1979년 낸 첫 시집으로 세종아동문학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당시 심사위원은 김동리, 신지식 선생으로 나이 많은 사람에게 준다는 통념을 깨고 작품으로 평가를 받아 20대에 최연소 수상을 기록하며 세종아동문학상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 기록은 아직 깨어지지 않고 있다. 절제된 언어와 정서로 어린이와 어른을 함께 아우르는 시세계를 펼쳐온 그는 그동안 이주홍 아동문학상, 부산문학상, 최계락문학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일곱 번째 동시집 ‘보물찾기’로 방정환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재동 시인의 시 3편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필독서 목록에 시집은 몇 권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인류의 희망입니다. 어릴 때 시를 외운 아이들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보는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부산시 동부교육청에 재직하고 있는 공재동 시인은 바쁜 업무중에도 ‘동시를 읽는 어머니 모임’에 참석하는 날이 가장 즐겁다.

국악에 대한 오해

홍희철 · 고신대, 경성대, 부산교대 외래교수

“국악은 너무 느리고 청승맞다...”.

“국악은 음정이 5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대음악을 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밤에 국악을 들으면 뱀 나올 것 같다...”.

평소 알고 지내는 피아니스트가 평소 자신이 국악에 대해 생각했던 느낌을 필자에게 해준 말이다. 먼저 정답부터 말하고 넘어가자. 국악은 무섭지도, 뱀이 나오지도 않는 아름다운 음악이다. 물론 귀신이 나온 적도 단 한번도 없다. 국악은 느린 곡도 있지만 경쾌한 곡이 더 많으며 청승맞지도 않다. 청승맞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 누군가의 행동에서 하나가 싫으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게 싫고 멀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국악은 음정이 다섯 개가 아니라 12개가 엄연히 존재하며 현재 쓰이고 있는 서양음악 12음의 모태라고도 할 수 있는 동양 12율명을 가지고 있다. 12개의 음정(율명)중에서 다섯 개의 음만으로도 우리민족의 정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음악이 국악인 것이다.

의외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서양음악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한국음악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많이 본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이런 경우 참 안타깝다. 국악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이런 말을 안 할 텐데... 서양화와 한국화가 다르고, 양복과 한복이 다르고, 한옥과 양옥이 분명 다르고, 흑인과 백인 그리고, 단추 구멍 같은 작은 눈에 누런 얼굴을 가진 한국인의 얼굴이 제각각 다르듯이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은 많은 부분이 다르다. 즉 각각의 특성이 있다는 말이다.

한국음악에는 먼저, 서양음악이 가진 화성이 없다.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음악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과격한 비브라토(농현)가 있기 때문이다. 서양음악은 화성을 쌓기 위해 각 악기의 비브라토 처리를 아주 미세하게 해서 서로 어울리는 음들이 세로로 쌓일 때 심오하고 깊이있고 거룩한 소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화성이 발달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음악은 너무도 개성있는 비브라토를 구사하기 때문에 화성을 쌓을 이유를 모를 뿐 아니라, 그리 중요성도 못 느낀다.

음악의 3요소 중 하나인 화성이 국악에는 없다. 그러므로 음악의 3요소가 아닌 <서양음악의 3요소>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올바른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국악은 서양음악에 비해 몇 가지 재밌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강박에서 시작해서 약박으로 마치는 음악형식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민요곡에서 못갓춘마디의 곡이 없는 것이 그 이유다. 즉, 우리말은 영어의 'a' 나 'the' 같은 관사가 없이 바로 시작되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센박이 처음에 나올 수밖에 없다. 국악장단의 처음이 양손 모두를 쓰는 <덩>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독교 찬송가의 경우를 보면 상당수의 곡들이 못갓춘마디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로 된 가사에 곡을 옮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찬송가의 곡

이라 하더라도 한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곡들은 모두 첫 박이 센박으로 시작되며, 못갓춘마디의 곡은 없다.

국악은 느려서 싫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국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양반, 지식계급층이 향유하던 음악(정악)과 평민 하층민이 향유하던 음악(민속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느리고 잠 온다고 생각하는 음악이 앞서 말한 정악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그 당시의 지식, 상류층의 음악이 왕과 권력자, 상류층을 중심으로 연주되었음을 볼 때 느린 곡 연주의 등장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절대 권력자인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임금도 사람인데 집안문제, 왕비와 후궁, 신하들과의 인간관계, 권력세습 등 민감한 문제들로 인해 시달리는 사람 앞에 감정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는 빠르고 감정적인 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어쩌면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연산군이라는 임금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래서 평상심을 유지하도록 음악이 느리고 여유 있게 연주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일부 찾을 수 있다.

평민중심의 음악인 민속악은 권력층음악인 정악과는 정반대로 갔다. 즉 정악이 느리면 민속악은 빠르고, 정악이 절제하면 민속악은 거침없이 희노애락을 표현했다. 그래서 판소리, 산조, 민요, 사물놀이 등의 음악을 듣다보면 격식이 없고 해학과 신명, 거침없는 무언가를 만끽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일본의 총리라는 사람이 이웃나라들에 대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 한국인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A급 전쟁범죄자가 합사된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보며 사람이 무식하고 편협된 생각이 가득차면 저렇게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지와 편견이 죄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수 천 년간 맥을 이어온 한국 전통음악을 일본제국주의는 잔인하리 만큼 탄압하고 짓밟았다. 우아한 가야금을 기생음악으로 전락시키려 했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한국음악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 온 세상에 아름다운 가락을 들려주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판소리, 종묘제례악 같이 우수한 음악문화와 한국의 궁중음악만큼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느끼게 하는 음악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마저 이겨낸 한국음악 앞에 이 음악의 주인인 한국인들의 무지와 오해가 도사리고 있을 줄을 우리선조들이 알고 있었을까? 세계적인 음악가로 추앙받는 윤이상 선생의 음악배경에 국악장단, 국악선율이 배여 있음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별이 꽃처럼 쏟아지는 밤

— 이인철의 그림 <달동네>

김형술 · 시인



달동네. 76x105cm, 2005

폭우와 폭염과 태풍의 나날들 끝자락에 서 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번 여름 또한 위대했다. 폭우에 떠내려가고 폭염에 데이고 태풍에 사정없이 휘둘린 상처들 위에 딱지가 앉으려면 아직 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가을을 준비할 때이다. 여름 내내 벗어부치고 열어 제친 옷자락을 가지런히 모아 여민 후 태양을 피해, 뜨거운 태양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눌러졌던 모자를 벗어야 할 때인 것이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추스린 후 벗은 모자를 가슴팍에 얹고 하늘을 올려다 보는 일은 방탕했던 여름에 관한 경건한 사죄의 의식이기도 할 터. 그걸 모를 리가 있겠냐는 듯 하늘은 어느새 깊은 푸른색을 머금었다. 여름 내내 뭉게구름을 드리운 채 인간의 머리 위 가까이 내려왔던 하늘은 이제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것 같은 먼 곳으로 구름한 점 없이 물러나 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먼 곳에서 가을꽃처럼 무심한 별들이 태어날 것이다. 폭우와 폭염과 태풍의 나날들을 온몸으로 겪어온 후에라야 비로소 태어

날 수 있는 서늘한 꽃 혹은 별들.

별들이, 가을들길에 피어나는 자잘한 꽃송이같은 별들이 푸른 밤하늘에 솟아난다. 화가 이인철의 그림 <달동네> 속의 별들은 솟아나자 말자 인간이 잠든 밤의 지상으로 쏟아진다. 쏟아지고 쏟아지다가 낮게 엎드린 지붕들 위를 빙글빙글 맴돈다. 아름답다. 어지러워 혼절할만큼 황홀한 광경을 신은 대부분의 인간이 잠든 시간에 펼쳐 보인다. 신은 분명 심술궂

거나 장난꾸러기임이 틀림없을 터이지만 또한 아이처럼 천진하기도 한 모양이다. 지상의 가장 높고 가장 가난한 마을인 달동네에 가장 먼저 이런 축복을 내려주기도 하는 걸 보면.

힘든 하루의 노동에 지친 어떤 집은 일찌감치 잠들고 또 어떤 집은 다가 올 아침의 새로운 노동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잠이 깬 달동네의 어떤 지붕 아래, 도저히 잠들 수 없는 한 쌍의 연인이 살고 있어 별을 맞는다. 꽃처럼 쏟아지는 별들은 오직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자신들의 사랑을 축복하기 위한 거대한 세레모니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연인들은 믿어버린다.

그러자 달동네 가난한 연인들의 집은 별들을 향해 하늘로 솟아오른다. 비 내린 새벽 대나무밭의 죽순처럼, 동화 속 자크의 콩나무처럼 쑥쑥 자라나 별 가까운 하늘에 자리를 잡는다. 달동네 낮은 지붕들, 굽은 골목길들이 가물가물해지고 꽃인 듯 향기로운 별들은 손에 잡힐 듯 또렷하다. 그러나 하늘의 별을 따다 당신의 두 손에 담아드리겠노라는 세상 모든 연인들의 약속은 결코 사탕발림이 아닌 것이다. 이제 이 가난한 연인들에게 남은 일은 단 하나, 무릎과 팔과 입술을 포개 채 한 몸이 되어 사랑을 나누는 일이다. 그건 달동네의 가난이나 고단한 노동 따위 지상의 모든 고통을 위무하며 축복을 내리는, 별이 쏟아지는 만월의 밤에 가장 어울릴 법한, 아니 반드시 치루어야 할 의식이기도 할 것이다.

화가 이인철의 그림 속에는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친근한 풍모의 서민들이 등장한다. 입체와 평면작업을 병행하는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자 당대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더러 익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상징이나 관념의 옷을 입고 등장하는 작품 속 인물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들은 지금, 여기 우리들이 영위하는 삶의 우화적 변형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그 관념이나 우화의 세계가 아름다운 것은 삶을 긍정하는 따뜻한 시각 때문이지 싶다.

그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천진하고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과 상황이 자아내는 유머러스한 풍경은 입가에 미소를 자아내게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벼랑'과 '외나무 다리' 등의 형상을 가진 고단한 삶의 페이스 또한 어렵지 않게 다가온다. 당대의 삶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는 존명의 허무와 비애를 익살과 유머로 가볍게 농치며 뛰어넘는 일. 별이 꽃처럼 쏟아질 가을저녁, 달빛이 온 가슴을 헤집어 놓을 가을밤에 더더욱 필요한 덕목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뜨거운 여름

김희진 · 영화감독

여름의 향기는 맵다. 코가 찡한 그 냄새에 눈물은 머리꼭지에서부터 흘러내린다. 오감을 채우는 푸른 독소는 결국 시야를 흐리게 하고 세상천지가 폭발할 듯한 팽창의 푸름으로 현기증이 돈다. 그래, 이게 여름이다. 어딘가로 도피해야 한다. 그러나 강렬한 자극에 매료된 이들은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유혹에 정면으로 응한다. 좀만 더 다가가면 불길이 되어 한 줌 재로 사라지지 않을까. 자살의 충동처럼 느닷없이 찾아와 심신을 괴롭히는 매운 사유를 가진, 불나비처럼 빛을 찾아 헤매는 본능적 욕구를 가진 이들, 그들에게 여름은 그냥 또 한번의 제스처 일 뿐이다.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라는 큼지막한 행사가 하나 지났다. 이열하려고 치열을 한 이들이 과편을 뽑으며 다시 전장을 그린다. 재정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상의의 용사들이여 다시 한번 달려 주길, 아직 마지노는 까마득히 멀리 있소.

비밀을 간직한 태양, <시크릿 선사인>을 꿈꾸는 이창동 감독은 송강호, 전도연을 제외한 70여명의 연기자를 첫 영화 출연자들로 마련했다. 경남, 대구, 부산에서 주로 이루어진 오디션엔 많은 연기자들이 응모했고, 그들 중 태양에 다가간 이들은 모두 영화가 처음이다. 부산에서 참여하는 연기자 분들, 밀양에서 뜨거운 맛 좀 볼 것 같다.

송민호 감독의 <연어>는 그 이름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랑 이야기란다. 최민식의 영화 출연 중단 선언으로 주연이 공석이 되어버려 길을 잠시 잃었었다. 부산의 옛 모습을 담으려 햇살 아래 사냥을 다녀 보지만 부산 변해도 많이 변했다. 컴퓨터로 지울 수밖에 없는 수많은 아파트 배경들을 걱정하며 오늘도 카메라라는 이름의 사냥 도구를 매만진다.

사랑을 잃은 이들이 뭉쳤다. <미련이 남아 프로젝트> 두 번째 에피소드 촬영을 마쳤다. 박인호, 전인룡 감독은 연인이 있는 이들은 작업에서 모두 제외시켰다. “이 여름 웬 지랄이야”라고 한마디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세 번째 에피소드는 내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영화 아니잖아요!>를 위해 오디션을 했다. 박성남 감독은 극 중 감독과 배우가 자유로운 대사와 연기를 하길 원한다. 결국 영화가 영화에 대해 얘기하는 현실에 대한 풍경이 되지 않을까. 오디션 보던 배우

들도 마치 자기 경우처럼 받아들이는 눈치다. 제길 결국 독립영화라니! 언제쯤 빛볼까, 그러나 마이너의 얘기는 마이너만이 할 수 있는 법.

김성준 감독의 <인간 사냥>, 조완준 감독의 아직은 제목이 정해지지 않은 단편영화도 지금쯤 촬영을 마치지 않았을까. 늦여름 그들이 선택한 이야기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다. 정치인과 기업인의 이야기와 한 때 록커였던 젊은이가 직장인이 되어 겪는 이야기, 둘 다 아프다. 단편이기에 들이댈 수 있는 칼날을 그들이 품고 있길 바란다.



제 1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가 뜨거운 부산의 여름을 식혀주는 102편의 영화들을 선보였다.(사진은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비키가족의 날)

KNN이 드라마를 만든다. 이제 곧 방영 될 듯한데, '리플 드라마란' 이름으로 시트콤 형태로 제작된다. 로컬이라 부산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고 있다. 배우들이 자신의 얼굴을 갇힌 연극 무대를 벗어나 공개하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길거리 반쯤 뜯겨나간 공연 포스터에 남아 있는 얼굴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TV를 통해 보여진 얼굴이 길거리에서 팬들과 만남을 통해 확인되는 풍경이 많이 보여 졌으면 한다.

덥다. 덥다. 참 많이도 반복했던 말이다. 프랑스처럼 한 한달간 폭 쉴 수 있는 나라였음 좋겠단 생각도 든다. 너무 더워 노인 분들이 건강을 해칠까 걱정도 된다.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 매운 여름이 지나면 시원한 가을이다. 가장 뜨거울 때 최고로 강렬한 꿈을 꾸 본 이들에게 다가오는 가을이 최고의 휴식을 줄 것이다. 혹 건강을 해친 분들은 몸도 회복될 텐데, 바빠 가을을 보내야 할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

올 해는 처음으로 아시안 필름 마켓이 열리는 해이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부대행사로 마련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부산을 아시아의 영화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에서 출발하고 있다. 여기에 긴장했는지 일본과 홍콩이 견제에 들어갔다. 전통적으로 부산은 상거래의 중심지였다. 영화 산업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좋은 결과를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스텝 여러분의 여름에 이은 가을의 노고에 힘내라 한마디 보탠다.

탈진에 가까운 땀을 흘려 본 이들은 노동에 대한 기쁨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 우린 모두 노동자다. 예술과 문화를 만드는 노동자들도 땀 흘리며 노동할 때를 가장 행복한 시기로 기억한다. 더운 여름 많은 이들이 땀을 흘렸고 누구보다 매운 경험을 했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 매운 맛이 자신의 땀으로 씻겨 사라질 때 까지 노동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매운 줄 알면서 다시 손이 가는 청량고추처럼 다시 노동하길 멈추질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꼭 이런 말을 들려라. 고놈 참 맵네!

파라다이스 감옥 속의 안락함

- 〈빨간 피터의 고백〉

변미선 · 연극배우, 부산대 강사

[빨간 피터] 그리고 이건 내 선생님에 대하여 경의를 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자는 결코 그러한 나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때때로 내손이 가 닿기 힘든 장소의 털가죽에다 붙이 붙은 파이프 담배를 갖다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희끄므레하게 연기가 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커다랗고 선량한 손으로 다시 꺼주었지요.

모든 기억은 오감의 어느 한 구석에 몰래 자리 잡고 있다가 그와 유사한 감각이 스쳐 지나가면 불현듯 고개를 내밀곤 한다. 내가 처음 본 〈빨간 피터의 고백〉도 그렇다.

이 작품을 처음 본 것은 추송웅의 부산공연에서였다. 따로 분장을 안해도 될만한 이미지의 배우가 원숭이 흉내를 내면서 시민회관 소극장에 열기설기 엮은 철창살 사이를 리드미컬하게 왔다갔다하고 있었다. 내가 연극을 접한 초창기인 터라 그 내용과 작품의 주제 등 자세한 것은 기억이 나질 않고 그저 재미난 배우의 모노드라마라는 점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이후 얼마 안있어 그가 40대 젊은 나이에 작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연극의 몇몇 이미지는 소중한 각인으로 남아있게 된다.

모노드라마는 단 한 사람의 배우가 한 시간 이상 작품을 이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칫 지루한 연극이 될 위험성이 많은 극형식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기배우가 주로 감당해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관객들은 시청각적 지루함을 그 배우에 대한 아주 특별한 애정이나 배우의 테크닉으로 대치시켜 만족감을 얻는다. 그러나 그 자체도 한계가 있어서 모노드라마가 수년간의 장기공연에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 15년째 공연 중인 김지숙의 〈로젤〉이나 2005년에 4년간의 장기공연을 마친 서주희의 〈버자이너 모놀로그〉 정도를 장기공연에 성공한 모노드라마로 들 수 있는데, 〈로젤〉의 경우 김지숙의 인지도에 힘입은 바가 크고, 〈버자이너 모놀로그〉는 여성주의와 그 내밀한 폭로에 호기심을 자극한 경우이다. 이 작품들을 제외한다면, 특히 모노드라마로서 최초로 장기공연에 성공한 경우는 유일하게 추송웅의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작품을 초연할 당시에 추송웅은 만년 조역의 무명배우였고 이 작품으로 인해 추송웅은 그의 배우로서의 날개를 펼치게 된다.

추송웅의 〈빨간 피터의 고백〉이 1977년 초연된 이래 1980년대 초반까지 장기공연에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추송웅이라는 배우의 매력 이외에도 당시의 우리나라의 시대적 배경에 의한 정서에도 다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 작품은 카프카의 〈어느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서〉라는 단편소설을 각색한 것으로, 야생의 원숭이가 포획되어 인간세계에 순응해가는 과정이 권력에 순응하는 시대인의 나약한 모습을 빗대어 표현되고 있다.

[빨간 피터] 제가 이 저녁에 마침 눈에 띄지 않게 제 우리 앞에 잘못 버려져 있던 소주병 하나를 집어, 못사람들이 점차 주목하는 가운데, 배운 대로 코르크 마개를 따고 입에 갖다대고는 서슴없이, 입도 찡그리지 않고, 데굴데굴 눈을 굴리며, 목구멍에서 꿀떡꿀떡 소리를 내며, 전문적인 술꾼이 되어, 정말이지 맹세코 남김없이 마셔버리곤, 더 이상 절망한 자가 아니라 예술가가 되어 술병을 던져버렸을 때, 저는 짧고 훌렁



1977년 초연된 추송웅의 '빨간 피터의 고백'을 9월 부산의 배우 김세진의 모노드라마로 새롭게 만날 수 있다.

하게 '여보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인간의 소리를 터뜨린 거죠, 이 외침과 더불어 저는 인간 공동체 속으로 단숨에 뛰어들었고, 그것은 스승을 위해서나 저를 위해서나 그 얼마나 승리였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들을 모방하고 싶다는 유혹은 없었습니다, 저는 출구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모방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에서도 아니었지요.

작품의 주인공 빨간 피터는 '자유'와 '출구'에 대한 묘한 논리를 펼친다. 그는 결코 자유를 원하지는 않았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철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펼치는 서커스단의 멋진 공중곡예이다. 어떤 외적인 한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부조리한 상황의 탈피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의 도모인 것이다. 쇠사슬을 금박 박힌 폴리우레탄 사슬로 바꾸는 것이다.

소심한 우리의 주인공은 용감한 행동을 한다. 인간들의 파티장에서 술을 마시고 술김에 인간의 말을 흉내내버린다. 그의 용감한 행동은 인간들의 사랑을 받기에 이르고, 그는 이제 그에게 인간의 모방을 가르치려는 인간들을 선생으로 고용하고 갈아치우는 오만한 일을 반복한다. 그리고 원숭이로서의 본성을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내심 경멸한다. 시각적 전도이다. 유리철창 속 원숭이는 유리철창 밖 인간들을 관찰하면서 한심한 야생 본능을 버리고 인간들을 모방할 줄 아는 자신의 똑똑함을 거만하게 자랑한다. 또한 시각적 착각이다. 유리철창 밖 인간들은 야생을 잃은 동물원 우리 속의 동물을 보면서 진짜 동물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야생동물들을 포획해서 전시함으로써 이름을 날린 하겐베크의 이름을 딴 하겐베크 동물원이 동물원 철창이 없는 동물원을 최초로 만들어 동물원의 이상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아이러니다. 동물원의 파라다이스, 즉 풀어 말하자면 동물들의 가장 편안한 감옥이다. 멋들어지게 양복을 차려입은 우리의 빨간 피터는 이제 역으로 야성을 보이는 부분에 더욱 주목을 받게 된다. 현재의 자신을 애써 변명하기 위해 총탄의 흔적을 드러내 보이는 행위, 바로 영당이 까기인 것이다.



독립예술운동 펼치는 열린 문화공간

소극장 실천무대 시지프스의 하늘

산 정상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바위를 영원히 밀어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아야했던 신화속 인물 시지프스는 오늘날 반복되는 일상에 매몰된 현대인의 또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지난 7월 극단 새벽이 운영하는 소극장 실천무대가 광복로에 새로운 터전을 잡으면서 마련한 또 하나의 공간 '시지프스의 하늘'은 현대관 시지프스들을 위한 대안문화공간이다.

되풀이되는 삶속에서 가끔은 하늘도 쳐다보며 삶의 여유를 가져보자는 의미의 '시지프스의 하늘'은 실제로도 광복로 도심 우뚝선 건물 6층에 자리잡고 있어 시선을 조그만 돌려도 탁 트인 하늘이 성큼 시야에 들어온다. 20여평의 공간에 무대시설을 갖춘 이 곳은 7월부터 매월 1, 3주 격주로 '수요문화광장'이 열리고 있다. 극단 새벽이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인만큼 이곳에서는 간단한 오디션만 거치면 누구나 무대에 설 수 있다.

"프로와 아마추어는 직업으로 삼느냐 아니냐는 문제이지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실력의 차이는 아니다"는 극단 새벽의 상임연출가 이성민씨. '상품화된 스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아닌 대중과의 소통속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는 그는 '시지프스의 하늘'을 아마추어 문화예술의 열린 공간이자 독립예술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근거지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수요문화광장'. 수요문화광장 세 번째 무대가 열렸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수요예술마당은 간단한 오디션만 거치면 누구나 무대에 설 수 있다.

광복로로 새 터전을 옮긴 극단 새벽은 소극장 실천무대와 함께 '시지프스의 하늘'을 개관했다.(사진은 소극장 실천무대 내부)

던 지난 8월 16일에는 '김광석 밴드'로 수요문화광장의 첫 문을 열었던 포크 듀엣 박정준, 황태현의 무대가 다시 마련됐다. '더 큰 세상'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무대에 선 이들은 앞으로 매월 셋째주 수요문화광장 무대에 고정출연하면서 그 뜻에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

공연시작 30여분 전부터 삼삼오오 모여든 관람객들은 가벼운 식사와 음료를 곁들여 정담을 나누었다. 공연이 시작되고도 자유로운 분위기는 계속 이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연주자와 관객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친밀한 분위기로 채워져갔다. 아직은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관객수가 그다지 많지 않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관객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30여명의 관객들이 서로 어우러져 공연을 즐겼다. 9월 6일 열리는 수요예술마당은 '가수 우창수, 연출가 이성민과의 음악과 대화'란 주제의 무대가 펼쳐진다.

극단 새벽이 또하나 의욕적으로 펼치는 사업은 바로 문화예술연대기금 조성이다. 앞으로 독립예술운동을 펼쳐나 가는데 중요하게 쓰일 문화예술연대기금은 그 뜻을 같이 하는 후원회원 모집을 통해 꾸려나갈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 후원회원 수는 30여명 정도이지만 수요문화광장이 홍보가 되면서 회원수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기금이 조성되는 대로 우선 독립음반 제작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성민씨는 부산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가수 우창수씨와 수요문화광장의 첫 고정출연팀인 '더 큰 세상'의 음반제작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음반 제작 뿐 아니라 독립영화 지원에도 힘을 보태고 싶다.

2월 광복로로 새 터전을 옮기면서 극단 새벽이 또 하나 계획한 것이 바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제 행사. 가마골소극장, 국도예술관, 가톨릭센터 등 인근의 다양한 문화공간과 연계하여 문화거리 조성에 앞장서 나간다는 생각이다.

광복로로 터전을 옮긴후 이전개관 기념공연 '생과부 위자료 청구소송', 옴니버스극 '오색삼화' 등을 무대에 올렸던 극단 새벽은 오는 9월 7일부터 천성산 도롱뇽이 인간이라는 가정 하에 우화적인 기법과 사실적 상황을 교차시켜 환경과괴 이면에 드리운 개발논리를 고발한 환경극 연희극 '그리하여 그들은...'으로 시민과 다시 만난다.

■문의 : 소극장 실천무대(245-5919)



동시로 어린이들의 동심을 지켜주는 동시 읽는 어머니모임 부산지부



아름다운 동시 읽기를 통해 아이들과 교감을 나누는 동시 읽는 어머니모임 부산지부.

자극적인 게임문화에 익숙한 요즘 어린이들이 자칫 잃어버기 쉬운 동심(童心)을 지켜주기 위해 모인 어머니들. 바로 아름다운 동시(童詩) 읽기를 통해 아이들과 교감을 나누는 ‘동시 읽는 어머니 모임’ 회원들이다.

우리나라 유일의 동시문학단체인 한국 동시문학회가 운영하는 ‘동시읽는 어머니모임’은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등 전국 13곳에서 모임을 갖고 동시사랑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2004년 7월에는 동시인 공재동 씨와 박지현 씨가 주축이 되어 ‘동시읽는 어머니모임’ 부산지부가 탄생됐다.

현재 동시읽는 어머니모임 부산지부에는 부산지부장인 공재동씨와 박지현, 김향자, 김송필, 조영희, 정영선, 한경숙, 임현옥, 성인순, 박경애씨 등 30대에서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동시 읽는 어머니모임은 두달에 한번 정기모임을 통해 좋은 동시를 선정, 낭송후 회원들의 감상과 토론으로 진행된다. 동시인 공재동 씨와 박지현 씨가 회원으로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동시 창작수업까지 받을 수 있어 동시작가로의 등단을 꿈꾸는 회원도 있다.

“콘크리트 문화에 익숙한 어린이들은 무엇보다 정서가 메마르기 쉬운데 아름다운 동시를 읽어줌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된다”는 총무 김송필 씨. 1991년 색동어머니회 동화구연교실에 다니면서 구연동화와 먼저 인연을 맺은 그는 색동어머니회 회원으로 공재동 시인과 인연을 맺으면서 ‘동시읽는 어머니모임’의 산파역할을 맡았다.

실버벨노인복지관, 영진복지관에서 실버동화구연반, 연극반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두달에 한번 열리는 정기모임은 좋은 동시를 선정, 낭송후 회원들의 감상과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송필 씨는 강의를 듣는 어르신에게 동시읽기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구수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동시를 읽어준다면 그보다 좋을 수 없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지난해 가입한 회원 한경숙 씨는 10살난 아들 동우를 두고 있다. 색동어머니회 회원이자 극단 아이마당 단원인 한경숙 씨는 김송필 씨와의 인연으로 '동시 읽는 어머니모임' 부산지부에 가입했다. 동화구연강사이기도 한 그는 평소 아이들이 동시와 쉽게 친해질 수 있도록 동화를 구연하듯 동시를 읽어준다.

'동시읽는 어머니모임' 부산지부에서 가장 열성회원이기도 한 임현옥씨는 동시를 읽으면 자신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같아 정기모임만큼은 빠지지 않는다. 아동문학가인 공재동, 박지현씨로부터 작품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어 감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는 모임에서 들은 동시는 그날 아이들에게 꼭 들려준다.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맑고 소박한 모임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회원 김수향 씨. 동시를 읽고 즐기는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직접 동시를 짓고싶다는 그는 앞으로 동시인으로 등단하는게 꿈이다.

동시 읽는 어머니모임 부산지부는 그동안 회원들이 마음놓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없어 활동에 불편을 겪어 오다 지난 6월 극단 아이마당 대표로 있는 총무 김송필 씨가 극단 사무실을 중앙동에 마련하면서 작은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다. 김송필씨는 새 터전이 생기면서 앞으로 모임이 보다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읽는 어머니모임 부산지부는 앞으로 동시 감상모임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엄마랑 아이랑 함께하는 동시낭송 및 동시짓기, 미니동시극 등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가져나갈 계획이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동시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이 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동시읽는 어머니 모임 부산지부는 특히 동시를 통해 자녀와 가까워지길 원하는 어머니들에게는 언제나 활짝 문이 열려있다.

■ 문의 : 동시 읽는 어머니모임 김송필(018-556-4170)



오카리나 입문

박종근 · 한국음악오카리나협회 회장

현대에 사는 문화인의 3대 조건 중의 하나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현대처럼 각박하고 정서가 메말라가는 이때에 오카리나의 맑고 고운 음색을 접할 수 있다면 생활의 큰 활력소가 되리라 믿는다.

어느 악기나 마찬가지로 처음에 배우려 했던 초심을 잊지 말고 연습에 임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믿는다.

오카리나의 역사

‘오카리나(Ocarina)’란 Oca(거위)와 rina(작은, 귀여운)의 합성어로 이탈리아의 부드리오(Budrio)지방의 조셉 도나티(Giuseppe Donati)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도나티로부터 3대째 되는 장인인 귀도 치사(Guido Chiesa)는 ‘오카리나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 이후 여러 장인에 의해서 오카리나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현재는 13구멍을 가진 오카리나까지 탄생하게 되었으며, 또한 13구멍을 이용한 확장음까지 내기에 이르렀다.

오카리나 입문

1. 자세

어느 악기에서나 마찬가지로 자세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다루고자 한다.

- 팔 - 특히 오른 팔은 들어서
- 발 - 어깨넓이에서 한 발을 뒤로 보낸 상태
- 눈 - 시선은 정면보다 조금 높게 처리

이 세 가지를 함으로써 연주자의 자세가 자신감있게 보인다.

2. 운지



비정상 1
힘이 들어가 뻥은 상태



비정상 2
너무 세운 상태



정상
둥글게 유지한 상태

운지는 먼저 손을 둥글게 유지한 상태에서 손목의 힘은 빼고 손가락은 힘을 실어서 운지를 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손가락을 피아노 칠 때처럼 세운 상태가 아닌 눅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가락을 눅힌 상태에서 손가락의 중앙 부분인 지문으로 운지를 해야 함을 꼭 명심해야 한다. 그리해야만 운지의 범위가 세운 것 보다 눅힌 상태가 잘 막을 수 있고 그 범위도 넓어 지게 된다.

3. 무는 방법

오카리나의 무는 방법은 입모양을 '에' 모양을 유지한 상태에서 무는 것이 좋다.

'오' 모양이나 '우' 모양으로 물게 되면 전체적인 음정이 낮아지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음색 자체도 맑은 소리가 나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오카리나 연습

1옥타브의 음계를 익혀 보자.

주의사항은 자세와 운지를 참고한 상태에서 연습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 : 막기
○ :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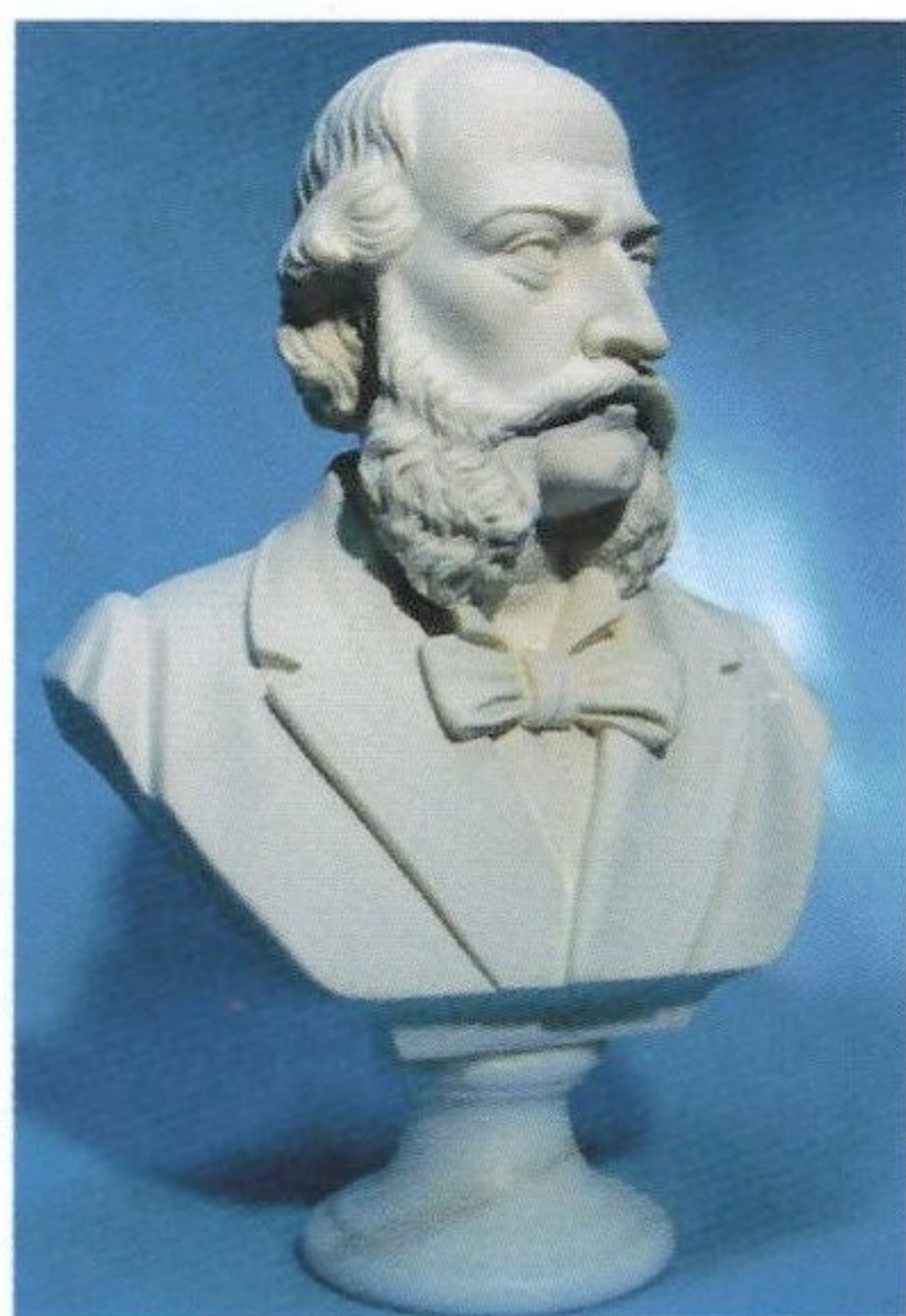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음계를 익힌 상태라면 손이 자유롭게, 정확하게 운지를 막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해 보자.

'1인 1기를 배웁시다'에서는 9월호부터 단소에 이어 오카리나 배워 보기를 시작합니다. 지상강좌를 맡은 오카리나 연주자 박종근 씨는 한국사회교육원 오카리나 원장, 동의대학교, 인제대학교 오카리나 외래교수, 글로벌 콘서바토리 오카리나 주임교수로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오카리나 창작곡으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페레타(Operetta)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오페레타 분야의 가장 성공적인 작곡가로 꼽히는 오펜바흐의 조각상.

19세기 중반 무렵까지만 해도 오페라는 상류계급의 오락이었다. 그것을 보다 서민적인 가벼운 오락으로 만든 것이 오페라의 대중판인 오페레타인 셈이다. 음악과 연극을 합친 구성이라는 점에서는 오페라와 아주 흡사하지만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줄거리, 구어체 대사와 더불어 화려한 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페라와 구별된다.

오페레타의 기원은 부분적으로 16~18세기 이탈리아에서 유행했던 코메디아 델라르테나 프랑스의 보드빌 같은 대중적 극장양식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오페레타라는 용어는 19세기에 풍자적인 음악이 있는 연극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 분야의 가장 성공적인 작곡가로는 오펜바흐(1819~1980)가 있는데, 그의 <지옥의 오르페우스>(1858), <아름다운 엘렌>(1864)은 그리스 신화의 골격을 사용해서 당시 파리 사람들의 삶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1870년대말, 영국에서는 윌리엄 길버트와 아서 설리번이 오펜바흐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 공동으로 <군함 피나포어>, <펜잔스의 해적>, <미카도>, <이올란테> 등을 발표해서 이 장르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위치를 확립했다(길버트의 대본과 설리번의 작곡에 의한 이 작품들은 사보이 오페라라고 불렸음).

1870년경, 요한 스트라우스 2세는 보다 더 낭만적이고 멜로디를 강조한 오페레타를 썼는데, <박쥐>를 비롯한 일련의 그의 작품들은 오페라와 오페레타와의 차이점들을 좁혔다는 평가를 들었다. 19세기말 프랑스의 오페레타도 온화한 빈 오페레타의 영향을 받아 풍자적 성격보다는 감상적인 쪽으로 기울었고 특히 패러디적인 신랄함보다는 우아함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런가하면 프란츠 레하르(1870~1948, 헝가리 출생), 레오 팔(1873~1925, 보헤미아 출생) 같은 요한 스트라우스를 계승한 빈의 작곡가들이나, 앙드레 메사제(1853~1929) 같은 프랑스의 작곡가들은 오페레타를 오늘날의 뮤지컬로 발전시키는 데 공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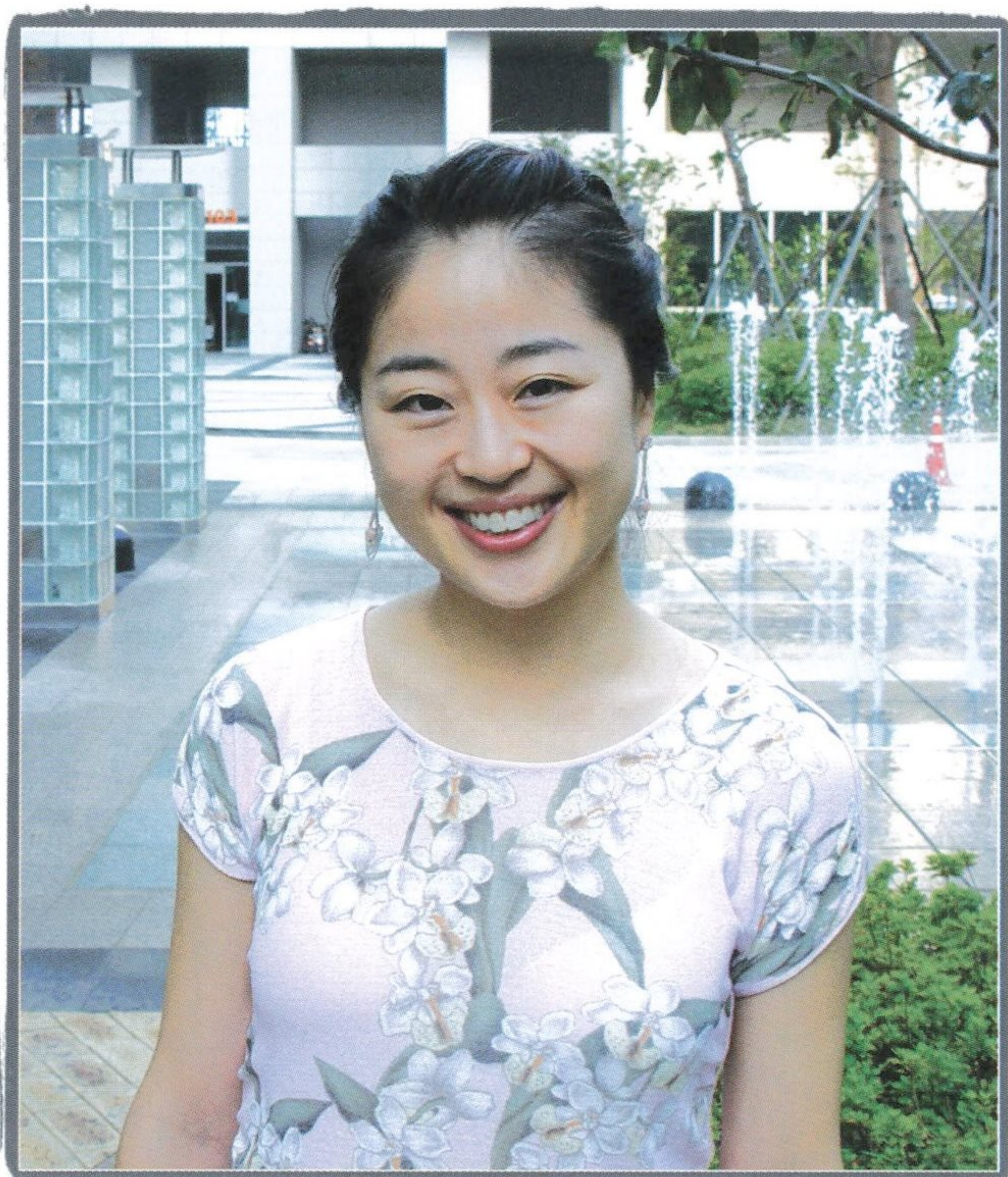
그러나 20세기 초반이 되면서부터 오페레타의 전통은 유럽에서는 현저하게 퇴조하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미국에서는 새로운 봄을 만난다. 빅터 허버트(1859~1924), 레지널드 드 코븐(1859~1920), 지크문드 롬버그(1887~1951)는 각각 <장난감 나라의 아기들>·<하이웨이맨>·<학생왕자>·<사막의 노래> 같은 작품을 작곡해서 오페레타가 미국 뮤지컬 코미디(보통 줄여서 뮤지컬이라고 부름)로 발전하게 한 중요한 전환기적 인물들이었다.

그런가하면 미국 작곡가의 작품들 가운데 거쉬윈의 <포기와 베스>(1935)나 쿠르트 바일의 <서푼짜리 오페라>(1928), 제롬 쾨의 <쇼 보트>(1927), 레너드 번스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스티븐 손다임의 <스위니 토드>(1979) 등은 뮤지컬 코미디라기보다는 본격 오페라의 축소판에 가깝다.

귀국 독주회 갖는

유망 바이올리니스트

양 경 아



“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전문연주자로 첫 신고식을 치르는 자리인 만큼 어떤 연주보다 설렘니다.”

오는 9월 12일 부산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가 11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귀국, 귀국 연주회 무대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2001년 맨하탄 음대를 졸업하고 서울 예술의전당 유망신예 독주자로 선정되어 연주를 위해 잠시 귀국해 서울과 부산 독주회를 가진 지 5년 만에 부산무대에 선다.

“한국에서는 음악 공부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디션과 연습이 전부였지만 유학 생활을 통해 재즈, 영화, 연극 등 다른 장르를 경험하게 되면서 앞서서 악보만 봤던 지난 음악수업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주위의 권유로 우연한 기회에 바

이올린을 시작한 양경아는 지금은 음악을 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 양경아는 바이올린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부산음악교육위원회 콩쿠르 대상을 시작으로 맨하탄 음악대학 실내악 콩쿠르 입상, NIMF국제콩쿠르에 2위로 입상하는 등 타고난 재능을 인정받았다. 유학 생활 중 잊을 수 없는 일은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UBS Verbier Festival Youth Orchestra 단원으로 선정되어 세계 각국에서 모인 단원들과 6주간 아시아, 유럽 투어를 가진 일이다.

“의사는 병을 고치지만 음악가는 사람의 마음을 고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대에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연주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양경아는 이번 귀국 독주회에서 맨하탄 음대 동문인 재미교포 작곡가 제임스 라의 헌정곡 ‘과랑새’를 비롯 야나체프, 크라이슬러, 생상곡을 연주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2회 정기연주회

클래식으로 듣는 가을의 소리

9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곽 승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9월 14일 전 수석지휘자 곽승 지휘로 가을을 여는 클래식 선율을 들려준다.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레스피기의 명곡으로 만나는 이번 무대는 지난해 서울시립교향악단 악장으로 국내 음악애호가들과 만나온 데니스 김이 협연자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만 30세의 나이로 오케스트라 리더, 화려한 솔로리스트, 열정적인 실내악가, 헌신적인 교사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지닌 데니스 김은 14세에 토론토 필하모닉과의 협연으로 솔로 데뷔를 한 이후 커티스 챔버 오케스트라, 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광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에 솔로로 초청었으며, 특히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는 매년 협연을 가지고 있다. 데니스 김은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입단하기 전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투손 심포니 오케스트라, PMF 동창 오케스트라, 아스펜 오페라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데니스 김

이번 무대에서 데니스 김은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61'을 들려준다. 브람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불어 3대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 한 곡으로 널리 연주되고 있는 이 곡은 완숙기에 접어든 베토벤 특유의 아름다움과 고고한 품위, 장대함 등이 잘 표현되고 있다. 베토벤은 이 곡에 카덴차를 넣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요아힘, 아우어, 크라이슬러 등이 카덴차를 넣은 작품이 일반적으로 연주된다.

2부에서는 브람스의 '대학축전 서곡'과 레스피기의 '로마의 소나무'를 들려준다. 브람스 '대학축전 서곡 다단조 작품 80'은 1881년 1월 4일 브레슬라우 대학에서 브람스 자신의 지휘로 성대하게 초연된 곡으로, 브람스가 직접 구상한 테마와 더불어 당시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던 학생가 등 총 4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현악의 시인'이라 불리는 레스피기가 작곡한 교향시 '로마의 소나무' 작품 141은 1913년 산타 세칠리아 음악원 교수로 로마에 이주하면서 작곡한 연작 중 한곡이다. 곡은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로마의 유서 깊은 소나무 네 그루를 소재로 고대 로마의 향수와 환상을 그리고 있다.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3개시도 시립무용단 춤 교류전 울산, 창원시립무용단 초청 부산공연

9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시립무용단이 한 자리에 모여 그 지역만의 특성과 개성이 담긴 독특한 춤사위를 선보이는 3개시도 시립무용단 춤 교류전 '울산, 창원시립무용단 초청 부산공연'이 오는 9월 2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무용단, 울산시립무용단, 창원시립무용단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울산시립무용단과 창원시립무용단의 부산공연에 이어, 울산과 창원에서 교류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1부에서는 울산시립무용단의 창작무용 '수련-물 밑에서 핀 꽃'이 무대에 오른다. 울산시립무용단 상임안무자 원필녀의 안무로 선보이는 '수련-물 밑에서 핀 꽃'은 큰무당 모화의 피를 이어받은 딸 유화와 곁에 있지만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상두 등 한 가족의 가족사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이 자신만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진정한 화해와 소통으로 나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전체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12월 창단된 울산시립무용단은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연주단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우리의 전통춤을 재구성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차례의 연주회를 비롯 기획공연,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등 연간 30여회 공연으로 시민과 만나고 있는 울산시립무용단은 특히 다양한 계층의 관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무대로 울산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2부 무대인 창원시립무용단의 '꿈-Heaven, Hell'은 창원시립무용단 상임안무자 김평호의 안무로, 주체가 상실된 인간의 모습에서 꿈처럼 꿈틀거리는 '선(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살고있는 도시를 디자인하고자 하는 인간의 또다른 욕망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등 전체 6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7년 경남지역 유일의 시립무용단으로 창단된 창원시립무용단은 특히 한·일 친선공연, 헝가리 국제민속무용축제, 스페인 국제무용제, 중국 곤명 국제문화관광 개막식, 싱가포르 칭계이 페스티벌 등 해외공연을 통해 우리의 전통무용 및 창작무용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오고 있다.



원필녀



김평호

- 입장료 : 균일 5,000원(단체 관람시 단체할인 문의 바랍니다.)
-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극단 제 27회 정기공연

고래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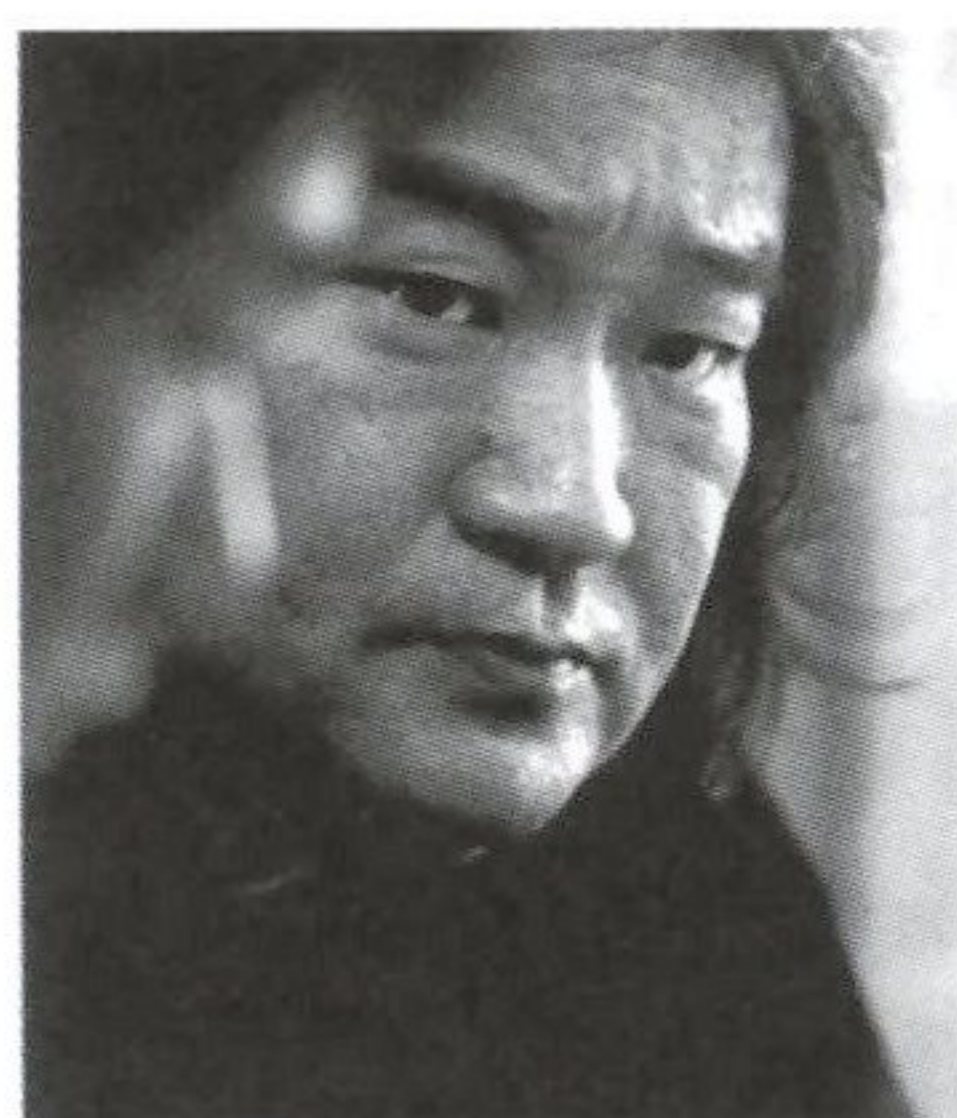
9월 21일(목)-9월 24일(일) 목-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손기룡

부산시립극단이 일본 동경의 킨가도 극단과 함께 제작한 한·일 합동공연 '고래섬'이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극단 창단 후 해외 극단과는 처음 갖는 합동공연으로, 제작에서부터 화제를 낳았던 '고래섬'은 서울공연예술제 희곡상, 김상열연극상 등을 수상한 극작가 흥원기가 극본을 쓰고 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가 손기룡, 동경 킨가도극단 연출가 시나가와 요시마사가 공동연출을 맡아 제작된 작품이다.



시나가와 요시마사

연기자와 연출가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극작가 흥원기는 1989년 희곡 '아스팔트'로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1992년 희곡 '천마도'로 삼성문예상에 당선되었다. 대표작으로 서울공연예술제 희곡상, 김상열연극상을 수상한 '에비대왕'을 비롯 '굴비는 맛이 좋다' '온달바람' '장군각시' '썰물단군' '고구려 부르스' 등이 있다.

이번 한·일 합동공연을 위해 쓰여진 '고래섬'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과 재생'을 테마로 인간 이상으로 모자간의 끈끈한 연결고리를 갖고있는 고래를 인간에 투영시킨 작품이다. 최소한의 언어와 노래, 음악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언어를 초월한 음악극으로, 자막과 나레이션이 극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



한재권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부산시립극단, 동경 킨가도극단 단원과 스태프 외에도 영화 '실미도' '국경의 남쪽' '한반도'의 음악을 맡은 한재권 음악감독을 비롯 TV드라마 '대장금' 주제가 '오나라'를 부른 가수 이안,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 나자명 등이 가세,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시립극단과 함께 합동공연을 마련한 일본 동경의 킨가도극단은 지난 199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프로듀스 형식의 연극기획집단으로, 사회적인 테마를 중심으로 한 원대한 스토리로 인간의 이성과 광기의 사이를 미묘한 균형감각으로 그려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1년에는 극단 대표이자 연출가인 시나가와 요시마사가 일본극단 스바루, 한국극단 미추의 공동제작극인 '히바카리-400년의 초상' 희곡을 맡아 제 46회 키시다 희곡상 최종후보로 노미네이트 되어 '한·일 연극 문화교류에 희망을 안겨준 작품'이라는 평가를 얻기도 했다. 이밖에도 미·일 우호 150주년을 기념, 대표작 'KAZUKI~ 여기는 나의 지구'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공연되어 뉴욕타임즈와 LA타임즈로부터 호평받기도

했다.

작살잡이 젊은 구포수는 어미고래 뱃속에서 나온 새끼고래를 죽이고 그것을 만류하던 아내는 폭풍우치던 밤 파도에 휩쓸려 죽는다. 고래의 저주가 딸인 해미에게 미칠까봐 딸을 데리고 포구를 떠난 구포수는 딸의 행복을 위해 친구에게 양딸로 보내지만 가난 때문에 해미는 건설업자 야끼와 반강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 히데오를 낳고는 사라진다. 야끼가 감옥에 간 사이 바다건너온 해미는 직업군인인 봉과 만나 딸 미연을 낳고, 무당으로부터 자신의 업보를 알게되면서 그 업보가 딸에게 미칠 것을 걱정해 다시 바다로 사라진다.

히데오는 아버지가 엄마를 버렸다고 생각하여 반항아로 자라게 되고, 어려서 떠난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여자들을 증오하며, 봉은 딸 연이를 홀로 키우다 퇴역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만 망하게 되면서 마지막 희망의 땅인 섬으로 찾아오게 된다.



이 안



나자명

- 작/홍원기
- 연출/손기룡, 시나가와 요시마사
- 번역, 드라마트루기/마정희
- 음악감독/한재권
- 출연/이돈희, 염지선, 이혁우, 김은희, 유성주(부산시립극단 단원),
이나가키 쇼죠, 하나부사 토오루, 유다 사치코, 요시다 나오코,
타지마 손나(일본 동경 김가도극단), 이안(가수·객원출연),
나자명(극단 레드볼 대표·객원출연)

부산시립극단, 동경 김가도극단이 함께 제작한 한·일 합동공연 '고래섬'은 부산공연에 이어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서울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서울공연을 갖는다.

이어 10월부터는 동경 키노쿠니야홀을 시작으로 우베시 와타나베 기념회관(야마구치현 우베시), 야마구치 시민회관 대극장(야마구치시), 시모노세키 시민회관 대극장(이와쿠니시), 텐진엘가라홀(후쿠오카시) 등에서 일본 순회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 일본공연 일정

- 10월 19일(목)-25일(목) 키노쿠니야 홀
- 10월 29일(일) 우베시 와타나베 기념회관
- 10월 30일(월) 야마구치 시민회관 대극장
- 11월 1일(수) 시모노세키 시민회관 대극장
- 11월 2일(목) 텐진엘가라홀

■ 입장료 :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극단(607-613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제 4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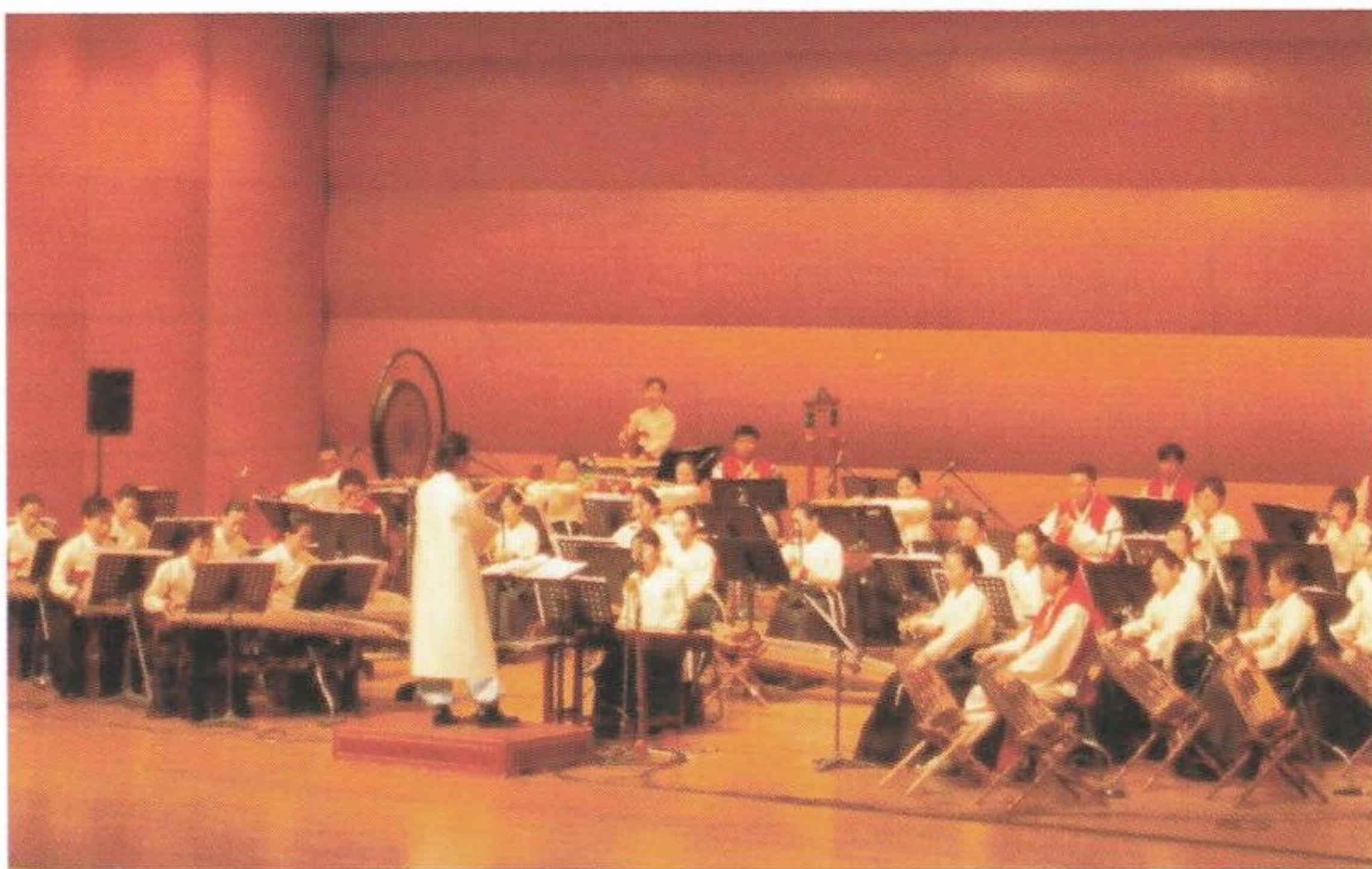
9월 27일-29일 수-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창작국악관현악의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개최해온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2006 4번째 무대가 9월 27일부터 3일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경기도를 대표한 안산시립국악단, 전라도를 대표한 전주시립국악단, 경상도를 대표한 진주시립전통예술단이 참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각 시도별 국악단체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창작곡들로 흥겨운 국악축제를 연다.

27일 첫 무대는 진주시립전통예술단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연다. 1989년 진주시립국악단으로 창단하여 2001년 경남유일의 관현악단 형태의 전통예술단으로 새롭게 창단,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진주시립전통예술단은 상임지휘자 이정필의 지휘로 첫 부산연주회를 갖는다. 2004년부터 진주전통예술단을 지휘하고 있는 이정필은 그동안 젊고 활기찬 국악, 실험적이며 창의적인 국악관현악으로 관객들에게 보다 친근한 음악을 선보여 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창작관소리 '논개', 25현 가야금(고쟁)을 위한 국악관현악 협주곡 '절영의 전설', 적자(소금) 협주곡 '길', 국악관현악 '비상(飛上)'을 연주한다. 변영로의 시 '논개'를 관현악 반주로 노래하는 창작관소리 '논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박성희가, 힘찬 절영의 소리를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에 얹힌 25현 가야금(고쟁)을 위한 국악관현악 협주곡 '절영의 전설'은 중국 광파민족악단 솔리스트 주전이, 우리 악기 중 가장 높은 음역을 가진 소금을 위한 적자(소금) 협주곡 '길'은 광파민족악단 수석단원 후장청이 들려준다.

28일은 안산시립국악단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함께 무대를 연다. 중앙대학교 김재영 교수가 이끄는 안산시립국악단은 1996년 10월 창단된 이래 우리 음악의 근원인 민요를 바탕으로 대중적 예술성을 창출해 왔으며 국악교실과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와 관악, 현악, 성악 등의 장르를 주제로 하는 '정기연주회' 및 기타 크고 작은 기획 연주회 등 연간 50여회의 연주회를 통해 지역기반을 넓혀나가고 있다.



진주시립전통예술단



안산시립국악단



전주시립국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이번 무대에서는 관현악 '아리랑', 영상 및 무용과 함께하는 북한음악 '새봄과 종달이', '키춤(물동이춤)', 관현악 '모리화',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피가로의 아리아' 등 부산 무대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영상 및 무용과 함께하는 북한음악, 중국 창작곡, 오페라를 들려준다.

민요 아리랑을 환상곡풍으로 만든 최성환 곡 관현악 '아리랑'은 1978년 도쿄교향악단이 일본에서 초연 무대를 가진 후 1992년 미국 카네기 홀에서 연주된 바 있다. 영상과 무용이 함께하는 북한음악 '새봄과 종달이'는 북한가요인 '새봄'과 '종다리'를 소재로 농촌의 약동하는 봄 정경을 생동감 있게 노래한 곡으로, 국악기와 더불어 실제 북한에서 연주되는 악기를 함께 사용하여 더욱 풍부한 연주를 들려준다. 우리나라 최고의 춤꾼 최승희의 작품인 '키춤(물동이춤)'은 마을 처녀들이 샘가에서 물동이에 물을 길러 머리에 이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유문금(劉文金)의 창작곡인 관현악 '모리화'는 중국 강소성과 하북성 지방의 민요를 주제로 한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곡이다. 그 외 국악관현악과 어우러진 오페라 아리아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 우승후 한국 남자 성악가로는 최초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 데뷔한 바리톤 서정학이 협연한다.

29일은 전주시립국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함께 무대를 갖는다. 신용문이 지휘하는 전주시립국악단은 1979년 민속예술단으로 기악, 성악, 무용, 농악부분을 비상임으로 출발, 1999년 민속예술단을 국악 단으로 개칭하였다. 전주시립국악단은 2002년 故 최명희 작 '혼불'을 대서사 음악극으로 작곡하여 2002전주월드컵과 세계소리축제 기간 6회의 공연을 실시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삼곤 작 국악칸타타 대서사 음악극 '어머니'를 부산 초연한다. 전체 3막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일본의 압박과 해방, 전쟁, 4·19를 거치면서 한 많은 삶을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일생을 국악음악극으로 만들었다. 딸이 시집가던 날, 어머니는 한평생 간직해왔던 이야기를 딸에게 들려주며 오열한다. 딸의 결혼생활에서의 희비를 함께 하면서도, 신세를 질 수 없다며 딸의 보살핌을 끝까지 거절하는 어머니. 그녀는 이미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어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매일 2부 무대에서 창작, 위촉곡들을 초연한다.

- 입장료 : 균일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회원카드로 관람가능합니다. 일반 50명 이상 단체 4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대극장

2006 Bora Gene Jazz Concert

Dream of the Violet

3일 일요일 오후 6:00



2002년 9월 만 14세의 나이로 서울 재즈 아카데미 재즈 피아노과(11기)를 졸업한 후 재즈 피아니스트의 길을 걷고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 진보

라 부산연주회.

2001년 한전 아트홀 센터 콩쿠르에서 재즈 피아노 부분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진보라는 크고 작은 재즈 무대와 TV 방송 및 주요 지면을 통해 그 실력을 선보이고 있는 당찬 십대 재즈 연주자이다.

프로그램

진보라/My Style Is Violet, Two Of Us.(The First Date), 흑백사진 (=追憶), 사막의 폭풍, Go Go Gadget !!

진보라(편곡)/도라지+뱃노래

Charlie Parker/My Little Suede Shoes

Diana/Stop This World 등 수곡

입장료 R석 35,000원 · S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원스테이지(1588-0881)

2006 대학무용제

6일-7일 수-목요일 오후 7:30

부산 지역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열정 넘치는 춤의 향연이 될 2006년 대학무용제.

올해는 부산여자대학의 사회무용 '나의 조국을 사랑합니다'를 시작으로 총 10개팀이 다양한 창작춤을 선보인다.

작품

■ 6일(수)

· 부산여자대학 사회무용 '나의 조국을 사랑합니다'(안무/정경숙, 김순경 · 지도/정주영 · 출연/김지은, 박혜정, 심희은, 최은

녕, 김민선, 김연진, 박미림, 손지현 외)
· 신라대학교 현대무용 '흔들리는 마음'(안무/하정애 · 음악/추교일, 박찬민 · 출연/강용기, 윤도영, 이선영, 장보라 외)
· 부산대학교 발레 '그래도(Even So)'(안무/주수광 · 출연/김영지, 이성희, 김주목, 공문정, 윤은정, 전영랑, 박종위 외)
· 동아대학교 현대무용 '전쟁과 천연의 숲'(안무/장정윤 · 작곡/박철홍 · 출연/김현정, 강단애, 김현희, 곽선영, 박은진 외)
· 경성대학교 현대무용 '안으로, 밖으로'(안무/한은주 · 출연/김종헌, 김미라, 박선희, 박상희, 이은주, 임혜주, 진영주 외)

■ 7일(목)

· 부산대학교 현대무용 '놀이(Play - VII)'(안무/박은화 · 출연/여상희, 오새롬, 김현화, 김미리, 조현배, 최효정 외)
· 부산예술대학 현대무용 '220Km/h'(안무/김희은 · 출연/하정오, 오승택, 최정화, 선정찬, 이상엽, 류동현, 이재형 외)
· 경성대학교 한국무용 '流 흐르다....'(안무/최은희 · 출연/김민경, 장영진, 김영찬, 김민아, 김경혜, 김연경, 박수정 외)
· 부산대학교 발레 '2006 Autumn Variation'(안무/민병수 · 출연/이유리, 황라정, 신소라, 성주영, 김인혜 외)
· 신라대학교 사회무용 'My Way'(안무/루치아노브 비탈리 · 재구성/김정순 · 출연/김민경, 김수영, 배민정, 김현미 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부산대학무용진흥회(200-7822)

뮤지컬 I LOVE YOU

9일-10일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



2005년 최다 관객 동원 기록을 세운 뮤지컬 'I LOVE YOU' 부산 무대.

뮤지컬 I LOVE YOU는 대형 뮤지컬로만 치중되는 한국 뮤지컬 시장에 소극장 뮤지컬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작품으로 2005 한국뮤지컬대상 베스트외국뮤지컬상, 연출상(한진섭)을 수상했다.

'아이 러브 유'는 남녀가 만나는 일에서부터 연애와 사랑, 결혼 그리고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일들과 섹스, 육아, 가족, 노년기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옴니버스 형태로 진행된다.

· 출연/남경주, 양꽃님, 정상훈, 백주희
입장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10% 할인)

문의 레드슬리퍼(622-3496)

제 16회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아리아와 이중창의 밤

11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대학교 김문희 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아미티에 성악연구회의 제 16회 정기연주회.

마스카니 오페라 '내 친구 프란츠'를 부산 초연하는 등 다양한 무대 활동을 해온 아미티에는 이번 무대에서 오페라 아리아와 이중창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오 떨지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베르디/축배의 노래

푸치니/그대의 찬송 등 수곡

· 출연/소프라노 박민경, 장은영, 조혜령, 서정아, 양성희, 김경희, 김양자, 테너 양승엽, 엄현섭, 김성현, 김철수, 정종철, 바리톤 조현수, 하병욱

· 피아노/이경미, 이현주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정종철(016-898-2442)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22회 정기연주회

클래식으로 듣는 가을의 소리

14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립교향악단 전 수석지휘자 곽승과 서울시립교향악단 악장 데니스 김과 함께 하



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2회 정기연주회.
 지난해 서울시립교향악단 악장으로 국내
 음악애호가들과 만나온 데니스 김이 협연한
 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 '극장 지배인' 서곡 작품 486
- 베토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61
- 브람스/대학축전 서곡 다단조 작품 80
- 레스피기/교향시 '로마의 소나무' 작품 141
- 지휘/곽승
- 협연/데니스 김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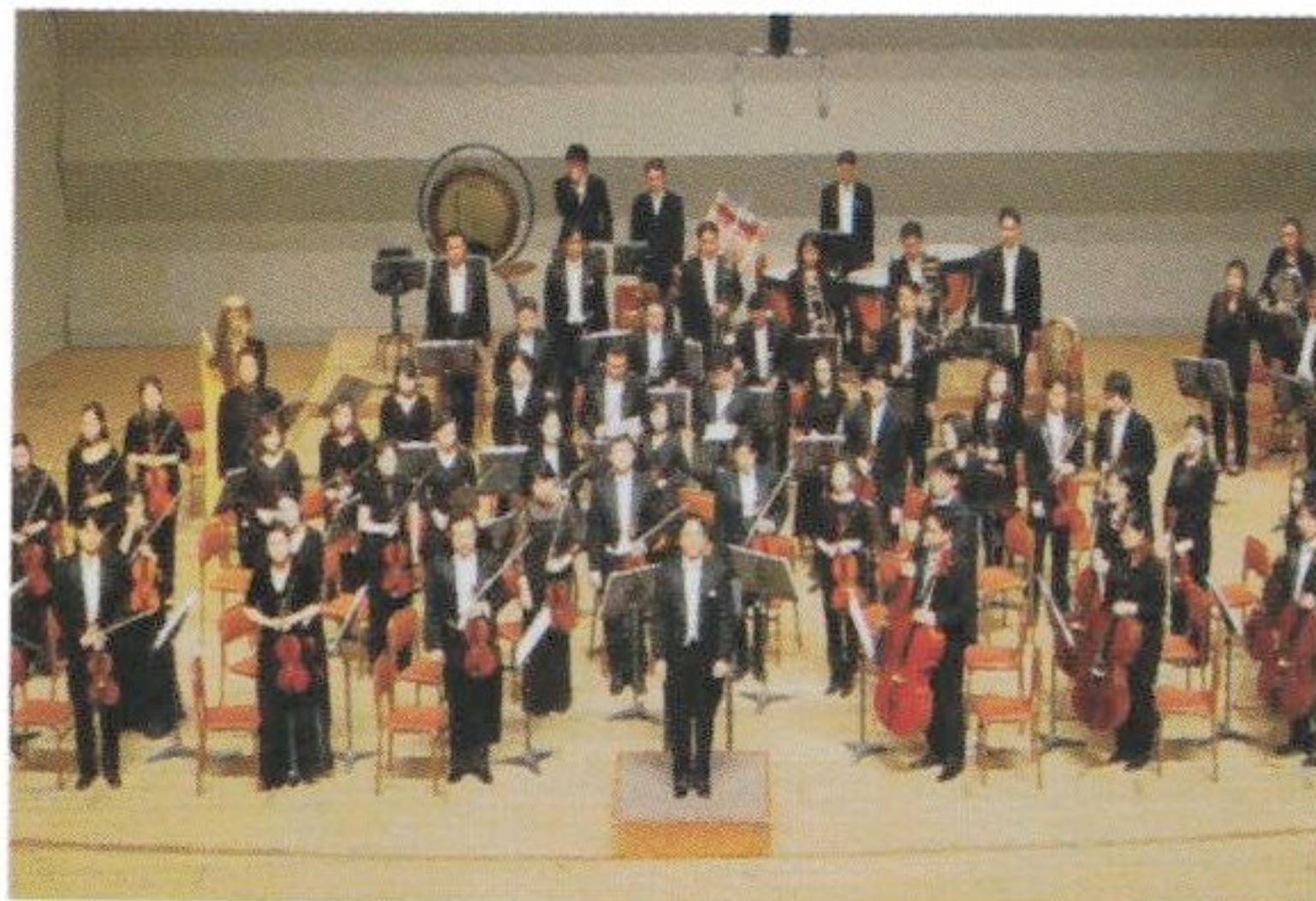
2006 부산예술제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무대
가곡과 아리아의 밤

15일 **금요일** 오후 7:30

2006년 부산예술제를 기념, 부산의 음악
 인들이 함께 들려주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

프로그램

- 베르디/서곡 '운명의 힘'
- 롯시니/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모
 락의 노래'



베르디/오페라 '춘희' 중 2중창 '축배의 노
 래', 오페라 '돈카를로' 중 '베일의
 노래'

장원상/가고파

보로딘/타타르인의 춤 등 수곡

- 출연/베이스 권영준, 소프라노 박은미, 소
 프라노 김경희, 테너 김지호, 테너
 장원상, 바리톤 이득수, 테너 강학
 윤, 소프라노 변향숙, 바리톤 안상
 철,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소프라노
 장은녕, 테너 정거화, 메조소프라노
 정옥심, 바리톤 고영호, 테너 김철수
- 관현악/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박성완)

입장료 초대

문의 음악협회 부산지회(634-1295)

2006 한국가곡 대축제

16일 **토요일** 오후 7:30

9월 7일 대단원의 막이 오르는 제 3회 한
 국가곡 대축제 부산공연.

80여년 한국가곡사를 총 정리하는 2006
 한국가곡대축제 부산무대는 소프라노 이화
 영, 김유섬, 메조소프라노 이현정, 김선정,
 테너 박세원, 강무림, 바리톤 우주호, 고영
 호, 베이스 김요한이 출연, 그동안 국민들에
 게 사랑받고 있는 애창가곡들을 들려준다.



김유섬

이현정

김선정



박세원

강무림

김요한

프로그램

-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 이수인/내맘의 강물
- 임금수/강건너 봄이 오듯이
- 김동진/진달래꽃
- 임원식/아무도 모르라고
- 김성태/이별의 노래 등 수곡
- 오케스트라/창원시립교향악단(지휘/장윤
 성)
- 특별출연/테너 안형일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문의 (사)한국가곡문화예술협회 부산지부
 (624-0375, 017-540-6641)

2006 부산예술제
제 29회 무용예술제

18일 **월요일** 오후 7:30

2006 부산예술제를 기념해 무용협회 부
 산지회 회원들의 작품을 공모, 한국무용, 발
 레, 현대무용을 선보인다.



통합 마케팅 시대의 뉴 브레인! 포애드

광고기획, TV/RADIO 광고제작 및 대행, 신문/전단/카다록 인쇄광고 제작, 기업CIP/BIP,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광고 마케팅 기획

[주]포애드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2층
 TEL : 051) 627-2563(대) FAX : 051) 627-2560

작품

- 정미숙무용단 '태평무(한영숙류)' '입춤(이매방류)' (구성/정미숙 · 출연/정미숙, 하연화, 손미란, 이현정, 박수정, 김영혜, 김경아)
- 광선영 현대무용단 '선택(나는 쓰러지는 어떤 것이다)' (안무/광선영 · 출연/안희경, 서은욱, 김종현, 강수빈, 최우석, 임혜주, 박상희, 박선희)
- 정신혜무용단 '살풀이' (구성/정신혜 · 출연/윤정미, 구성심, 박혜경, 류선화, 이순지)
- 메트로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1막중 'pas de six(여섯 요정의 춤)' (안무/마리우스 프티바 · 재안무/김희옥 · 출연/박설희, 서유미, 박정윤, 김숙진, 윤세희, 하보화)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문의 무용협회 부산지회(632-5116)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3개시도 시립무용단 춤 교류전

울산, 창원시립무용단 초청 부산공연

20일 수요일 오후 7:30



울산시립무용단 수련-물 밑에 핀 꽃

부산, 경남에서 각각의 독특한 색으로 찬사를 받으며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부산, 울산, 창원시립무용단이 춤으로 한자리에서 만나는 3개 시도립예술단 교류 무대.

2006년 첫 교류무대로 울산과 창원시립무용단을 초청, 1부에서는 울산시립무용단 '수련-물 밑에서 핀 꽃', 2부에서는 창원시립무용단 '꿈-heaven, hell'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울산시립무용단 '수련-물 밑에서 핀 꽃'(안무/원필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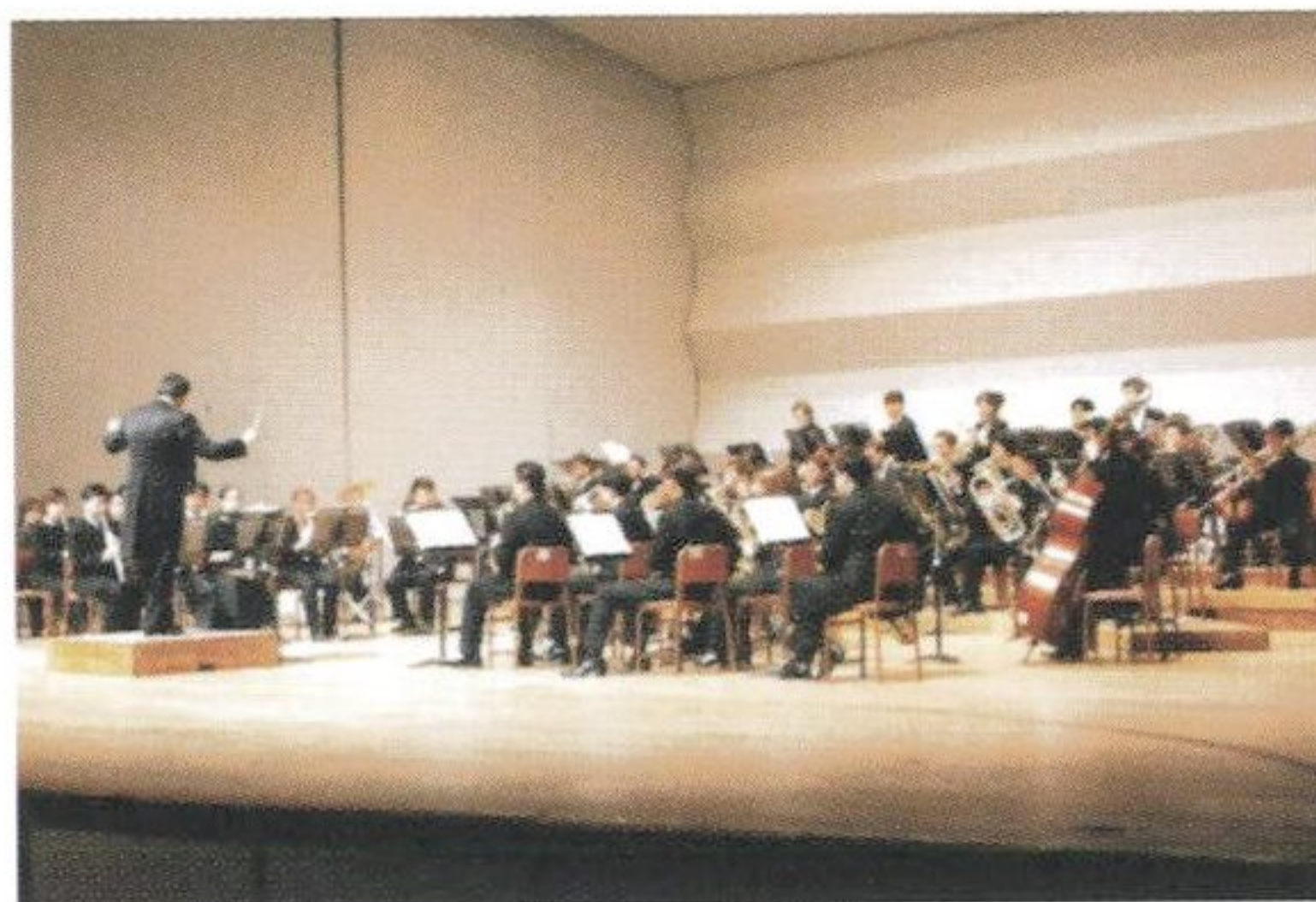
창원시립무용단 꿈-heaven, hell(안무/김평호)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부산원드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기념 장애인과 함께 하는 음악회

21일 목요일 오후 6:00



1996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마산시립교향악단, 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들로 창단된 이래 부산 유일 프로 관악합주단으로 폭 넓은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원드오케스트라가 창단 10주년을 기념 음악회.

이번 무대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연주하고 음악회의 수익금을 장애인 단체에 전달한다.

프로그램

라벤더/French National March
번스타인/West Side Story Medley
장애인과 함께/당신은 사랑 받기위해 태어난 사람 등 수곡

· 지휘/백진현(신라대학교 교수, 마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 협연/박미경(소프라노), 장은익(바리톤)

· 합창/장애인 연합회

입장료 균일 10,000원(오후 6:00~8:00 사랑의 국수 & 분제전시 및 판매, 오후 8:00 음악회)

문의 부산원드오케스트라(932-6817, 011-582-8480)

부산가톨릭합창단 제 27회 정기연주회

24일 일요일 오후 7:30

천주교 부산교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로 전하고 있는 부산가톨릭합창단의 제 27회 정기연주회.

부산가톨릭합창단은 2002년 부산세계합창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무반주 종교음악부문)과 2004년 탐라전국합창축제 대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았다.

프로그램

최유정/천사의 양식

아일랜드민요/대니보이

하이든/테레지아 미사 등 수곡

· 지휘/이성훈

· 반주/박유미, 소년의 집오케스트라

· 소프라노/신정순 · 오프/강연희

· 테너/장진규 · 베이스/조현수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손태영(010-3919-2580)

러시아 타타르스탄 국립 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

25일 월요일 오후 7:30

요즘 러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중의 하나로 꼽히는 타타르스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차이코프스키 등 여러 음악제에서 그들의 헌정 작품을 연주하며, 세계 순회연주를 통해 러시아를 대표하는 악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프로그램

롯시니/윌리엄 텔 서곡

기가노브/타타르스탄 주제에 의한 모음곡

차이코프스키/백조의 호수 조곡

· 지휘/노태철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A석에 한해 학생 50% 할인)

문의 빈 예술기획(010-856-0816)

제4회 부산전국창작국악 관현악축제 2006

27일-29일 수-금요일 오후 7:30

창작국악관현악의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개최해온 부산전국창작관현악축제 4번

째 무대.

올해는 경기도를 대표한 안산시립국악단, 전라도를 대표한 전주시립국악단, 경상도를 대표한 진주시립전통예술단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각 시도별 국악단체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창작곡들로 흥겨운 국악축제를 연다.

■ 27일(수) 오후 7:30

프로그램

백성기/창작판소리 '논개'
강봉천/25현 가야금(고쟁)을 위한 국악관현악 협주곡 '절영의 전설'
이준호/적자(소금) 협주곡 '길'
이지영/국악관현악 '비상(飛上) 등 수곡
· 연주/1부 진주시립전통예술단(지휘/이정필)
2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지휘/박호성)

■ 28일(목) 오후 7:30

프로그램

최성환/관현악 '아리랑'
영상 및 무용과 함께하는 북한음악/새봄과 종달이, 키춤(물동이춤)
유금문/관현악 '모리화'
박위철(편곡)/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피가로의 아리아' 등 수곡
· 연주/1부 안산시립국악단(지휘/김재영)
2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지휘/박호성)

■ 29일(금) 오후 7:30

프로그램

국악칸타타 대서사음악극 '어머니'-뿌리없는 나무가 어디 있으랴, 누굴 위한 해방일까 더 이상 죽이지마라, 모두 떠나도 난 여기 남으리 등 수곡
· 연주/1부 전주시립국악단(지휘/신용문)

2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지휘/박호성)

입장료 균일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카드로 예약관람, 50명 이상 단체 4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18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하는 우정만들기

30일 토요일 오후 5:00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음악으로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초청,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며 마련하는 우정만들기 무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합창단으로 전라도지역의 어린이합창을 이끌어 가는 해맑은 선율을 자랑하고 있다.

프로그램

이현철/산유화
허결재/꽃타령

박정규/사랑의 노래 '환상의 태양' '봄의 동경' '사랑의 노래' '거리의 악사'
모차르트 모음/아! 음악이여, 오페라 '돈조반니' 중 '손을 마주 잡고', 오페라 '마적' 중 '빠빠게노와 빠빠게나'

박봉렬/오륙도 등 수곡

· 지휘/배정행(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자(합창)
· 특별출연/김정아(피아노)
· 특별출연/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박호진)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중극장

김미란 무용단 Dance Theater 集 진흙

1일 금요일 오후 7:30



2003년 새로운 창작을 시도하기 위해 춤, 미술, 음악, 연극 전공자들이 뜻을 모은 김미란 무용단 2006년 무대 '진흙'.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이르는

문우당서점의 특별한 혜택!

문우당서점 회원카드로 문우당과 CGV(영화)에서 사용! 도서구입시 5%적립 CGV 10%적립 및 특정요일 할인

가마골소극장 할인! 문우당 영수증제시로 수요일은 문우당의 날로 50%할인 화·목·금요일 20%할인(일부대관공연 제외)

문우당창립 51주년 기념 1년간 책구매시마다 사은품 증정 부산교통수첩(버스노선 외), 세계명언집(수첩형)

세계최초제작 > 국제화 입체세계지도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광안리 미월드 자유이용권 할인매장

책과 지도의 백화점 전국최고의 종합지도와 지구본 대형매장(대형코팅 전문)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충별 : 만남과 휴식공간 (커피·코코아 각 100원)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wdangbook.com

남포동 자갈치 중앙아치탑 앞 각종 공연 예매처
Tel: 245-3843

여성연극 운동기간에 활발하게 참여한 작가 마리아 아이린 포네즈 '진흙'을 현대의 여성상에 맞춰 재해석, 춤과 연극,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총체예술작품으로 무대에 올린다.

- 연출/백철호 · 안무/김미란
- 음악/이세호 · 의상/안정숙
- 출연/박호천, 진선미, 이혁우(이상 연극배우), 권봉정, 전해련, 한종철, 박섯별, 윤은하, 이현주(이상 무용수)
- 음악 연주/이세호, 최윤희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김미란(017-570-3971)

예원회 네번째 피아노 이야기 가족과 함께 하는 이지 클래식

2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대학교 안원희 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예원회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피아노 소품으로 레퍼토리를 구성, 편안한 음악회를 선사한다.

- 출연/신성희, 조경희, 최옥경, 박수미, 김인재, 조선경, 정꽃님

입장료 균일 30,000원
문의 김인재(010-3626-0036)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 제 27회 정기연주회

3일 일요일 오후 6:00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은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구 부산스트링스챔버오케스트라)의 특별연주회.

프로그램

베토벤/교향곡 제 5번 '운명'

주페/시인과 농부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 21번 등 수곡

- 지휘/장진
- 협연/박현령(피아노), 제가혜(바이올린), 장초혜(첼로)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628-8088)

소프라노 공경자 독창회

4일 월요일 오후 7:30



고신대학교와 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미국 N.Y Queens Music of School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소프라노

공경자 독창회.

공경자는 부산신포니에타와 우크라이나 국립 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주님을 찬양하라

카치니/아마릴리

스트라우스/네 개의 마지막 노래 중 2곡 '9월', '잠자리에 들 때'

푸치니/오페라 '나비 부인' 중 '어느 개인 날' 등 수곡

- 특별출연/테너 우원석, 삼손중창단
- 피아노/안선애

입장료 초대
문의 공경자(017-577-4024)

팔레시드와 함께하는 서울 스트링스 콰르텟 초청음악회

5일 화요일 오후 7:30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 이경민, 비올리스트 황대진, 첼리스트 김규식이 활동하고 있는 서울 스트링스콰르텟 초청연주회.

오템목관 5중주단, 퓨전앙상블 세노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의 플루티스트 정옥경이 특별출연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플룻 4중주 라장조 K.285

쇼스타코비치/현악4중주 제 8번 다단조 작품 118

슈베르트/죽음과 소녀 제 14번 라단조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문화(633-8990)

제 31회 독우회 정기연주회

6일 수요일 오후 7:30

독일 자브뤼켄 국립음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고태욱, 독일 아헨국립음대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곽윤희,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를 졸업한 정희경, 휘백국립음대를 졸업한 엄덕희 등 독우회 회원 4인이 들려주는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Duport 주제에 의한 9개의 변주곡 라장조 KV 573, 소나타 바장조 KV.332 등 수곡

- 연주/고태욱, 곽윤희, 정희경, 엄덕희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양경아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12일 화요일 오후 8:00



맨하탄 음악대학과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한 부산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 귀국 독주회.

부산음악교육위원회 콩쿠르 대상을

시작으로 맨하탄 음악대학 실내악 콩쿠르 입상, NIMF국제콩쿠르 2위 입상으로 두각을 보인 양경아는 2001년 서울 예술의 전당 주최 유망신예 독주자로 선정되어 연주회를 가졌다.

프로그램

야나체크/바이올린 소나타

제임스 라/파랑새의 노래

생상스/바이올린 소나타 제 1번 등

- 피아노/김현정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뮤즈앙상블 제 25회 정기연주회 신낭만주의 현대음악

11일 월요일 오후 7:30



오세일

하순봉

1988년 창단, 그동안 부산의 실내악을 주도해 온 뮤즈앙상블의 25번째 무대.

이번 무대는 2000년도부터 시작한 '부산의 소리'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부산 작곡가의 창작곡을 초연하는 현대작곡가의 밤이다.

기성작곡가의 작품 2곡과 작곡학도의 작품 2곡 등 4곡의 현대음악과 현대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을 기념, 현악4중주 제 8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현악4중주 제 8번 작품 110
오세일/목관5중주를 위한 '덩어리와 조각'
(2006)

황선영/현악4중주 '색감의 영역'(2006)

문지은/피아노 3중주 No.3(2006)

하순봉/7개의 악기를 위한 '누적'(2006)

- 음악감독 겸 지휘/오충근
- 작곡/오세일(인제대학교 교수), 하순봉(신라대학교 겸임교수), 문지은(경성대학교 4년), 황선영(부산대학교 4년)
- 연주/조현선(피아노), 노경원(피아노), 임병원(바이올린), 황지원(바이올린), 최영화(비올라), 김판수(첼로), 김남

형(플룻), 노영훈(오보에), 손기영(클라리넷), 윤태준(바순), 강덕만(호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뮤즈앙상블(011-854-0500)

2006 부산예술제 부산연극협회 극단 바다와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PLAY 5 - Mankind History

15일-16일 금-토요일 오후 7:00

2006 제24회 부산연극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고 오는 10월 수원에서 열리는 제 24회 전국연극제 참가에 참가하는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PLAY 5 - Mankind History' 앵콜무대.

- 작, 연출/김지용
- 출연/엄준필, 김성훈, 김성경, 이현주, 유상훈, 강태욱, 이은주, 문지연, 이국희, 이윤희, 장민, 김혜림 외

입장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부산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연극협회(645-3759)

부산시립극단 제27회 정기공연 한, 일 합동공연

고래섬

21일-22일 목-금요일 오후 7:30
23일 토요일 오후 4:00, 7:30 24일
일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극단과 일본의 킨가도 극단이 합동 제작, 부산과 서울, 일본 동경,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등 일본 일본 5개 도시 공연

에 오르게 되는 '고래섬'.

'고래섬'은 국제간의 교류와 다변하는 공연문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공연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극단이 뜻을 모아 제작되었다.

- 작/홍원기
- 연출/손기룡(부산시립극단), 品川能正시나가와 요시마사(동경 킨가도)
- 음악 감독/한재권
- 출연
이안(가수, 객원출연), 나자명(객원출연), 稲垣昭三(Shozo Inagaki), 田島俊屋(Shunya Tajima), 要田禎子(Sachiko Yoda), 花房徹(Toru Hnabusa), 吉田直子(Naoko Yoshida), 이돈희, 염지선, 이혁우, 김은희, 유성주(이상 부산시립극단 단원)

입장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A석 10,000원

문의 부산시립극단(607-6136)

김경출 피아노독주회

25일 월요일 오후 7:30



신라대학교 음악과 겸임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경출의 피아노 독주회.

김경출은 비에니야프스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오

페라극장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무대, 한·일 음악교류를 위한 20대의 피아노 듀오 연주회(부산국제음악회), 예음회 정기연주회(8차



부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병원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은 부산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한발 앞서가는 큰 병원으로 새롭게 도약·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내과 | 소화기내과 | 소아과 | 신경과 | 정신과 | 피부과 | 외과 | 흉부외과 | 정형외과 | 성형외과 | 신경외과 | 산부인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 치과 | 가정의학과 | 재활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방사선과 |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1330

· 대표전화: 051)507-3000 · Fax: 051)507-3001 · 홈페이지: www.busanmc.or.kr

레), 피아노연주가 클럽 듀오 연주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발트슈타인'

멘델스존/엄격한 변주곡

푸랑크/3개의 소품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피아니스트 현미경 귀국 독주회

26일 화요일 오후 7:30



영국 왕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학사, 석사 과정을 수석 졸업하고 귀국한 현미경의 피아노 독주회.

프로그램

하이든/소나타 바장조 Hob XVI 23

드뷔시/바르가마스크 모음곡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클래식아트매니저(8817-8002)

이명진 첼로독주회

27일 수요일 오후 7:30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첼리스트 이명진 첼로 독주회.

서울예고를 수석 졸업한 후 독일 에센 폴크방국립음대와 슈투트가르트 국립학교에서 음악수업을 한 이명진은 독일 Folkwang 콩쿠르에서 16년 만에 첼로 부문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바르셀로나 카날스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슈만/아다지오 앤드 알레그로

포퍼/헝가리 랩소디

· 피아노/윤철희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윤태준 바순 독주회

28일 목요일 오후 7:30



추계예술대학교를 실기 수석 졸업 후 러시아로 유학, 러시아 글링카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순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태준의 바순 독주회.

프로그램

뒤티외/Sarabande et Cortège

슈만/포크 스타일의 다섯 개의 소품

헨델/소나타 사단조 등 수곡

· 특별출연/곽정선(서울시립교향악단 바순 부수석)

· 피아노/이은정(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2006 부산 창작 관현악 콩쿠르 및 연주회

29일 금요일 오후 7:30

지난 1998년 지역의 젊은 음악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부산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제 12회 정기연주회.

마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백진현의 지휘로 부산 창작 관·현악 작곡 콩쿠르 대상 작품 초연무대를 갖는다.

프로그램

2006 부산 창작 관·현악 작곡 콩쿠르 대상작품

웨버/서곡 '오베론'

모차르트/두대를 위한 피아노협주곡 K.365

그리그/모음곡 '페그퀸트' 제 1번 작품 46

· 지휘/백진현(신라대 교수, 마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 협연/최윤희(경성대 교수, 피아노), 이지선(동서대 출강, 피아노), 김혜원(소프라노), 주유진(소프라노)

입장료 균일 10,000원(연주 당일 판매)

문의 백진현(999-5265)

기타와 함께하는 아르스 앙상블의 밤

30일 토요일 오후 7:30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리더), 백샤론, 비올리스트 이성호, 첼리스트 하경희가 활동하고 있는 아르스카르텟과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이 함께 앙상블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멘델스존/변주곡 'Wedding March'

비발디/기타협주곡 라장조 Rv 93

보케리니/기타 5중주 G.448 '서주와 판당고' 등 수곡

· 우정출연/기타리스트 고충진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문화(633-8990)

피아니스트 최지원 귀국 독주회

10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고를 거쳐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북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피아노 및 반주학 석사(M.M), 전문연주자과정(P.C)을 졸업하

고 귀국한 피아니스트 최지원 귀국 독주회.

최지원은 대학원에 재학하는 동안 반주조교(G.A)로 음대 오케스트라 수석 피아니스트, 오페라 및 뮤지컬 수업반주와 연주반주자로 활동했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내림마장조 작품 31
쇼팽/녹턴 올림다단조, 폴로네이즈 올림
다단조, 작품 26 등 수곡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프리모아트매니지먼트(622-5529)

소 크 장

조영문, 정안선 첼발로 듀오 연주회

15일 금요일 오후 7:30

동아대학교 조영문교수와 첼발리스트이자 피아니스트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안선의 첼발로 듀오 연주회.

부산 초연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의 모든 곡들은 두 대의 첼발로로 연주된다.

프로그램

클레멘티/소나타
바흐/소나타 사장조
모차르트/소나타 라장조 K.488 등

입장료 초대

문의 정안선(754-2291, 011-864-0291)

부산팬플룻사랑 제1회 정기연주회

17일 일요일 오후 5:00



2005년 7월 19일 'Daum'에 카페를 개설, 팬플룻을 알려온 부산팬플룻사랑의 제 1

회 정기연주회.

부산팬플룻사랑'은 현재 온천천아티스트팀에 선정되어서 한달에 두 번 온천천노천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가요/인연, 개똥벌레, 혼자만의 사랑, 장미
경음악/Romance, Entertainer, 낙원의 새
팬플룻 명곡/외로운 양치기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김경훈(010-3618-1635)

한연회

The Sounds of Modern Piano Music

18일 월요일 오후 7:30



한연회 '해설이 있는 연주회' 3번째 시리즈 'The Sounds of Modern Piano Music'.

이번 연주회는 인상주의로부터 재즈에 이르는 다양한 음색의 경험을 통해 '난해함' '어려움' 등으로 대변되는 현대음악에 한 걸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

프로그램

Griffes/4 Roman Sketces op.7
Webern/Variations op.27
Cowell/Advertisement 등 수곡

· 해설/하서경
· 연주/김일주, 박정은, 김소희, 김진희, 최지선

입장료 초대

문의 하서경(010-7309-4904)

2006 부산예술제 부산연극협회

극단 맥 메아리

21일 -23일 목-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6:00

향파 이주홍 탄생 100주년을 기념, 가족극으로 새롭게 각색된 연극 '메아리'.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누나가 시집을 가 버리는 바람에 쓰러린 이별을 경험하게 된 돌이의 새로운 놀이 상대는 바로 산의 허리를 돌아서 달려 나오는 메아리.

우리들의 아련한 기억 저편에 자리하고 있는 추억 속의 아름다운 장면들을 한 폭의 그림처럼 서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작/이주홍 · 각색/김문홍

· 연출/이정남

· 출연/박성호, 권은하, 남정현, 전지숙, 이태현, 임나리, 김민희

입장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부산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연극협회(645-3759)

2006 6대 광역시 및 제주도 예술교류전 연극 페스티벌

24일-26일 일-화요일 오후 7:00,
28일 목요일 오후 4:00, 7:00,
30일 토요일 오후 4:00, 7:00

2002년부터 실시해온 6대 광역시 및 제주도 예술교류전.

2002년 국악, 2003년 사진, 2004년 영화, 2005년 문인협회 행사를 주관한 부산은 올해 부산연극협회 주관으로 부산문화회관과 시민회관에서 연극 교류전을 펼쳐진다.

주요일정 및 작품

· 24(일)~26(화) 오후 7:00

부산 극단 동녘-바리데기(작/공동창작, 연출/심문섭)

· 28(목) 오후 4:00, 7:00

울산 극단 푸른가시-의자는 잘못 없다(작/선옥현, 연출/전우수)

· 30(토) 오후 4:00, 7:00

광주 극단 진달래 피네-아귀야 나오너라(작/선옥현, 연출/최영화)

입장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부산연극협회(645-3759)

- 음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콘서트

- 행사

- 전시

● 주요문화공간

- 가람아트홀(626-6664)
- 가마골소극장(245-0042)
- 가톨릭센터(462-187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 국도아트홀(247-4242)
- 금정문화회관(519-5651)
- 글로벌아트홀(505-5995)
- 놀이아트홀(631-0660)
- 동래문화회관(550-4481)
- 동보서적 문화홀(803-8000)
-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 동아대학교 석당홀(240-2651)
-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1081)
- 민족굿터 신명천지(515-7314)
- 부산민주공원(462-1016)
-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 부산시민회관(630-52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 소극장 너른(622-3572)
-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 엑터스소극장(611-6616)
- 열린소극장(555-5025)
- 을숙도문화회관(220-5321~4)
- 추리문학관(743-0480)
- 프랑스문화원(465-0306)
- 40계단문화관(600-4041)
- KBS 부산홀(620-7100)
- MBC아트홀(760-1000)
- SH공간소극장(621-8518)

(※ 가나다순)

음악

라이브 클래식과 함께하는 어린이 동화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

8월 26일(토)-9월 10일(일) 평일
오전 10:00, 11:00, 주말 오후
1:00, 3:00, 5:00(평일공연은
단체관람) 가람아트홀

어린이들이 클래식을 쉽고도 즐겁게 관람
할 수 있도록 프로코피에프의 음악동화 '피
터와 늑대'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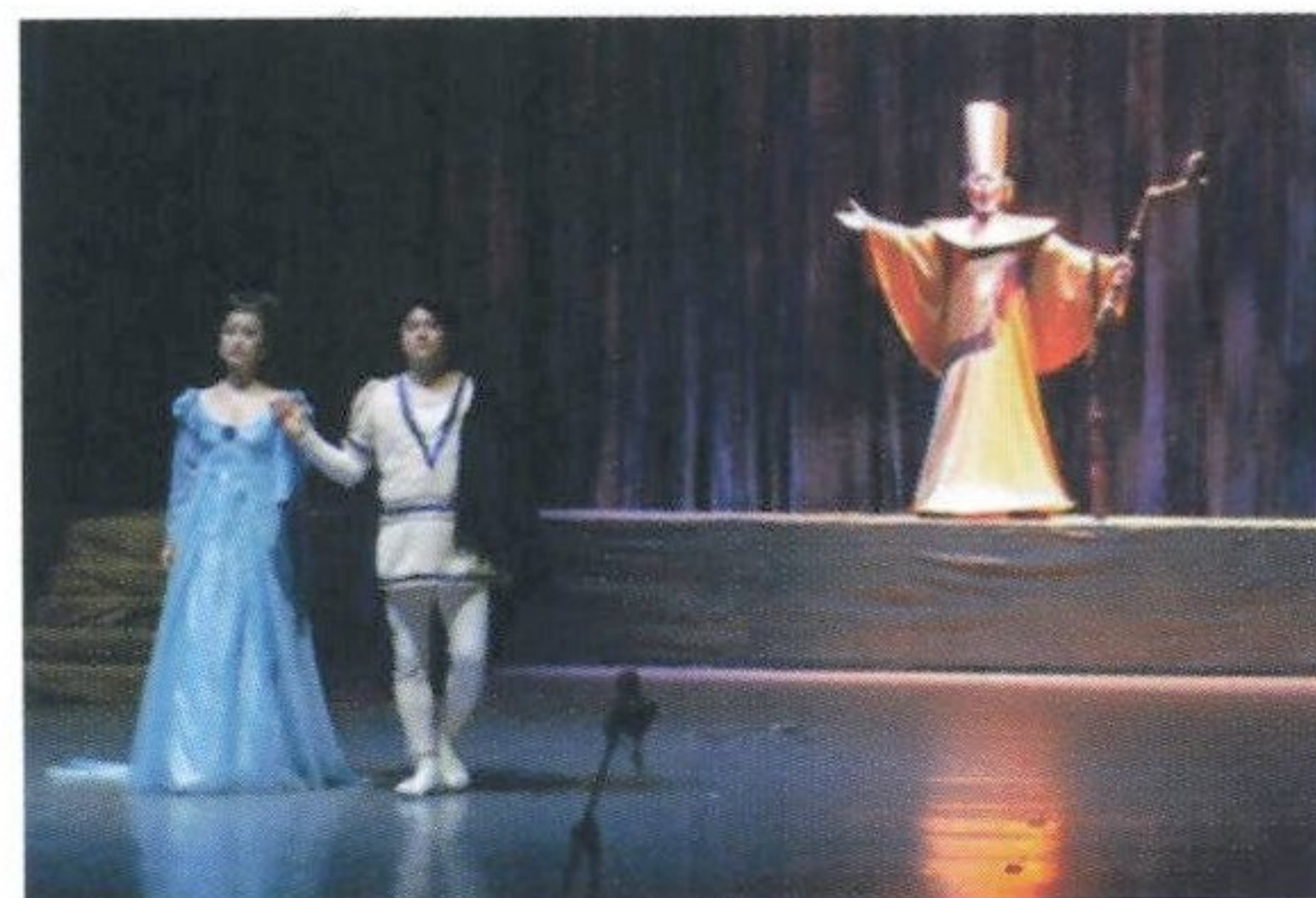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람아트홀(626-6664)

부산가톨릭센터 토요일객석 개관기념공연

오페라 마술피리

2일(토), 9일(토) 오후 4:00
가톨릭센터



가톨릭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토
요일객석 개관 기념공연 오페라 '마술피리'.

클래식과 연극적 재미를 결합시켜 온가족
이 즐길 수 있는 가족오페라로 선보인다.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오페라제작소 밤비니(904-9521)

박미성 피아노 독주회

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한양대학교 피아
노과 및 동대학원,
미국 미주리 주립대
(석사), 텍사스 주
립대(박사)를 졸업
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박미성 독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내림나장조 K.281

베토벤/소나타 마장조 작품 109 등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프로인트(521-5729)

김태기 피아노 독주회

6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그동안 다수 콩쿠
르에서 입상, 그 실
력을 인정받은 부산
예고 2학년 김태기
피아노 독주회.

프로그램

드뷔시/두개의 아라
베스크

베토벤/소나타 작품 57 '열정' 등

입장료 초대

문의 가람기획(626-6664)

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6일 조현미 바이올린 독주회



신라대학교 교수이
자 을숙도교향악단
악장, 아르스 스트링
과르텟 리더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 독주회.

· 피아노/조현선

· 기타/고충진

■ 13일 소프라노 신정순 독창회

동의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태리 베아첸짜 국립음악원 'G.Nicolini'
성악과 및 동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신정순 독창회.

■ 20일 김수진 피아노 독주회

독일 만하임국립음대 석·박사 및 최고연
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김수진 독주회.

■ 27일 송언경 첼로 독주회

경희대 및 동대학원, 미국 인디애나 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과 국내를 오가며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 송언경 독주회.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2)

제 55회 부산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충근

강민정

한국음악계의 뉴리더로 각광받고 있는 지휘자 오충근이 지휘하고 원한국제콩쿠르 1위 없는 3위, 안드레포스타치니 국제콩쿠르 1위 등 다수 국내외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강민정이 협연하는 부산신포니에타 제 55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아렌스키/차이코프스키 주제에 의한 변주곡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 4번 K.218 등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김성숙, 형희전 듀오콘서트

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음악대학원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성숙, 형희전이 마련하는 듀오콘서트.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

슈만 서거 150주년을 맞아 세 작곡가를 기념하는 무대로 마련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돈지오바니’ 서곡

슈만/작은 어린이와 큰 어린이를 위한 12곡의 연탄 소품 작품 85 등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프로인트(521-5729)

2006 금난새와 유라시안 필의 클래식여행

한화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8일 금요일 오후 8:00
시민회관 대극장



참신한 기획과 재치있는 해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휘자 금난새와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무대로 마련되는 한화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악회.

입장료 초대

문의 대한생명 마케팅전략팀(669-6738)

크로노스앙상블 제 7회 정기연주회

8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으로, 2003년 창단 이후 학구적인 자세로 수준높은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크로노스앙상블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오보에 4중주곡

모차르트/클라리넷 5중주곡

황장수/모스크바의 이방인 등

· 협연/전승현(서울기타과르텟 단원)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장호(011-830-4770)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20주년 기념공연

10일 화요일 오후 5:00
시민회관 대극장

‘신이 내려준 목소리’로 금세기 최고의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로 평가받는 조수미의 국제무대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무대.

조수미는 1986년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극

자신의 연주를 음반과 비디오로 소장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연주자들이 바라던 클래식 전문 녹음실 & 촬영 스튜디오

연주 실황 녹음 _ 음반 녹음 _ 교수 연구실적 녹음
연주 실황 촬영 (DVD, SVHS) _ 콘서트 촬영

Bird Classic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센텀벤처타운 504호
☎ 051-744-1150, www.vrvr.co.kr



장에서 국제 데뷔무대를 가진 이래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런던의 코벤트가든 등 세계 5대 오페라극장을 비롯 전 세계 유명무대에서 격찬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조수미가 아끼고 사랑하는 정통 클래식 성악곡으로 마련된다.

입장료 VIP 140,000원 · R석 110,000원
S석 80,000원 · A석 60,000원

문의 올리브엔터테인먼트(1588-4430)

고신의대 관현악단 제 11회 정기연주회

12일 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 백혈병 아동을 위한 작은 연주회, 소아병동 어린이를 위한 캐롤 연주회 등 음악으로 따뜻한 사랑을 전해온 고신의대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주폐/시인과 농부 서곡

베토벤/교향곡 제 7번 가장조 작품 92 등

입장료 초대

문의 허재준(011-9533-7394)

제 1회 부산 청소년 플루트 음악축제

12일 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플루트를 사랑하는 부산지역 초중고생들이 함께 무대에 서는 제 1회 부산 청소년 플루트 음악축제.

· 출연/성동초등학교, 우암초등학교, 분포초등학교, 초량초등학교, 남문초등학교, 대교초등학교, 다대중학교, 영남중학교, 하남중학교, 서경음악원, 유니언 플루트앙상블

· 특별출연/소리테 플루트앙상블

입장료 초대

문의 옥영호(011-9322-1805)

오지여행가 도용복과 함께하는

음악이 있는 세계문화기행 다섯번째

12일 화요일 오후 7:00
글로벌아트홀

오지여행가 도용복의 재미나는 해설로 즐기는 뮤지컬 '카르멘' 영상 상영회.

문의 글로벌 아트홀(505-5995)

계명 쇼팽음악원 교수 순회음악회

1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폴란드 쇼팽음악원 교수 소프라노 Ewa Izykowska, 바이올리니스트 Marek Szwarc, 플루티스트 Elzbita Gajewska, 작곡가 Edward Sielicki, 피아니스트 Jerzy Maciejewski가 들려주는 계명 쇼팽음악원 순회음악회.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유키 구라모토 내한공연

14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부드럽고 애절한 선율, 절제된 분위기, 서정적이면서도 정갈한 연주로 사랑받고 있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의 음반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무대.

1986년 첫 솔로앨범 'Lake Misty Blue'로 데뷔한 유키 구라모토는 100만장이 넘는 앨범 판매량 기록을 세우는 등 가장 사랑받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유키 구라모토의 초기 데뷔곡들과 히트곡들을 만날 수 있다.

입장료 VIP 80,000원 · R석 6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문의 올리브엔터테인먼트(1588-4430)

일파가야금합주단 창단 10주년 기념공연

1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장혜숙 단장을 중심으로 20여명의 가야금 연주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일파가야금합주단은 새로운 창작곡 발표, 악기개량사업 등을 통해 가야금인구의 저변확대에 힘써 왔다.

프로그램

구례향제 줄풍류 중 '세환입'

김영재/18현 가야금 2중주 '금파'

황창주/개량해금, 옥류금과 25현의 환상 '雪花 아리랑' (초연) 등 수곡

· 특별출연/김철(중국 길림성 연길시 조선족 예술단장)

입장료 초대

문의 일파가야금합주단(017-544-5505)

임화경 피아노 독주회 임화경의 슈만 순례 I - 슈만과 친구들

1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독일 폴크방 국립음대와 하노버,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음악수업을 받고 현재 울



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임화경 독주회.

독일 에센 폴크방 콩쿠르 1위,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 최고 연주자상 등을 수상한 바 있는 임화경은 그동안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프로그램

브람스/슈만 주제에 의한 변주곡
쇼팽/발라드 2번(로베르트 슈만에게 헌정)
슈만/아라베스크 등

입장료 VIP 50,000원 · R석 30,000원
S석 10,000원

문의 프로인트(521-5729)

노엘합창단 출소자돕기 사랑의 음악회

14일 목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지난 1961년 창단, 45년 전통을 가진 노엘합창단이 출소자를 돌보는 애린원을 돕기 위해 마련하는 사랑의 음악회.

노엘합창단, 노엘중창단과 함께 테너 장원상, 소프라노 조정선, 샤론챔버앙상블이 출연한다.

프로그램

이현철/청산에 살리라
김애경/나의 별에 이르는 길
P.하이드리히(편곡)/멘델스존의 결혼행진곡
주제에 의한 변주곡 모음 등 수곡
· 지휘/김명현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윤진식(011-878-5599)

박미은 피아노 독주회

15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와 독일 쾰른국립음대(피아노솔로 디플롬), 뒤셀도르프 국립음대(가곡반주 최고연주자 과정)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박미은 독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환타지 나단조 K.397
베토벤/소나타 제 7번 라장조 작품 10
쇼팽/이별의 곡 등 수곡
· 우정출연/테너 이철성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부산문화(633-8990)

플룻앙상블 더블샵 정기연주회

15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4년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플룻앙상블 더블샵의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독주 및 앙상블, 트리오 등 다양한 플룻 연주곡을 들려준다.

입장료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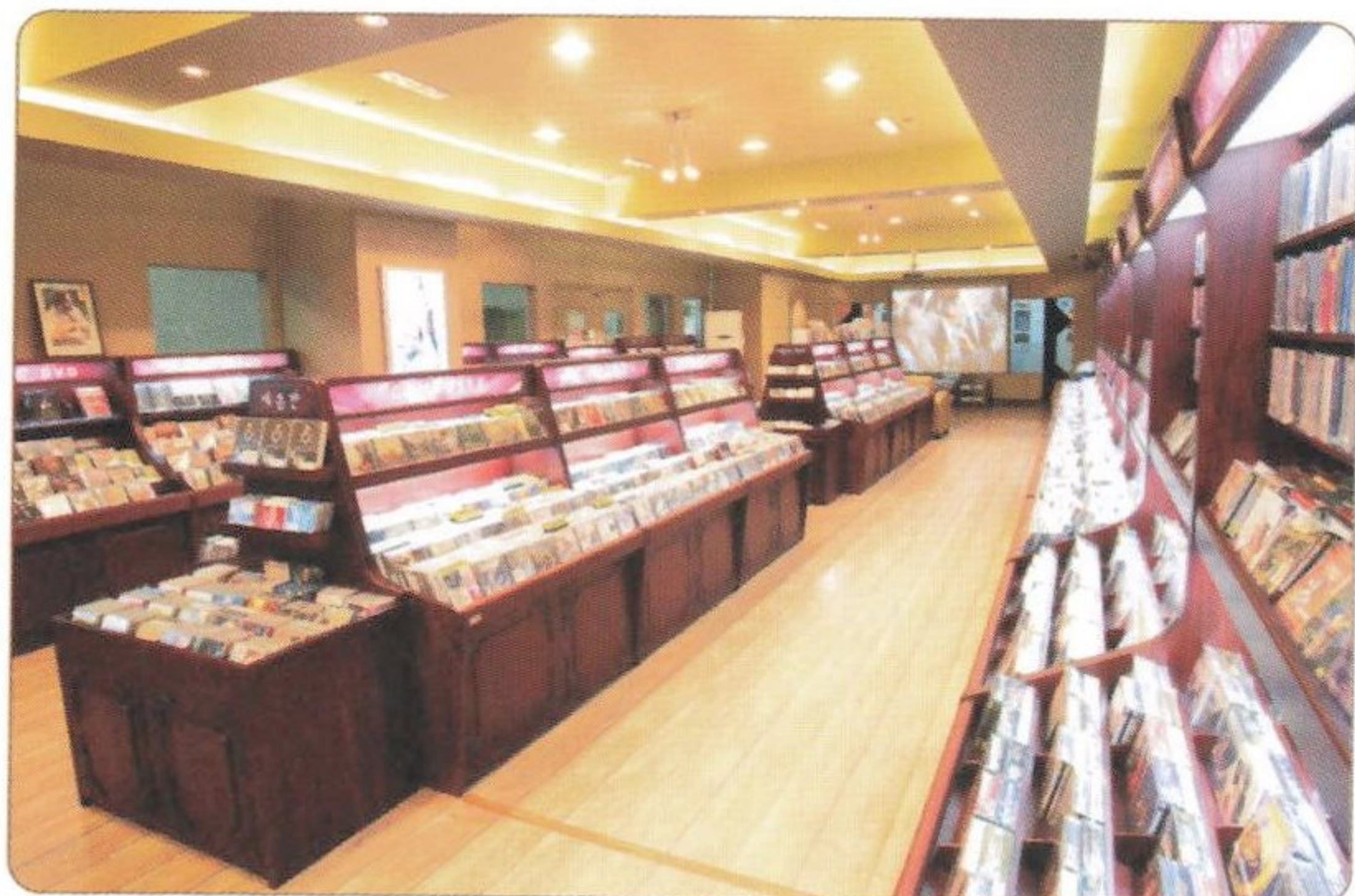
문의 구현옥(016-584-4104)

2006 국악대향연

16일 토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들과 문하생들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국악무대를 선보이는 부산예술제 2006 국악대향연.



부산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클래식음악애호가 바라던 클래식음반전문매장 부산에도 있습니다.

• 비바체 목요음악감상회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8:00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비바체클래식

해운대 선플라자 빌딩 1층(지하 2, 3, 4층 무료주차)
TEL 743-0003, FAX 743-3301, vivaceclassic.co.kr

프로그램

시나위합주, 남창지름시조 '푸른산중 백발옹이', 판소리 '흥부가' 중 '흥부가 놀부에게 쫓겨가는 대목' 등 수곡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국악협회 부산지회(644-5211)

오난숙 바이올린 독주회

16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미국 신시내티 콘서바토리와 피바디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뉴욕 우록챔버오케스트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오케스트라 등과 협연무대를 가져온 바이올리니스트 오난숙 독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K.378

차이코프스키/멜로디 등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오난숙(017-844-6161)

이수연 귀국 피아노 독주회

18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와 독일 만하임국립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독일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이수연 귀국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11 Bagatellen 작품 119

슈만/크라이슬레이아나 작품 16 등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소프라노 김현주 귀국독창회

1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악센 국립음대를 졸업한 소프라노 김현주 귀국 독창회.

김현주는 유학중 독일 Aachen

Dom Solist를 역임한 바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오랑캐꽃

헨델/사랑하는 그대 눈동자

박정선/화접사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김현주(010-3120-5221)

볼쇼이 오페라 갈라콘서트

20일 수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러시아를 대표하는 수많은 예술가들을 탄생시킨 볼쇼이 오페라극장 주역가수들이 들려주는 오페라 하이라이트 갈라 콘서트.

테너 살리니코프 안드레이를 비롯 소프라노 보이코 갈리나, 바리톤 오시포프와 우리나라 출신인 테너 손성래 등 볼쇼이 오페라극장 주역들과 이태리 페라라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베이스 바리톤 이정근이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문의 도토리엔터테인먼트(627-3232)

우리가곡연구회 제 14회 정기연주회

20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3년 7월 창단 이후 한국적인 소재와 표현어법이 담긴 우리가곡을 노래해온 우리

가곡연구회의 14번째 정기연주회로, 우리 민족의 정서와 생활이 담겨있는 우리가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윤이상/그네

채동선/새야 새야 파랑새야

조두남/새타령 등 수곡

· 출연/박명량, 최훈녀, 박미애, 이춘혜, 차수정(이상 소프라노), 이태원(테너), 구희용(바리톤), 유형광(베이스)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프로인트(521-5729)

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의 The Great Sonata

2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서울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 독주회.

6세에 도미, 인디애나대학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신상준은 1981년 국립교향악단과의 협연을 통해 고국무대에서 데뷔무대를 가진 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10개의 전주곡

베토벤/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9번 가장조 작품 47 '크로이처' 등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문의 프로인트(521-5729)

이선아 첼로 독주회

2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서울대학교와 미국 인디애나음대(석사), 마이애미음대(박사)를 졸업하고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원주시립교향악단 객원 부수석을 역임한 첼리스트 이선아 독주회.

스트 이선아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 3번 가장조 작품 69

브람스/첼로와 피아노, 클라리넷을 위한 트리오 가단조 작품 114 등

· 특별출연/홍성택(클라리넷)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경성대학교 현악합주단 정기연주회

26일 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경성대학교 현악합주단이 들려주는 현악앙상블의 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차이코프스키/현을 위한 세레나데 등

· 지휘/임병원

입장료 초대

문의 임병원(620-4917~8)

부산심포닉밴드와 함께하는 청소년음악회

27일 수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청소년들이 클래식음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해설음악회를 가져온 부산심포닉밴드(지휘/이기균)가 뮤지컬 배우 이해경과 함께 들려주는 청소년음악회.

입장료 균일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의 손정경(017-559-9063)

연극

극단 사계 **도덕적 도둑**

8월 12일(토)-9월 10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SH공간소극장

집을 털러온 도둑과 애인을 데리고 들어오던 집주인이 마주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코믹하게 그린 작품.

· 작/다리오 포 · 연출/허영길

· 출연/조흥일, 김만중, 양지웅, 김장영 외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2,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SH공간소극장(611-8518)

강택구(두만강 푸른 물에...)

8월 12일(토)-9월 16일(토) 평일 오후 7:0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스소극장

실제 시베리아 벌목공들의 탈출기를 소재로, 이산가족의 애환과 잊혀져 가는 분단의 아픔을 그린 작품.

· 작/전훈 · 연출/최성우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너른소극장(611-6616)

로미오를 사랑한 줄리엣의 하녀

8월 25일(금)-9월 17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현재 뉴욕을 배경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줄리엣의 하녀 주리, 무덤지기 아들 하킴의 엇갈린 사랑이 원작을 비튼 엉뚱한 상황과



인물들의 코믹 연기로 재미를 더한다.

· 작/박현철 · 연출/이윤주

· 출연/변지호, 이종현, 서승현, 이미화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극단 에저또 부산 10주년 기념공연 4

뮤지컬 친구

8월 25일(금)-9월 24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놀원소극장



197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젊은이들의 순수한 사랑을 구수한 사투리와 70년대 음악으로 그려낸 창작 로큰롤 뮤지컬.

· 작, 연출/최재민

· 출연/손미나, 김진욱, 이지훈,곽정림 외

입장료 일반 25,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단 에저또(852-9161)

우리는 아직도 클레오파트라를 생각하고 있다

8월 30일(수)-9월 3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월-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소극장

오브제(그림자), 몸(움직임), 언어(실험극)로 표현한 창작극 '눈비', '무지개를 쫓아 달나

라로 갈까' '우리는 아직도 클레오파트라를 기억하고 있다' 등 세 작품이 선보인다.

· 작, 연출/정진희

· 출연/정진희, 허종원, 김현진, 백상희 외

입장료 일반 18,000원 · 청소년 15,000원 (예매시 5,000원 할인)

문의 극단 힘찬(011-9506-8221)

빨간 피터 원숭이의 고백

1일(금)-17일(일) 오후 8:00
(월요일 공연없음) 열린소극장



인간에게 사로잡혀 철창에 갇힌 원숭이 피터가 인간화되는 과정을 통해 인간 본연의 정체성과 현대 인간세계의 모순을 극적으로 표현한 마임극.

부산시립극단 단원을 역임한 바 있는 마임리스트 김세진이 기획과 각색, 연출, 출연까지 맡아 새로운 피터를 선보인다.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마임극단 세진(019-530-5041)

2006년 근로자 연극제 참가작

극단 현 가족사진

5일 화요일 오후 5:00, 8:00
시민회관 소극장

엄마가 죽은 후 종교에 빠진 두 딸과 아버지와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가족간의 사랑을 그린 가족극.

· 작/이찬영 · 연출/강승연

· 출연/최규현, 이도용, 성민지, 정혜영 외

입장료 초대

문의 최규현(019-9211-3641)

연희극 그리하여 그들은...

-도롱뇽, 대법원 가다

9월 7일(목)-10월 1일(화)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월-수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실천무대

'천성산 도롱뇽이 인간이라면'이라는 가정하에 우화적 기법과 사실적 상황을 교차시켜 환경파괴 이면에 드리운 개발논리를 우화적으로 그린 연희극.

· 작, 연출/이성민 · 작곡/우창수

· 출연/변현주, 이현식, 임태성, 황정애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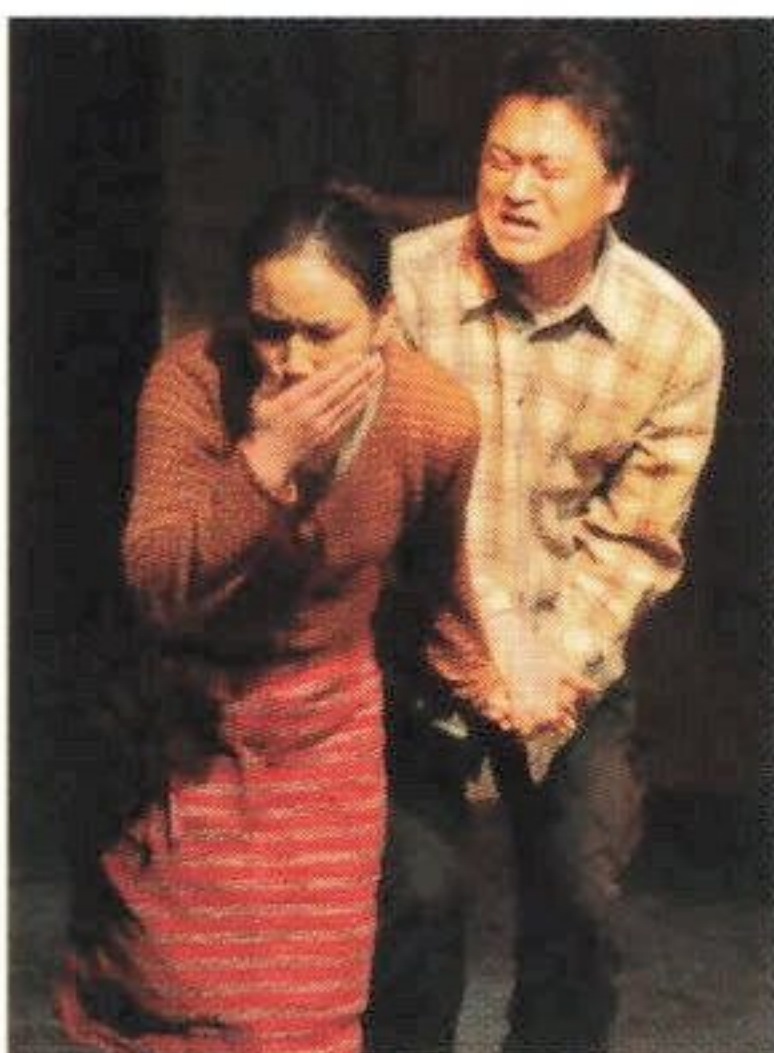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소극장 실천무대(245-5919)

노동문화예술단 일터

달밤 블루스

8일(금)-17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노동복지회관 소극장



가난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들의 연대감과 길거리 공동체의 허벅진 정서가 춤과 노래, 배우들의 맛깔스런 연기를 통해 펼쳐지는 뮤지컬 '달밤 블루스'.

· 작, 연출/김기영

· 출연/박성진, 윤순심, 김선관, 조기정 외

문의 노동문화예술단 일터(635-5370)

2006 6대 광역시 및 제주도 예술교류전

20일-22일 수-금요일 오후 7:00,
23일(토), 25일(월), 27일(수),
29일(금) 오후 4:00, 7:00
시민회관 소극장

지난 2002년 부산을 비롯 울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6대 광역시와 제주도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교류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마련한 6대 광역시 및 제주도 예술교류전 2006 무대.

■20일(수)-22일(금) 19:00, 23일(토) 16:00, 19:00 부산연극협회 '실종'

획일화된 사회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진정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작품.

· 작/김문홍 · 연출/이성규

· 출연/나종기, 배진만, 전은경, 김학준 외

■25일(월) 16:00, 19:00 인천광역시 극단 感&動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가족들의 무관심속에 말썽꾸리기로 자라지만 그 누구보다 순수한 주인공 제제가 겪는 성장 드라마를 뮤지컬로 극화한 작품.

· 작/바스콘셀로스 · 연출/정남철

· 출연/지혜찬, 최헌철, 지성근, 차상미 외

■27일(수) 16:00, 19:00 대전광역시 극단 한발 '뮤지컬 캣츠'

세계적인 뮤지컬 '캣츠'를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뮤지컬로 새롭게 제작한 작품.

· 연출/도완석

· 출연/박대원, 도완석, 이슬, 홍성민 외

■29일(금) 16:00, 19:00 대구광역시 극단 고도 '적의 화장법'

아멜리 노통의 베스트셀러 '적의 화장법'을 극화한 작품.

· 연출/김진희

· 출연/이현진, 이용희, 안승찬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부산연극협회(645-3759)

뮤지컬 헤드워크

22일 금요일 오후 8:00,
23일 토요일 오후 4:00, 7:00,
24일 일요일 오후 3:00,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88년 초연 이래 전 세계 70개 도시에서 공연되어 매니아를 양산한 뮤지컬 '헤드워크'은 트랜스젠더 가수의 삶과 사랑,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록 콘서트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 출연/송용진, 조정석, 전해선, 유나영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공연기획 예명(804-0087)

아카펠라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30일 토요일 오후 7:00
동아대학교 석당홀

배우의 목소리와 신체 이외에는 어떠한 악기나 음향기기도 사용하지 않는 독창적인 형

식의 아카펠라 뮤지컬.

· 연출/민준호

입장료 연인석 50,000원 · VIP 40,000원 · 일반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5% 할인)

문의 PS엔터테인먼트(805-7877)

영 화

나루세 미키오 회고전

1일(금)-17일(일) 시네마테크 부산
(시간은 미정)

여성영화의 장인, 멜로드라마의 천재로 불린 일본 거장 나루세 미키오의 대표작 20편이 상영되는 나루세 미키오 회고전.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무 용

2006년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문 무용제

4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예술고등학교 출신 무용전공자들이 마련하는 동문 무용제.

작품

한국무용/동래학춤 발레/These Days 현대무용/Ever 등

입장료 초대

문의 이화성(011-9147-2733)

브니엘예술고등학교 정기 무용발표회

8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브니엘예술중학교 개교 10주년을 맞아 무용전공자들이 우리 전통춤 비롯 발레,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한국군무/염청청(染靑靑), 북치고 장구치고 III 발레군무/코펠리아, 해적 현대군무/그리움 등

입장료 무료

문의 브니엘예술고등학교(582-7671)

Random Art Project 작은방
Dance Performance

목소리

12일(화)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현실과 타협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몽상가들이 겪는 정신적 분열과 자신을 파괴해버리는 일련의 작업을 통해 가식속에서 고통받는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찾고자하는 현대무용단 Random Art Project 작은방의 4번째 창작춤판 '목소리'.

· 안무/진영아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진영아(016-593-6658)

아 동 극

피노키오

1일 금요일 오전 10:20, 11:40,
2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3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5일 금요일 오전 10:20, 11:40,
16일 토요일 오후 1:00, 3:00,
17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22일 금요일 오전 10:20, 11:40,
23일-24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제페트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나무인형 피노키오의 신나는 모험을 그린 가족뮤지컬.

· 극본, 연출/오계영

· 출연/박윤미, 이선화, 김기양, 길수경 외

입장료 균일 12,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00원 할인, 매표소에서 카드제시)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3)

아기공룡 두비

9일(토), 16일(토) 오후 1:00, 3:00
SH공간소극장

사냥꾼에게 잡혀간 엄마를 구출하기 위해 사냥꾼에게 용감하게 맞서는 아기공룡 두비의 모험담을 그린 가족뮤지컬.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SH공간소극장(621-8518)

백설공주와 색깔요정들

15일 금요일 오전 10:20, 11:2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명작동화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를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뮤지컬로 각색한 작품.

· 각색/심미란 · 연출/이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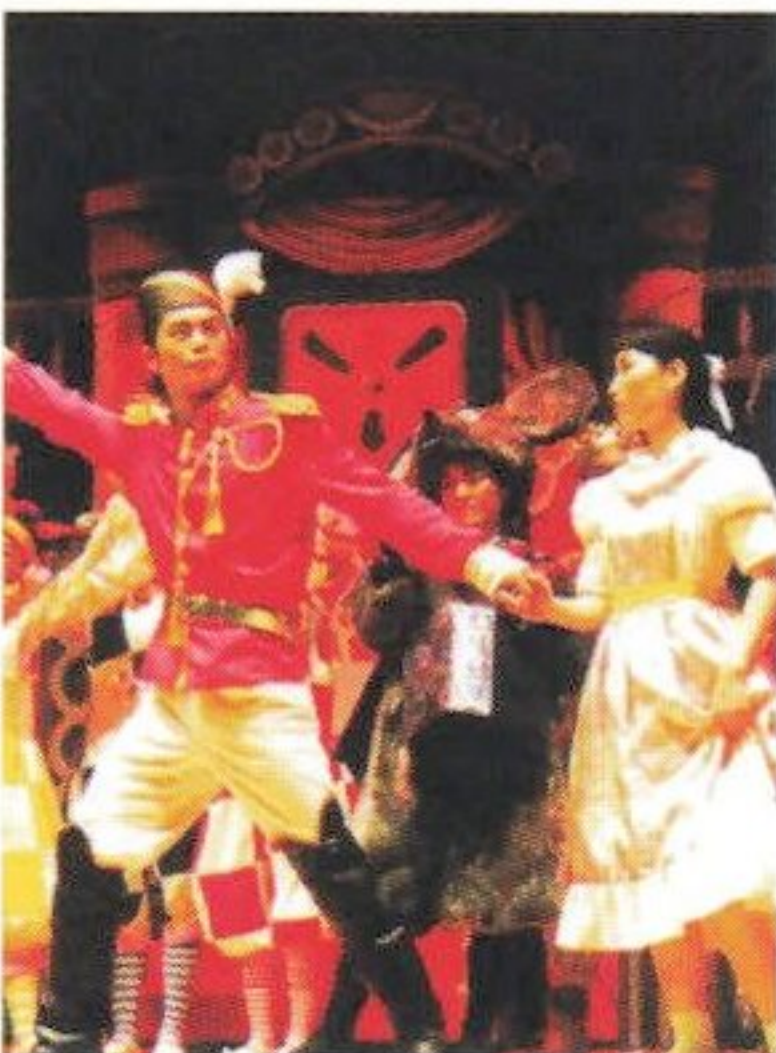
· 출연/전지숙, 남정현, 권은하, 김창주 외

입장료 균일 10,000원(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인형극단 까치(625-2117)

호두까기 인형

23일-24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5:00 시민회관 대극장



꿈과 사랑, 희망을 담은 메시지와 아름답고 환상적인 무대로 기존 발레작품과는 다른 재미를 보여줄 가족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 연출/진상우

· 출연/진상우, 김선화, 정명원, 최용정 외

입장료 R석 25,000원 · S석 20,000원

A석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5% 할인)

문의 도토리엔터테인먼트(627-3232)

콘서트

2006 스위트박스 Addicted Concert

2일 토요일 오후 7:0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입장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문의 도토리엔터테인먼트(1544-1555)

멜로 브리즈 단독 콘서트

9일 토요일 오후 4:00, 7:00
동아대학교 석당홀

입장료 균일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원스테이지(1588-0881)

행사

영광도서와 뮤클이 함께하는

클래식 · 예술공연 DVD 상영 및 해설

매주 일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3일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 10일 뮤지컬 '헤드윅'
- 17일 발레 '지젤(라 스칼라 발레단)'
- 24일 영화속의 클래식 '베니스에서의 죽음'

입장료 무료

문의 영광도서(816-9500)

부산시민을 위한

부산의 역사 바로알기

4일(월), 9일(토), 11일(월),
18일(월), 23일(토), 25일(월)
오전 11: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역사와 전통이 남아있는 부산의 각 지역을 답사하면서 우리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는 교양강좌.

- 4일 복천동 고분군, 연산동 고분군
- 9일 범어사, 만덕사지, 구포왜성 답사
- 11일 조선시대 행정, 문화의 중심지 동래

- 18일 매춘의 역사, 근대건축물 등
- 23일 부산의 근대건축물 실지답사
- 25일 범어사, 만덕사지 등

입장료 무료

문의 (사)부경역사연구소(514-6401)

제 53회 시울림 시낭송회

13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현대미술의 감상'이란 주제로 열리는 서양화가 양철모의 교양강좌와 시낭송이 함께 펼쳐지는 제 53회 시울림 시낭송회.

입장료 무료

문의 이해웅(500-7214)

범어사 개산문예대제전

-2006 범어(梵魚)를 찾아서...

9월 22일(금)-9월 24일(일) 범어사



범어사 창건 1328년을 맞아 펼쳐지는 개산문예대제전.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산사콘서트, 전래놀이 한마당, 다비식

등 다양한 불교문화행사가 펼쳐진다.

문의 범어사(508-3034, 3051)

전시

대륙에 올려퍼진 항일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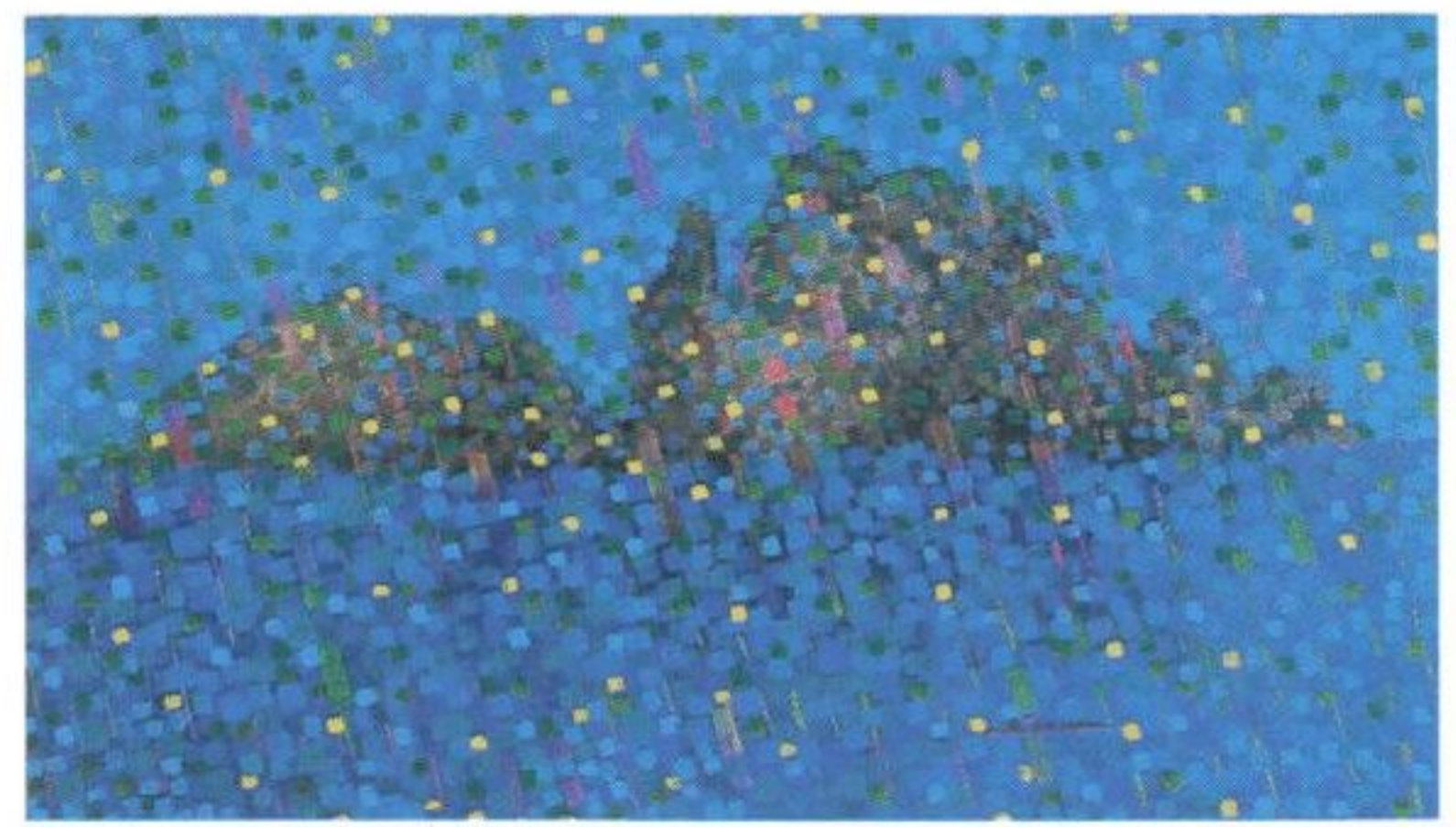
먼구름 한형석의 생애와 독립운동

8월 15일(화)-10월 29일(일)
부산근대역사관 기획전시실

문의 부산근대역사관(253-3845~6)

정세훈展

8월 23일(수)-9월 5일(화)
도시갤러리



점묘법의 독특한 스타일로 자연의 아름다운 정취를 화폭에 담은 정세훈 작품전.

문의 도시갤러리(756-3438)

아름다움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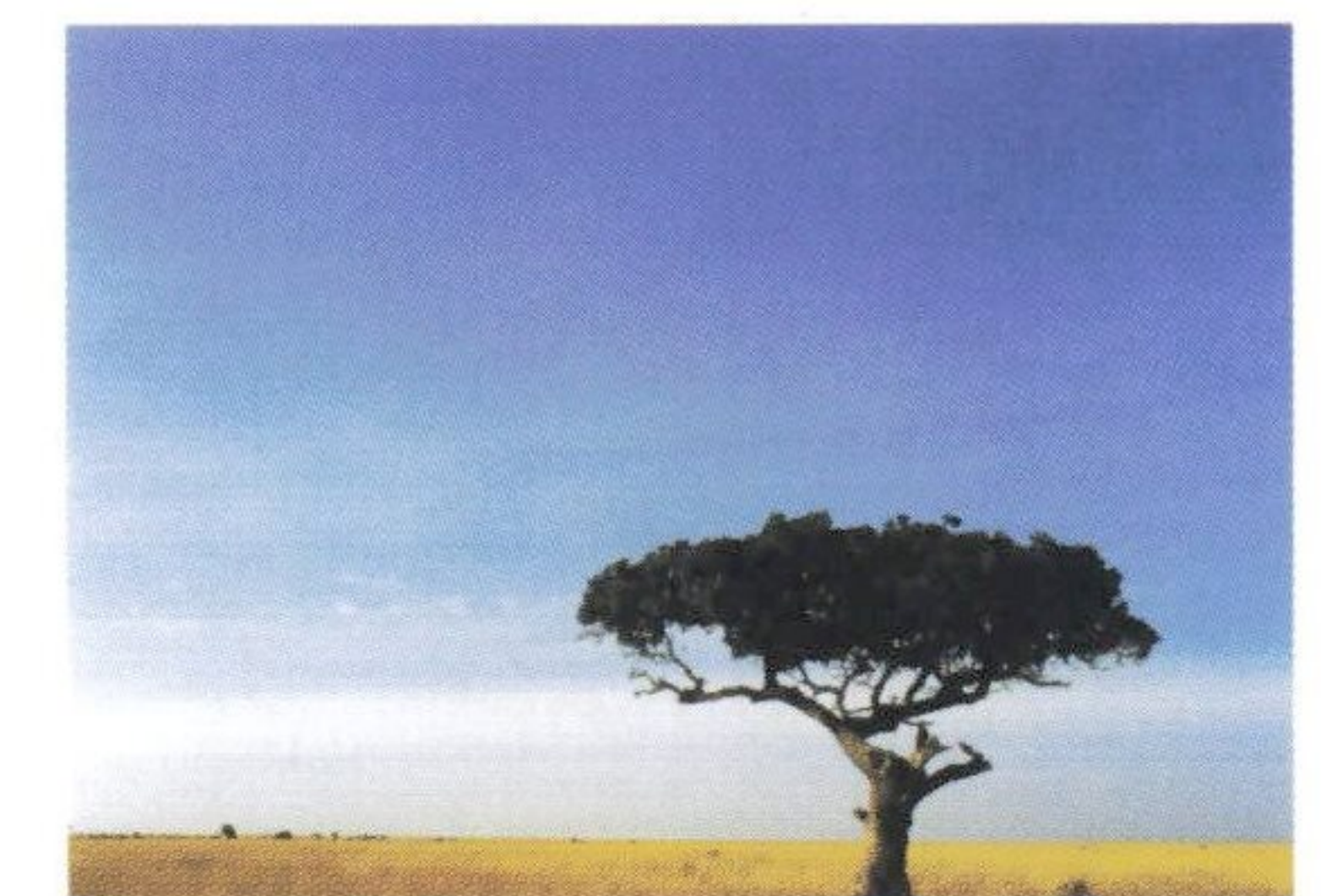
8월 24일(목)-10월 8일(일)
용두산미술전시관

문의 용두산미술전시관(244-8228)

김중만 사진전

아프리카 아프리카

8월 25일(금)-9월 7일(목)
롯데화랑 부산본점



문의 롯데화랑 부산본점(810-2328)

영월군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지역순회전

Thank You, 박물관고을 영월

8월 31일(목)-9월 4일(월)
국제신문 문화센터

문의 국제신문 문화센터(500-5114)

SDA(신라산업디자인회)전

9월 5일(화)-9월 10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금정예술제

9월 27일(월)-10월 1일(일)
금정문화회관 제 1, 2전시실

문의 금정구청 문화예술과(519-4061)

Jo Sumi – 20th Anniversary Concert

10th(Tue) 5:00p.m. Busan Citizen Center Main Theater



'Voice from heaven', soprano Jo Sumi is well known as the best coloratura in the world. Jo has a special stage celeb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her opera debut as Gilda in Verdi's in Trieste, Italy, in 1986.

Jo has performed actively in the worldwide stage such as New York Metropolitan, Covent Garden, and other top 5 opera theaters in the world since

her debut.

· piano/ Vincenzo Scaleria

Ticket : VIP 140,000Won · 110,000Won · 80,000Won · 60,000Won

More Information : 1588-4430

The 422th Subscription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Sound of Autumn by Classical Music

14th(Thu)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Have you ever heard coming of autumn? If not, this is for you.

Kwak Sung, the ex-chief conductor of Busan Phil. and Dennis Kim, the music director of Seoul Phil. will present us romantic music on Sep. program

W.A.Mozart/Overture to 'Der Schauspieldirektor' K.486

L.v.Beethoven/Violin Concerto in D Major op.61

J.Brahms/Academic Festival Overture in c minor op.80

O.Respighi/Symphonic Poem 'Pini di Roma' P.141

Ticket : 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More Information : 607-6101

20th Anniversary Special Concert Yuhki Kuramoto

14th(Thu) 7:30p.m. Busan Citizen Center Main Theater

New age pianist, Yuhki Kuramoto visits Busan. Yuhki is a star for Korean new age music fans. His albums have sold over 1 million pieces in Korea since he was introduced in the middle of 1990th. Yuhki's melody has attracted many people by its soft, touching, and moderate mood.

Actually Yuhki debuted by the first solo album, 'Lake Misty Blue', in 1986. This is for celebrating his debut. This time we can meet his early works and hit works.

Ticket : VIP 80,000Won · 60,000Won · 50,000Won · 30,000Won

More Information : 1588-4430

10th Anniversary Concert by Ilpa Gayageum Ensemble

14th(Thu) 7:30p.m. Guemjeong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It is 10 years since Ilpa Gayageum Ensemble has been established in April, 1994. They have tried to inform public of the attraction of Korean music. During the time, they had diverse chances to perform their own music through the 8 times subscription concerts, visiting concerts and others.

Ticket : Free

More Information : 582-9119, 017-544-5505

2006 Traditional Music Festival

16th(Sat) 7:00p.m. Busan Citizen Center Main Theater

We can meet various Korean traditional music genres such as Pansori, Traditional songs, and Korean dances.

Ticket : Adult 10,000Won · Student 5,000Won

More Information : 644-5211, 418-3399

Calling for Love, Gala concert by Bolshi Opera Theater

20th(Wed) 7:30p.m. Busan Citizen Center Main Theater

Bolshi Opera Theater is famous for giving birth to many greatest artists in Rus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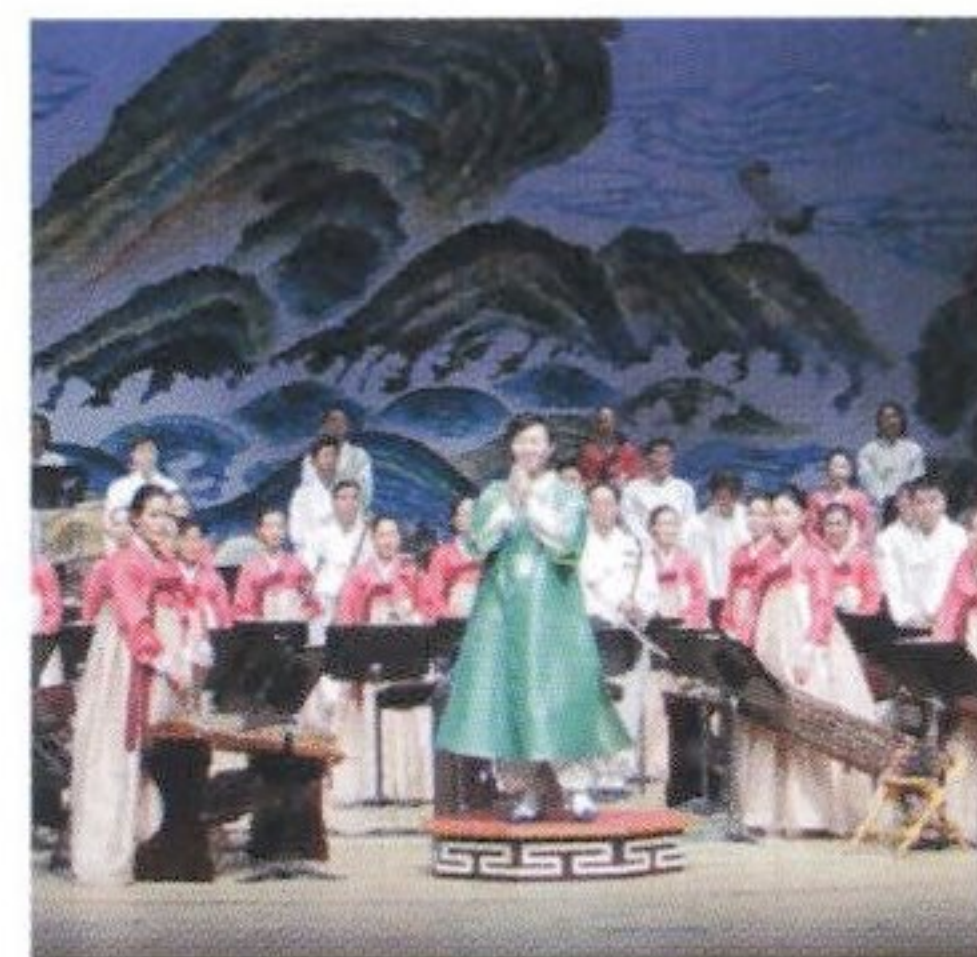
This concert is featured by its main opera singers including Son Seongrae from Korea. They are offering familiar and highlighting arias from classic opera.

More Information : 627-3232

The 4th Busan Creative Traditional Orchestra Music Festival 2006

27th(Wed) ~ 29th(Fri)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It is the fourth festival to activate and popularize the creative Traditional Orchestral Music.



This year, it is featured by characteristic regional music by Ansan Orchestra for Gyeonggi, Jeonju Orchestra for Jeonra province, Jinju Orchestra for Kyeongsang province, and Busan Traditional Orchestra. They are offering fresh and new creative traditional music festival.

■ 27th(Wed) p.m. 7:30

· Conductor/Lee Jeongpill

· Orchestra/Jinju City Traditional Art Group,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 28th(Thu) p.m. 7:30

· Conductor/Kim Jaeyoung

· Orchestra/Ansan City Traditional Music Orchestra,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 29th(Fri) p.m.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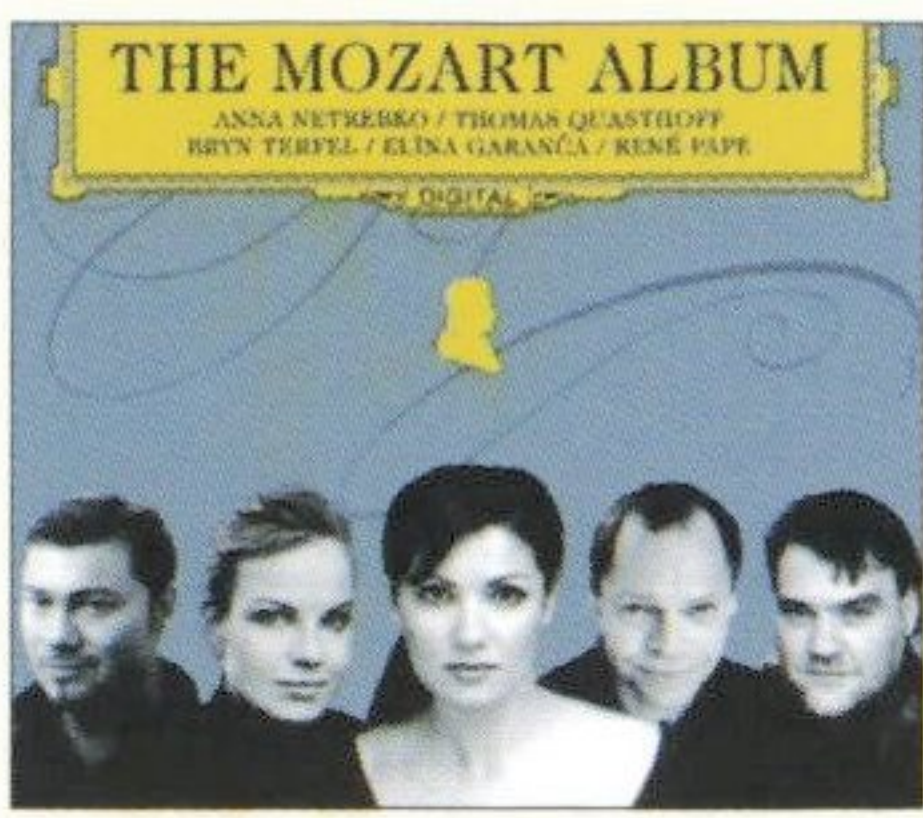
· Conductor/Shin Yongmoon

· Orchestra/Jeonju City Traditional Music Orchestra,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Ticket : Free

More Information : 607-6110, 607-6070

The Mozart Album(DG7168)



모차르트 / 유명 오페라 아리아 모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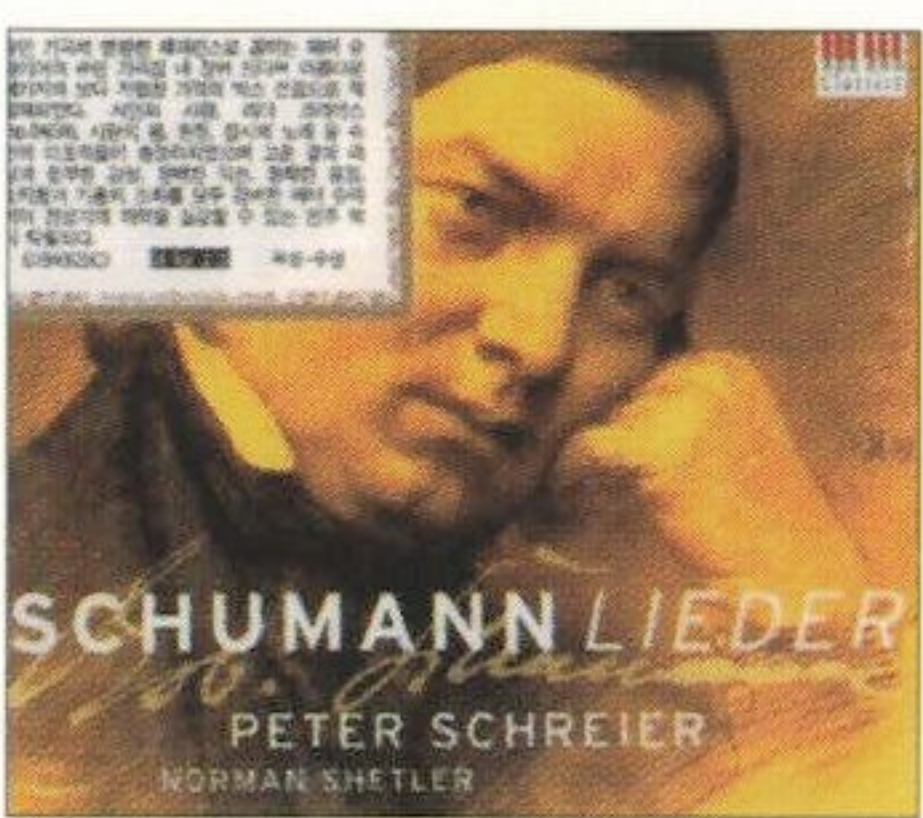
Anna Netrebko, etc. (안나 네트레브코 외)

위대한 작곡가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 2006년 세계적인 명성의 성악가들이 부른 모차르트 오페라의 결정판으로 세계적인 명성의 성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러시아 출신의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브코와 토마스 크바스토프, 브린 터펠, 엘리나 가랑카, 르네 파페가 선보이는 오페라 최고의 아리아집으로 돈 조반니,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코지 판 투테 등 모차르트 대표 오페라의 아리아와 듀엣곡 등 총 13곡이 수록되어있다.

- 클라우디오 아바도 지휘의 모차르트 오케스트라와 말러 챔버 오케스트라
- 찰스 맥커라스 경이 지휘하는 스코틀랜드 챔버 오케스트라
- 제바스티안 바이클레의 드레스덴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

페터 슈라이어가 부르는 슈만 가곡집(4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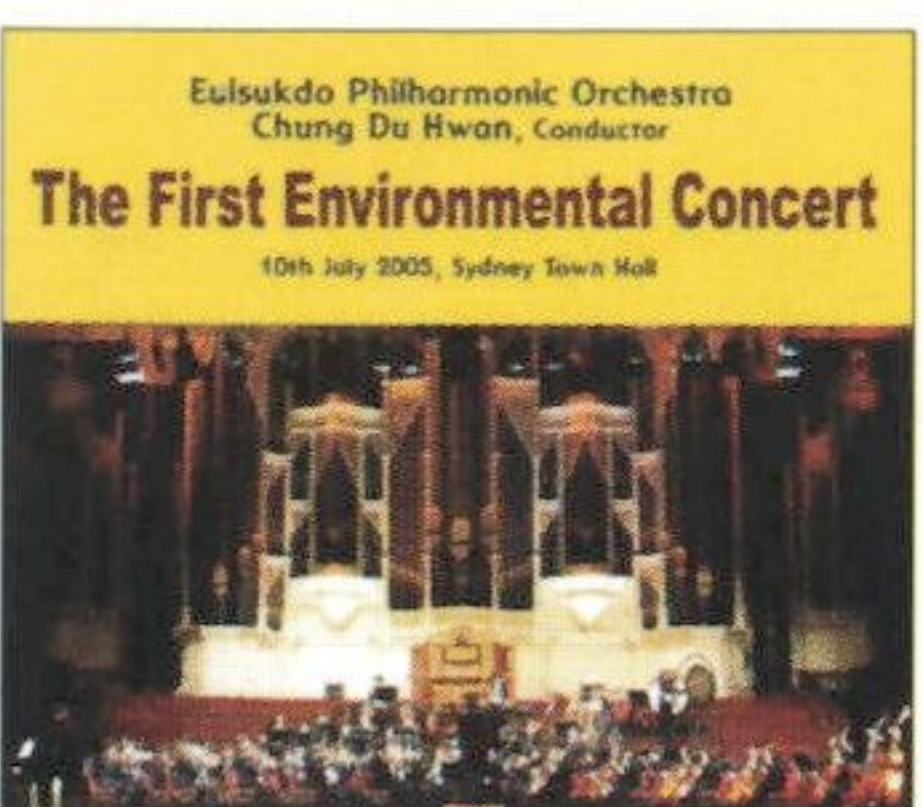
슈만 가곡의 영원한 레퍼런스로 꼽히는 페터 슈라이어(Peter Schreier)의 슈만 가곡집 네 장이 드디어 아름다운 패키지와 보다 저렴한 가격의 박스 선집으로 재발매되었다.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테너중 한사람인 페터 슈라이어는 독일가곡의 위대함을 진정으로 전해준 최후의 가수로 불린다. 베를린국립오페라극장, 빈국립오페라극장, 메트로폴리탄오페라극장, 밀라노스칼라극장 등 세계 무대에 차례로 등장하여 당대의 대지휘자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으며 세계적인 테너가수의 반열에 올랐다.

이 음반에는 시인의 사랑, 리더 크라이스(op.24/39), 사랑의 봄, 헌정, 집시의 노래 등 슈만의 대표작들이 총망라되었으며 고운 결의 미성과 풍부한 감성, 완벽한 디션, 정확한 음정, 소박함과 기품의 조화를 모두 겸비한 페터 슈라이어 전성기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연주 역시 탁월하다.

- 수록곡/시인의 사랑 작품 48, 리더 크라이스 작품 24, 작품 39, 집시의 노래 작품 79, 작품 7, 8, 3개의 시 작품 30(이상한 뿔피리를 가진 아이, 시동, 스페인의 귀족), 사랑의 봄 작품 37, 미르테의 꽃 작품 25, 5개의 노래 작품 40, 12개의 시 작품 35, 6개의 시, 레퀴엠 작품 90

을숙도 교향악단 시드니 타운 홀 '해외 환경콘서트' 공연 기념음반



지난해 7월 한국과 호주의 대표적인 해양도시 부산과 시드니가 음악을 통해 환경보존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을숙도 교향악단 호주 시드니 타운 홀 '환경콘서트' 공연 기념음반이 출판되었다.

2005년 7월 10일 정두환이 지휘하는 을숙도 교향악단의 해외 환경콘서트 1주년을 맞아 출판된 이 음반은 시민자치 생태 예술단을 기치로 출발한 을숙도 교향악단의 공연실황음반이다. 음악평론가 김진묵은 '을숙도 오케스트라는 비명을 질러야 할 우리의 상황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이야기 한다'고 전하고 있다.

- 수록곡/비제 '카르멘 모음곡', 글린카 '루스란과 루드밀라' 서곡, 베버 '오페라의 유령' 서곡, 호주 민요 '춤추는 마틸다', 한국민요 '밀양아리랑', 최영섭 '그리운 금강산' 등

■ 비바체클래식 제공

화가의 집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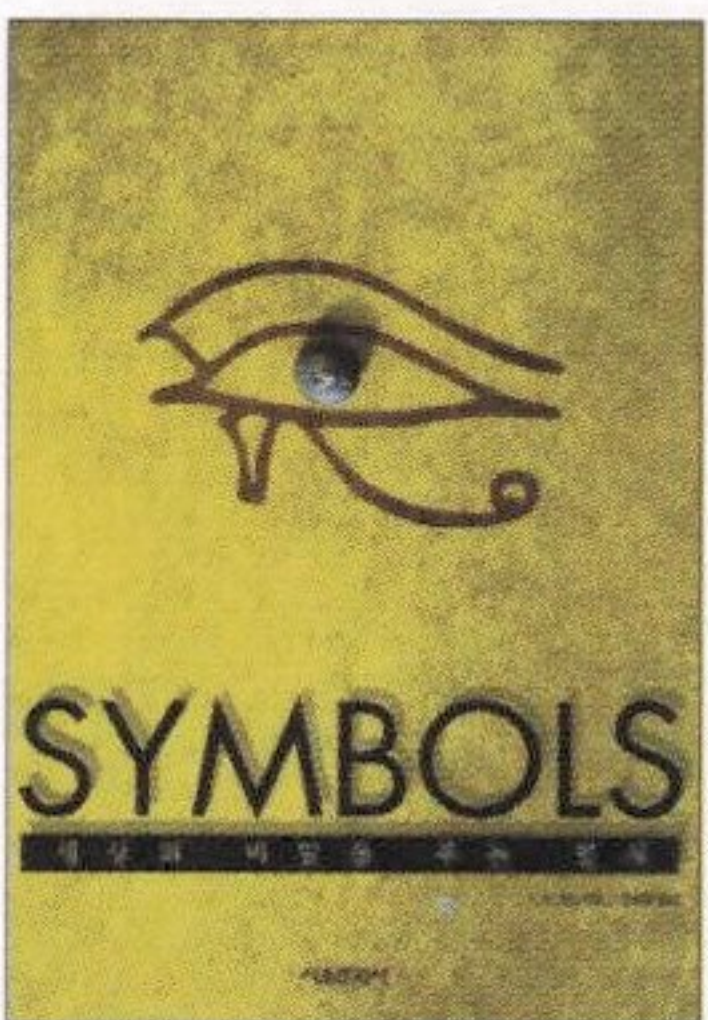
한젼마 지음 | 샘터 | 260p | 12,000원



〈그림 읽어 주는 여자〉를 펴내며 책제목이 그대로 이름 앞의 수식어가 되어버린 한젼마 씨가 5년 만의 신작을 들고 독자를 찾아왔다. 〈한젼마의 한반도 미술창고 뒤지기〉 시리즈를 3권 발간하게 될 예정인데 먼저 1권 〈화가의 집을 찾아서〉와 2권 〈그 산을 넘고 싶다〉를 선보인다. 5년 전부터 시작된 기획과 3년여의 취재 답사, 원고 탈고, 추가 취재 등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인 책이다. 〈그림 읽어 주는 여자〉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미술관련 방송활동이 많아지면서 저자는 참신한 이미지로 독자대중들에게 기억되었다. 미술계의 대중화의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후속 저서를 내자고 여러 차례 출간 제안을 한 끝에 출간된 책이라 독자들이 무척 반가워하겠다. 이번에 펴낸 두 권은 김기창, 장욱진, 김환기, 유영국 등 총 20명의 작고한 우리나라 근현대 화가들을 주 활동지별로 구분해 그들의 미술세계와 작품 성향을 맛깔나게 풀어낸 미술기행 에세이. 화가의 생가, 기념관, 묘지까지 직접 답사하여 독자들이 화가의 삶을 이해하고, 나아가 작품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한젼마의 안내를 받아 한국 근현대미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자.

SYMBOLS - 세상의 비밀을 푸는 열쇠

T.A. 켄너 지음, 윤상운 옮김 | 서울문화사 | 160p | 13,500원



현대사회 곳곳에 스며든 상징들을 6개 주제로 나눠 소개하는 책. 영국의 저명한 상징 전문가이며 비교문화론 전공한 T. A. 켄너의 저서이다. 저자는 오랜 기간 상징주의와 밀교에 대한 연구와 집필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예술, 디자인, 광고와 심리학과와의 관계 등 다방면에 걸쳐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는 색깔과 숫자를 다룬 기초상징, 산이나 강 등 자연환경, 다양한 미술작품, 건축, 권력, 정체성, 표지, 종교와 신화 등이다. 인류는 역사를 꾸러오면서 숭한 상징들을 만들어냈다. 상징은 말로 표현하지 않는 또 다른 언어이다. 문화권이나 특정 집단, 종교 등에는 독특한 상징들이 있다. 특정한 상징 속에 담긴 '침묵의 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해의 폭이 좁아진다. 그러나 그들만의 상징, 한 개인이 숨겨놓은 기호는 쉽게 파악되지 않아 숭한 해석을 낳고, 그래서 더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기초상징편을 보면 빨간색은 길한 색(중국), 마법의 색(아프리카), 순결의 색(인도) 등으로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의 문화공간(전4권)

이종묵 지음 | 휴머니스트 | 540p | 23,000원



조선초기에서 후기까지 시대 순으로 문학, 사상, 예술, 풍류를 아우른 조선의 사람과 땅, 그 시대의 문화공간에 대한 이야기. '조선시대 문인의 땅과 삶에 대한 문화사'라는 부제를 달고 있으며, 모두 4권으로 구성하였다. 1권 〈조선초기-태평성세와 그 균열〉은 조선 개국 후 태평을 구가하던 시절에서부터 사회로 인하여 사림이 유배를 떠나는 시기까지를 다룬다. 도성에 끌어들인 산수와 한강변의 누정을 살피고, 유배지에 이어 강학의 공간 독서당을 살핀다. 2권 〈조선중기-귀거래와 안분〉은 선조대에서 광해군대까지 우리 문화사에서 중요한 인물과 관련한 공간을 다루었다. 사림정치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자의와 타의에 의한 귀거래, 그리고 그곳에서 수양에 힘쓰거나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 3권 〈조선중기-나아감과 물러남〉은 광해군과 인조대에 영욕의 세월을 산 문인과 이후 17세기 사상계와 문화계를 호령한 명인들이 살던 땅을 펼쳐 보인다. 4권 〈조선후기-내가 좋아 사는 삶〉은 18-19세기 문학과 학문, 예술을 빛낸 문인들의 이야기다. 궁벽한 땅에서도 예술혼을 사른 사람들과 세상을 구하고자 노력한 실학자들을 만날 수 있다.

■ 박현주 / 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중남미 순회 공연을 다녀와서...

서정숙 · 부산시립무용단 총무



도미니카 국립극장



에콰도르 수크레 국립극장

부산시립무용단이 우리 문화를 대표해 중남미 3개국 공연길에 올랐다.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는 그들에게 우리 문화를 보여준다는 기대와 설렘은 공연을 준비하는 내내 나를 들뜨게 했다.

7월 24일 월요일 오전 5시50분(한국시간) 우리는 김해공항 국내선에 집결을 하고 7시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이동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11시 비행기로 총 13시간 40분간의 기내생활(?) 후에야 뉴욕에 도착했다. 4시35분(현지시간)에 산토 도밍고행 비행기를 타고 오후 8시 24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도착했다. 그리고 다시 버스를 50여분간을 타고서야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정말 먼 거리를 날아와 지칠 대로 지쳤지만 내일부터 시작될 공연 준비물인 소품과 의상을 꺼내 다림질을 하기 시작해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준비를 마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이번 공연에도 느낀 것이지만 외국공연 시에는 소품이나 의상을 관리해주는 도우미가 2~3명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든다. 무용수들이 여독과 공연준비에 지쳐 본공연에 제대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미니카 공화국이 내려 보이는 카브리해의 정경은 문화 사절단이 아닌 한사람의 여행자였으면 하는 나른함을 꿈꾸기도 했지만 도미니카 땅을 밟는 순간 문화사절단이라는 묵직한 책임감이 다시 어깨에 내려앉았다. 처음 공연을 준비하며 우리 춤의 전통미나 정서가 얼마나 그들의 가슴에 남길 수 있을지 걱정이 컸다.

흰색 대리석의 에스파니아풍 건물들이 태양의 그늘을 조금씩 만들즈음에 우리는 공연장으로 이동했다. 가는 도중에 이름모를 거대한 옛 건물에 새겨진 바로크 문양들이 신의 초월적 정신

들을 이끄는 듯한 이런 땅에서 그들 에스파나인들은 무엇을 꿈꾸고 이루려 했을까?

콜롬비아 혼혈과 인디오의 무표정한 삶과 정열, 그들의 빈부차를 신문과 방송에서 간혹 보고 했지만 그들의 맑은 눈동자와 인디오들의 모자,形形色색으로 장식된 전통옷, 그리고 엄숙함이 느껴지는 건물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신들을 찾는 순례자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풍부한 영혼의 에너지가 느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에게서는 물질의 빈곤과 살아 숨쉬는 풍부한 영혼이 함께 공존한다. 공연이 아닌 여행자로 이 나라를 찾았다면 옆에 다가 이들의 웃음과 마주하며 조금은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켰으리라.



콜롬비아 호르헤 이삭스극장

순회국가 중 도미니카는 대통령의 방한직후 공연이 개최되었으며 대통령이 주요 정부인사들을 대거 동반하여 공연을 직접 관람하는 등 양국간의 우호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에콰도르에서는 현지 언론과 방송인 초청 관람으로 현지 언론 방송의 관심이 컸다. 순회공연을 간 각 나라마다 대사관측에서는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우리 예술인들의 높은 예술적 기량을 주재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현지 교민들은 한국의 상품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문화예술활동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점을 비치우며 부산시립무용단 공연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동하는 공항마다 각 대사들이 나와서 직접 배웅까지 해주셨다. 그 먼나라에서도 뿌리내린 교민들의 성실함과 인내는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하였다. 그리움을 나누는 것이 이번만이 아니길 약속하고 돌아서는 발길이 가볍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문화란 무엇인가? 우리의 정신과 정서속에서 유행하는 에너지가 아닌가하는 조금은 철학적인 생각들을 해본다.

중남미를 수놓은 한국춤사위에 박수 갈채 부산시립무용단 중남미 공연 대성황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하는 '2006년 중남미 - 도미니카,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순회공연'에 오른 부산시립무용단이 한국의 우수한 전통무용을 중남미 국가에 알려 우리 교민은 물론 현지인들게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14박 15일간의 일정으로 중남미 순회 공연길에 올랐던 부산시립무용단은 그동안 교류가 드물었던 국가에서 우리의 공연을 펼침으로써 세계 속의 한국 전통 무용단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을 떨치게 되었다.

특히 부산시립무용단의 중남미 공연은 7월 26일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공연을 시작으로 콜롬비아 칼리 공연, 에쿠아도르 공화국 귀토 공연, 에쿠아도르 공화국 과야킬 공연 객석 점유율이 평균 100%를 기록하고 전회 기립박수를 받음으로써 현지 언론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가족과 함께 공연을 감상한 Leonel Fernandez 도미니카 대통령은 "대단한 공연이었으며 한국문화의 진수를 보여주었다"며 이번 공연으로 한-도미니카 양국간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시립무용단 수석 안무자 흥기태는 "그동안 지리적인 이유 등으로 실질적인 문화교류가 많지 않았던 중남미지역에서 한국의 전통무용을 소개함으로써 현지 국민들에게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공연의 의미를 되새겼다.

제20회 부산합창제 참가신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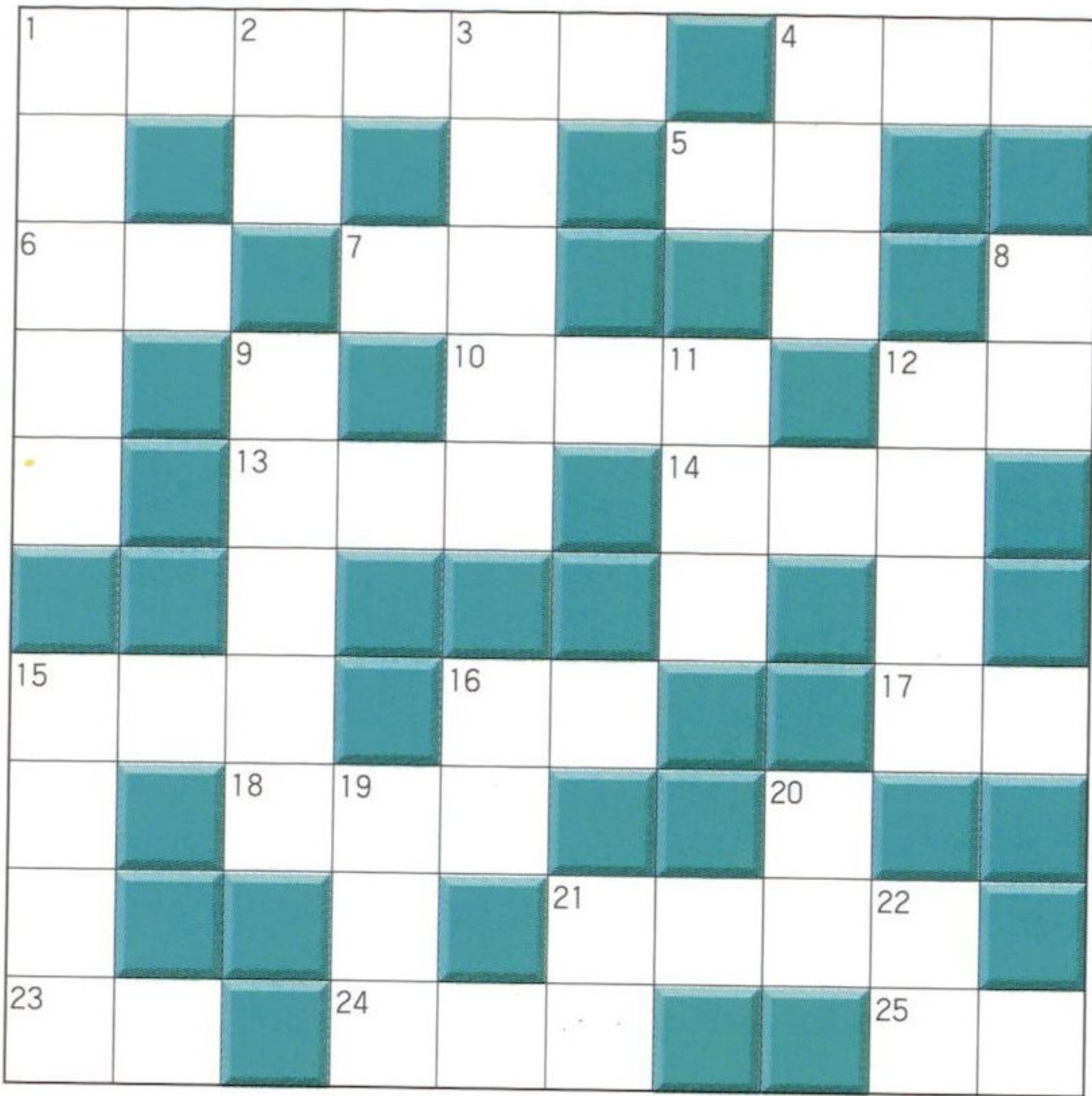
■ 공연개요

- 공연일시 및 장소 : 10월 25일(수)~28일(토) 4일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참가신청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기간 : 9월 11일(월)~15일(금) 5일간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장소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부산문화회관 관리동 2층)
- 참가신청 자격 : 부산합창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 문의 :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14. 군대가 행진하거나 개선탄을 때, 임금이 성문을 나갈 때 등에 연주하던 음악.
15. 주로 극지방에서 초고층 대기중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발광현상. 북광(北光).
16. 1979년 제작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 토마스 하디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남자에게 버림받은 시골처녀의 불우한 삶을 그린 작품.
17. 천(千)의 옛말.
18. 단조(短調)
21. 발레를 하는 남자무용수.
23. 가장 대중화된 현악기로, 왼쪽 손가락으로 줄을 눌러 음정을 고르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줄을 튕겨 연주한다.
24. W.스콧의 소설 '람메르무어의 신부'를 원작으로 작곡된 도니제티의 오페라 여주인공.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세력다툼에 희생된 연인의 비극을 그린 작품이다.
25. 천체가 그 자신의 무게중심을 지나는 회전축 주위를 회전하는 운동.

세로문제

1. 헝가리의 수도.
2. 개인이 타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 나라 또는 체재중인 나라에 있는 그 나라 대사, 공사, 영사로부터 여권의 검사를 받고 서명을 받는 일.
3.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김광림 극본의 연극.
4. 여름의 금강산을 이르는 말.
8. 판매한 물건 가운데 이상이 있는 것을 회수하는 일.
9. 한 사람의 배우가 모든 배역을 혼자 맡아 하는 연극.
11. 별다른 외부적 사건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서술된 버지니아 울프의 장편소설.
12. 조지 루카스가 감독한 공상과학영화의 대표작. 1977년 첫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2005년까지 총 6편의 에피소드가 상영됐다.
15. 제주도의 대표적인 민요. 서울에도 전파되어 '오돌독'이라는 이름으로 사설을 달리해 많이 불리어졌다.
16. 남성의 가장 높은 음역.
19. 얼음과 눈덩어리로 둥글게 만든 에스키모의 집.
20.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힌두교성인 여성들이 허리와 어깨를 감고 남는 천으로 머리를 싸는 무명천.
21. 싹을 틔움.
22. 중국 고대의 철학자, 도가 사상의 창시자.

가로문제

1. 부산청년비엔날레, 바다미술제, 부산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을 통합한 부산에서 열리는 격년제 미술제. 오는 9월 16일 개막하여 11월 25까지 부산시립미술관, 해운대해수욕장 등지에서 펼쳐진다.
4. 한국영화 사상 최단기간 1천만 관객돌파 기록을 세운 영화 '괴물'의 감독.
5. 수중생활에 적응된 포유류로 전세계 100여종이 있으나 대부분 멸종위기에 처하여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6. 잉카제국의 중심지로, 1821년 스페인에서 독립한 나라. 수도는 리마.
7. 10번 미완성 교향곡까지 포함 총 10곡의 교향곡과 관현악곡 '대지의 노래', 가곡 '한탄의 노래' '젊은 나그네의 노래' 등을 작곡한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겸 지휘자.
10. 1939년 발표된 시인 김광균의 첫 번째 시집으로, 한국 모더니즘 시운동의 대표적 시집으로 평가받는다.
12. 열대지방에서 대류에 의하여 나타나는 세찬 소나기.
13. 일을 즐겁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여서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

지난호 정답

거문고	사라사테	가
창수	트너바나	나
국레미제	라블리	이
제기안	비킹	콩
연맘마미아	몽트	트
극본	타이타닉	닉
제아호	주슈	슈
성연개소문	튜바	바
삼국지	인	이
가재기	문화바우처	처

- **큰집 식사권**
김지선(사하구 신평동) 정연주(영도구 창학동) 오계자(남구 용호2동) 손경은(연제구 연산9동) 신인혜(해운대구 우2동)
- **산마루곰터(구 돈방불패)**
이영수(부산진구 전포1동) 김영아(남구 문현3동) 박경희(사상구 모리2동) 이순애(남구 대연5동) 전선혜(동래구 온천1동)
- **가마골소극장 초대권**
이동주(해운대구 재송1동) 이후용(남구 문현동) 이현아(사하구 장림1동) 이귀남(부산진구 부전동) 송영진(중구 중앙동 3가)
- **동보서적 도서교환권**
김재엽(금정구 장전1동) 손미나(부산진구 가야2동) 이주화(부산진구 가야동) 노승환(금정구 장전 1동) 조계혜(부산진구 개금3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시 담당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더욱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산마루 곰터

- **짬갈비**
- 삼계탕, 돌솥비빔밥
- 30초 완성 참숯판구이 삼겹

UN로타리 문화회관 영빈관 앞 **예약문의: 611-4040**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9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8월 정기회원 테마여행을 다녀와서

기장 소름요 도예체험 및 수산과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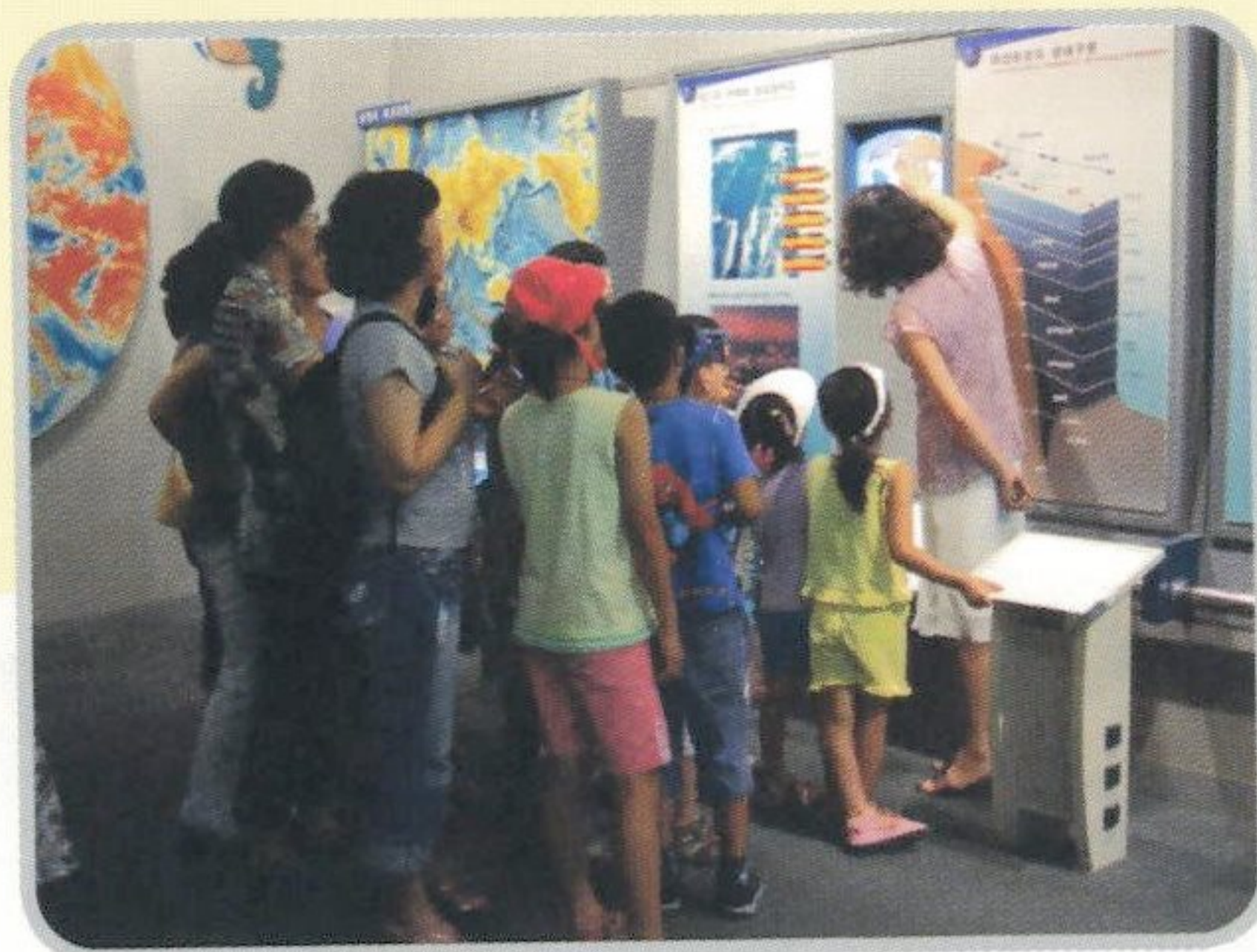
8월의 열기가 뜨거운 날씨,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들이 선택한 곳은 기장 소름요. 오전 9시, 부산문화회관을 떠나 기장으로 이르는 길은 더위와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회원들의 상기된 표정이 역력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40명이 도착한 곳은 기장 죽성리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소름요. 소름요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재현하고 있는 기장도예가 협회 송중환선생의 작업실이다. 소름은 작은 뒤주, 작은 가난을 뜻하는 송중환 선생의 호를 딴 이름이다.

일행보다 일찍 도착한 부산시립교향악단 이상진, 윤강희, 홍영선, 김상철 단원이 회원들을 반기며 체험장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어주었다. 회원들은 물론 어머니를 따라 나선 학생들은 무대위에서 멀게만 느껴지던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연주를 가깝게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큰 즐거움이라며 탄성이 끊이지 않았다.

음악회 후 도자기는 단순히 흙을 만지는 작업이 아니라 '혼을 심는 작업'이라는 송중환 선생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2시간 동안의 도예 수업이 진행되었다. 정성스럽게 말아올린 흙이 컵, 연필 꽃이, 그릇으로 변신하는 동안 회원들의 모습은 어느때 보다 진지해보였다. 다른 체험장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물레 체험을 직접 해보며 덤으로 기념 촬영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소름요에서의 더위를 말끔히 씻어준 수산과학관에서는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나라의 귀중한 수산 자원에 대해 배워나가는 재미가 톡톡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 마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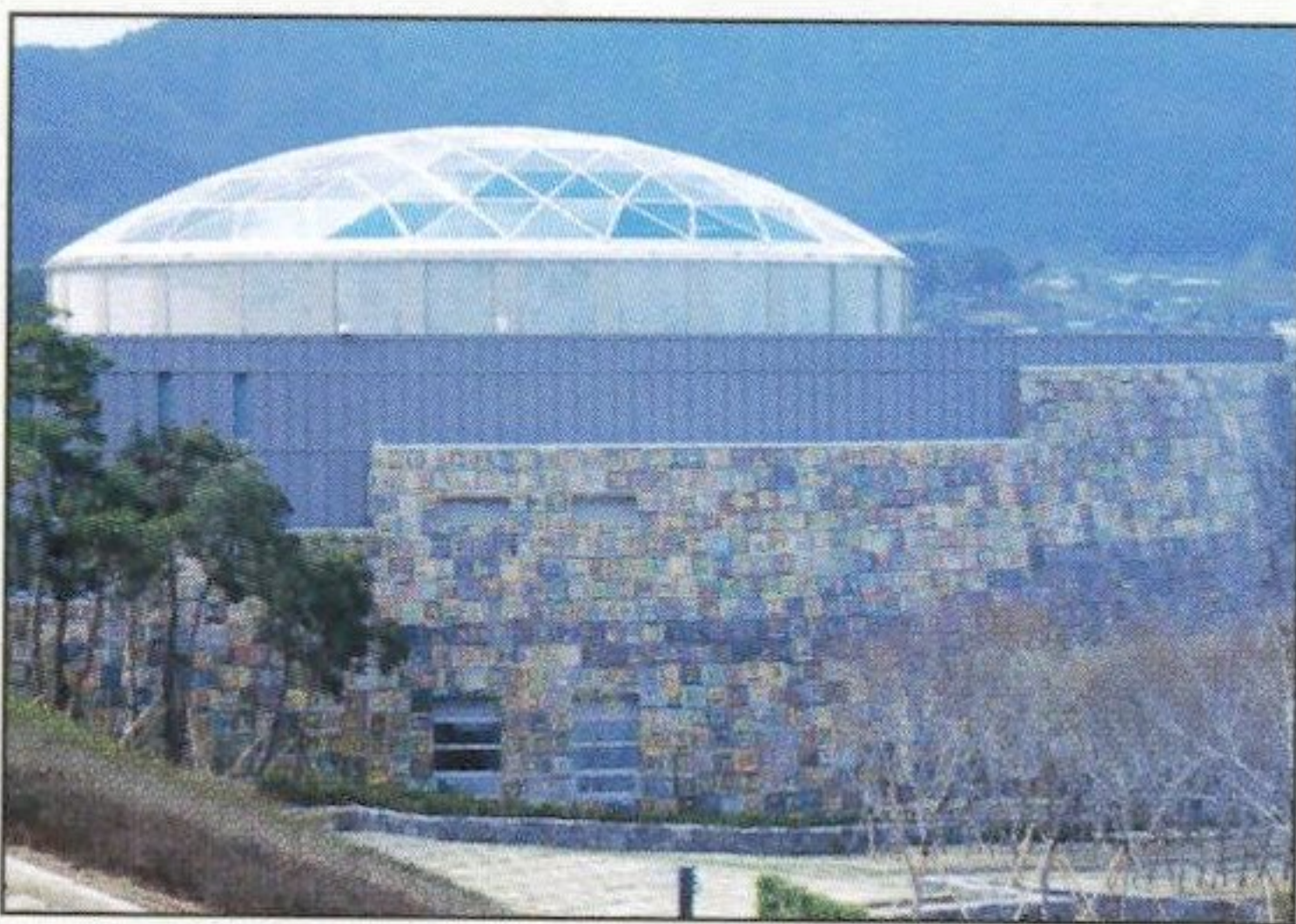
일탈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10월 13일(금) 경주문화와 탁본체험

천년 고도 경주를 되돌아보고 탁본체험을 통해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이해하는 문화체험.

-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도착, 경주 박물관 관람
- 12:00 중식
- 13:00 대릉원 관람
- 14:00 탁본체험
- (※ 체험비 10,000원)



▶ 11월 10일(금)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및 단감따기체험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을 견학하고 11월 수확물인 단감따기 및 떡매치기, 전통놀이를 할 수 있는 체험.

- 09: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30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람
- 12:30 무척산관광농원 도착(중식)
- 13:00 떡매치기 및 단감 수확체험 외
- 15:30 무척산관광농원 출발
- (※ 체험비 10,000원)

※ 테마여행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9월 당첨자

▶ 9월 8일(금) 허브힐즈에서 즐기는 허브체험



■ 신규가입 당첨자 명단(10명)

최인수(남구 용호동)
박선행(사상구 주례2동)
김귀주(연제구 연산9동)
노윤정(남구 대연4동)
이승경(남구 우암2동)
이다영(동래구 온천3동)
김보희(해운대구 좌동)
박유경(해운대구 좌동)
정정숙(해운대구 우1동)
윤경옥(김해시 흥동)

■ 기존가입 당첨자(엽서) 명단(10명)

최경자(수영구 망미2동)
배은희(해운대구 좌동)
김미정(금정구 부곡1동)
김재환(남구 용호동)
신현숙(사상구 덕포2동)
이심순(남구 대연동)
김순배(중구 대청동1가)
김경란(연제구 거제3동)
김태기(해운대구 우동)
김봉선(사상구 모라2동)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클래식 으로 듣는 가을의 소리



지휘 · 곽승



바이올린 · 데니스 김

2006. 9. 14(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협찬 ForAD [주]포에드 | 동양광고대행사

■ 연주곡목

- 모차르트 - 「극장 지배인」 서곡 작품486
- 베토벤 -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61
- 브람스 - 대학축전 서곡 다단조 작품80
- 레스피기 - 교향시 「로마의 소나무」 작품141

■ 공연문의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www.bsCulture.busan.kr 607-6070
-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 www.busanphil.com 607-6101~4

■ 입장권 /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청심꽃조경앞(대연지하철역 5번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 100M 지점) → 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

■ 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 www.ticket365.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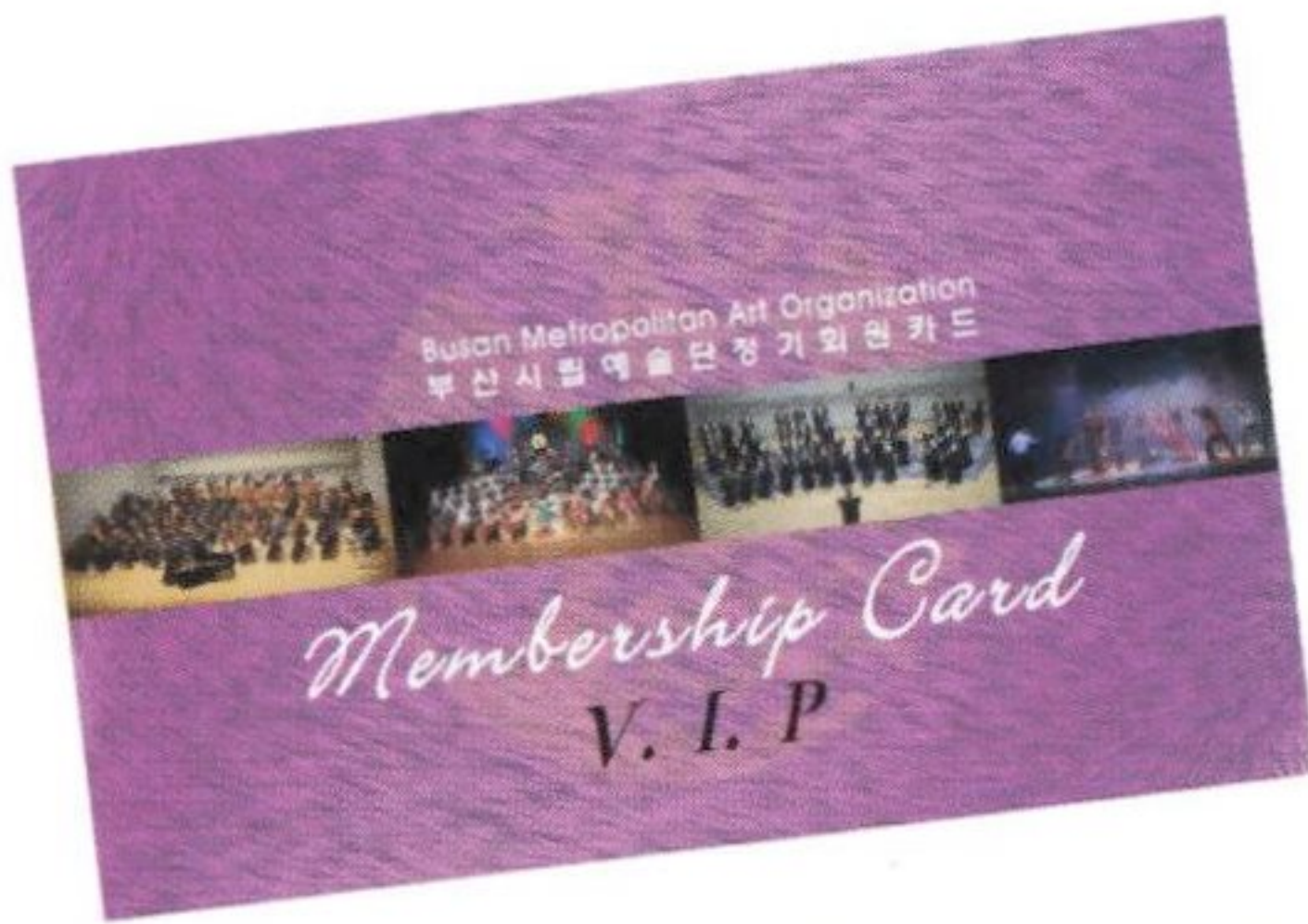
금 정/ 신나라레코드 부산대점 (부산대 앞 518-0686)
 해운대/ 해운대약국 (해운대시장 입구 752-0100)
 남포동/ 문우당서점 (버스정류소 앞 245-3843)
 서 면/ 영광도서 (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골든 악기사 (부산예고 앞 512-4295)
 비바체 클래식 (선프라자 1층 743-0003)
 남포문고 (호림빌딩 1층 245-8911~3)
 동보서적 (제일은행 옆 803-8000)

대연동/ 면학도서 (경성대 앞 623-9404)
 하 단/ 향학서점 (동아대 입구 204-9381)
 덕천동/ 대한도서 (덕천교차로 332-7339)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권을 구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화로 공연 예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시내 전 공연장의 정보와 문화예술계의 동향 등을 담은 '예술에의 초대' 월간지를 매달 무료로 발송해 드리며, 부산시립예술단에서 마련하는 모든 무료 공연에 최우선으로 초대합니다.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 단체의 공연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주최측과 협의된 공연에 한함).
-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특별기획공연 입장료를 20~50% 할인해 드립니다.
- 50명 이상 단체 가입시는 가입 총액의 10%가 할인되어 관람료가 더욱 저렴합니다.
- 청소년 푸른회원은 20%, 장애인(1~3급)·경로우대·국가유공자 사랑회원은 가입회비가 50% 할인되어 더욱 저렴합니다.

정기회원가입회비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에서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교통편

버 스 : 25, 51, 51-1, 68, 93, 134

지하철 : 대연동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도보 15분 거리

■ 셔틀버스운행

출 발 지 : 청심꽃조경 앞(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100m 지점)

출발시간 : 월~금요일 오후 7시(무료)



매주 월요일

부산에서 바로 떠나는 **홍콩** / **마카오** 자유여행



홍콩/마카오 에어텔 5일

₩ 399,000 (홍콩 1박/마카오 2박)

₩ 419,000 (홍콩 2박/마카오 1박)

■ 홍콩/마카오 왕복항공권 ₩250,000 ~ (tax 별도)

- 포함사항 | 부산-마카오간 항공료, 4성급호텔(2인 1실), 호텔조식
※ 홍콩, 마카오 자유 & 배낭여행 책자 제공
- 별도사항 | 부산, 마카오 공항세(TAX:₩45,000), 유류할증료 (왕복 45\$)
- 추천일정

제 1 일	06:50	김해공항 미팅
	08:20	김해공항 출발
	10:55	마카오 도착
		페리 터미널 이동 후 홍콩 이동(1시간 소요)
제 2 일	전 일	1. 홍콩 데이투어
제 3 일		▷ 빅토리아파크, 리펄스베이, 오션파크, 야시장 등 시내관광
제 4 일		▷ 침사추이, 몽콕야시장 등 쇼핑관광
		▷ 홍콩 디즈니랜드 관광
		2. 심천 데이투어
		▷ 소수민족쇼 및 대형문화 유람지 관광
		3. 마카오 드라마 '궁' 촬영지 데이투어
		▷ 와인 & 그랑프리박물관, 세나도광장, 세계적인 카지노관광 등
제 5 일	02:55	마카오 출발 / 부산항발
	07:10	부산 도착

• 자유여행 및 항공권 문의 : 김대곤(010-7730-3747)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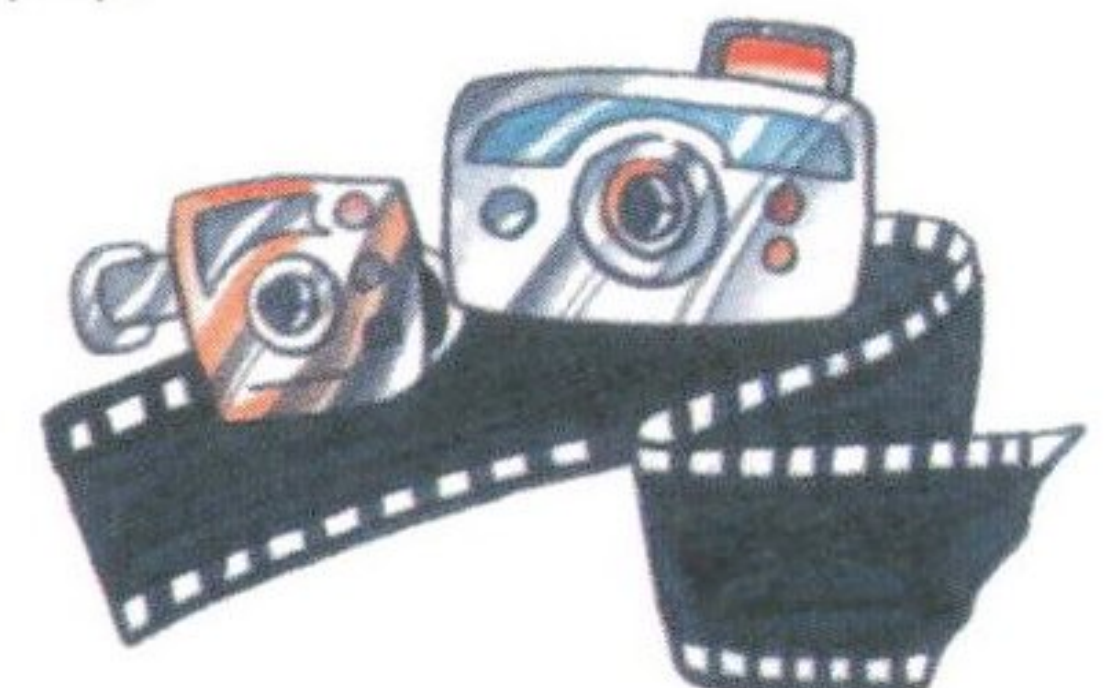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연장 신사, 숙녀

- ◇ 입장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좌석번호를 확인하여 앉습니다.
- ◇ 공연 중에 지정좌석을 찾으실 때는 뒤에서 기다리거나 빈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한 곡이 끝나면 조용히 자리를 찾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발소리, 기침소리, 부스럭대는 소리, 수근거리는 소리까지도 옆사람에게 방해가 되니 조심합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신발을 벗거나 무릎 위에 발을 올리지 않습니다.
- ◇ 남의 앞을 지날 때는 몸을 숙여 남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 연주중에는 들락날락하거나 뛰어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 옷차림은 가능한 정장이나, 양전한 복장을 합니다.
- ◇ 껌을 씹거나, 음료수·음식물 등을 반입하여 드시면 안됩니다.
- ◇ 휴대폰, 호출기 등 소리나는 물건은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입장합니다.
- ◇ 공연시작 5분전까지는 입장하여 자리에 앉습니다.
- ◇ 냄새나는 음식을 드셨을 때는 옆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입을 씻고 입장합니다.
- ◇ 7세이하의 어린이는 공연장내에 동반하지 않습니다.(공연장 3층 어린이 놀이방 활용)
- ◇ 화환이나 꽃다발은 입장시 로비에 보관하셨다가 공연후 증정하도록 합니다.
- ◇ 앵콜 연주까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일어서거나 나가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 ◇ 공연장내 휴지나 인쇄물(프로그램, 좌석권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연주자의 연주에 방해가 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10%할인권
(1매 4인 사용가능)

상인개는
별난물건 박물관

대상 : 할인쿠폰 소지자 또는 예술단 정기회원카드 제시자
기간 : 12월 31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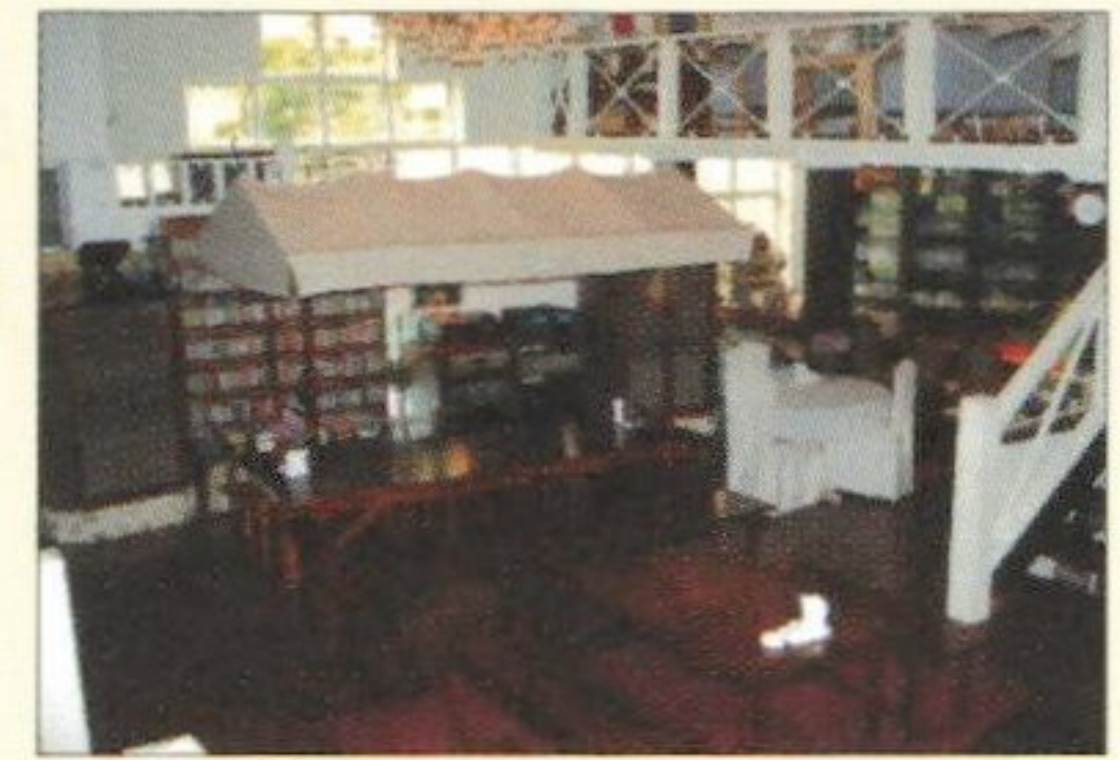
해운대 스펀지 3층 TEL:051-740-4858

Sinc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부산문화회관 KOREA 토요 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소극장

● 2일(토) 오후 4: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프로그램

수요남극(가야금/정세희, 오은영, 김혜련, 윤경선 · 거문고/이대하, 박용란, 엄애리, 박하혜 · 장구/이장우 · 양금/장미진)
피리독주 '박범훈 류 피리산조' (피리/박순자 · 장구/송강수)
시나위(대금/채수만 · 피리/김용우 · 해금/하지행 · 아쟁/홍영혜 · 가야금/송영남 · 거문고/강상호 · 장구/신문범 · 징/전학수)
가야금중주 민요메들리 '아리랑' '밀양아리랑' (18현/오은영, 옥경화 · 22현/이명일, 김혜련 · 장구/장미진)
사물놀이(꽝과리/이주현 · 장구/최오성 · 징/전학수 · 북/신문범)

● 9일(토) 오후 4:00 벨칸투스성악연구회 '성악가들이 펼치는 뮤지컬의 향연'

2005년 창단된 벨칸투스 성악연구회는 이태리어 벨(bel-아름답다)과 칸투스(Cantus-노래)를 합성시켜 지은 이름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기 위해 늘 연구하고, 노력하는 젊은 성악가들의 모임이다. 이번 무대는 '오페라의 유령', '갯츠', '사운드 오브 뮤직' 등 다양한 뮤지컬 작품의 주제가와 이중창, 합창곡을 연기와 분장과 무대의상 등의 연출을 통해 다채롭게 선보인다.

프로그램

· 아베마리아(SBS드라마 '천국의 계단' 삽입곡)
· A Love until the End of Time(세상 끝날 때까지의 사랑)
·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 Maria(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 나 가거든(뮤지컬 '명성왕후' 주제가)
· 도레미송, 에델바이스(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중) 등 수곡
※출연/이수정, 김태현, 김연주, 박수진, 이상욱, 이항덕, 이해강, 장은영, 황윤정, 계정협, 박훈, 안영중, 장진규, 최인철, 정효원

● 16일(토) 오후 4:00 정신혜무용단 전통춤공연 - 다섯 빛깔 우리춤

한국안무가페스티벌 동상, 제 27회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차상(문화관광부장관상), 제 10회 부산무용제 대상, 전국무용제 은상, 제 2회 전국 차세대 안무가전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고 우리춤의 전승, 보급에 힘쓰고 있는 정신혜가 이끄는 정신혜무용단의 우리춤 한마당.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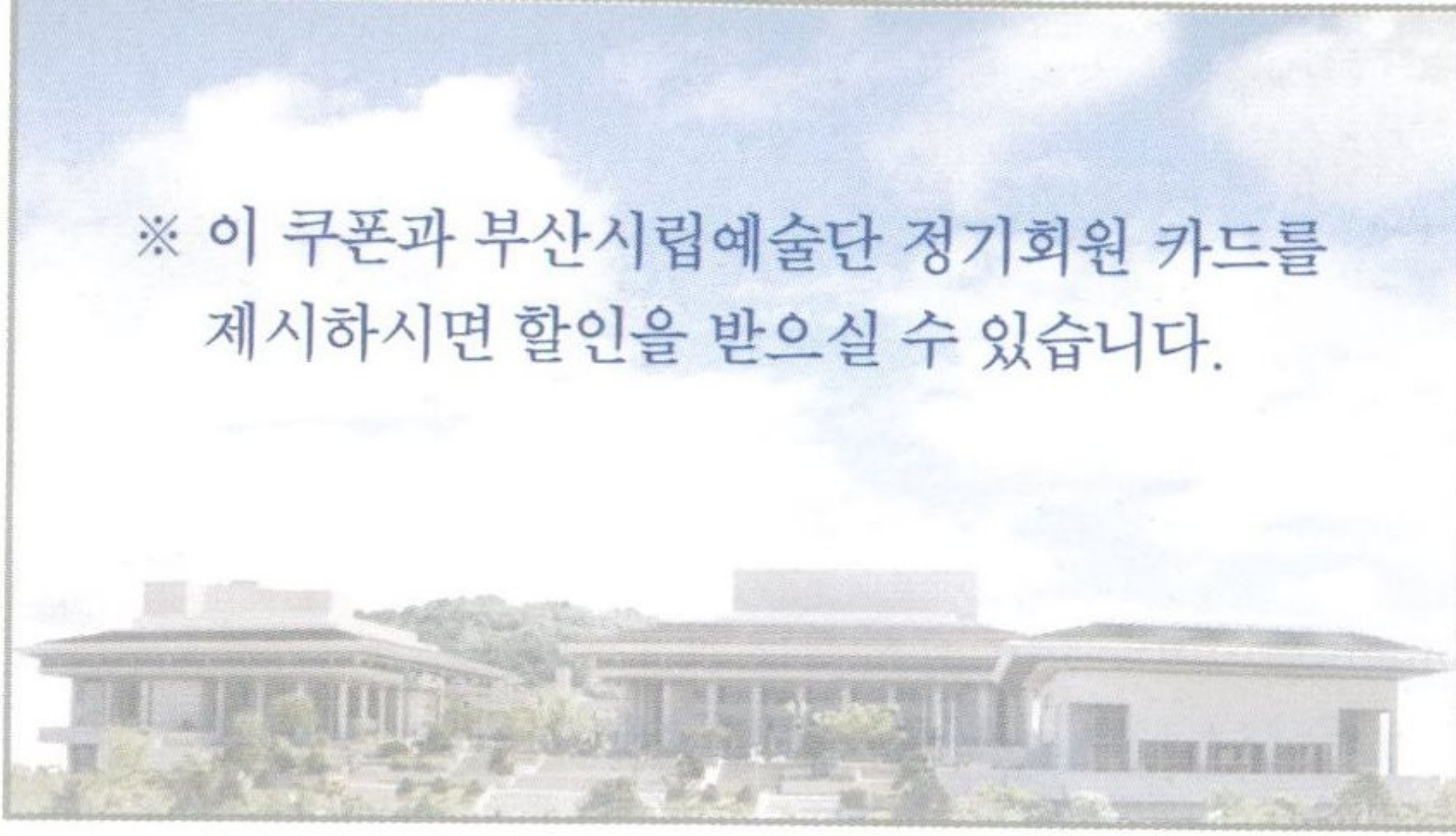
입춤(출연/구성심, 박혜경, 최지은, 류선화, 노연정, 이순지)
승무(출연/정신혜, 윤정미, 정숙희)
살풀이춤(출연/최지은, 류선화, 노연정)
검무(출연/정신혜)
소고춤(출연/윤정미, 구성심, 박혜경, 최지은, 류선화, 노연정, 이순지)

· 입장권 : 무료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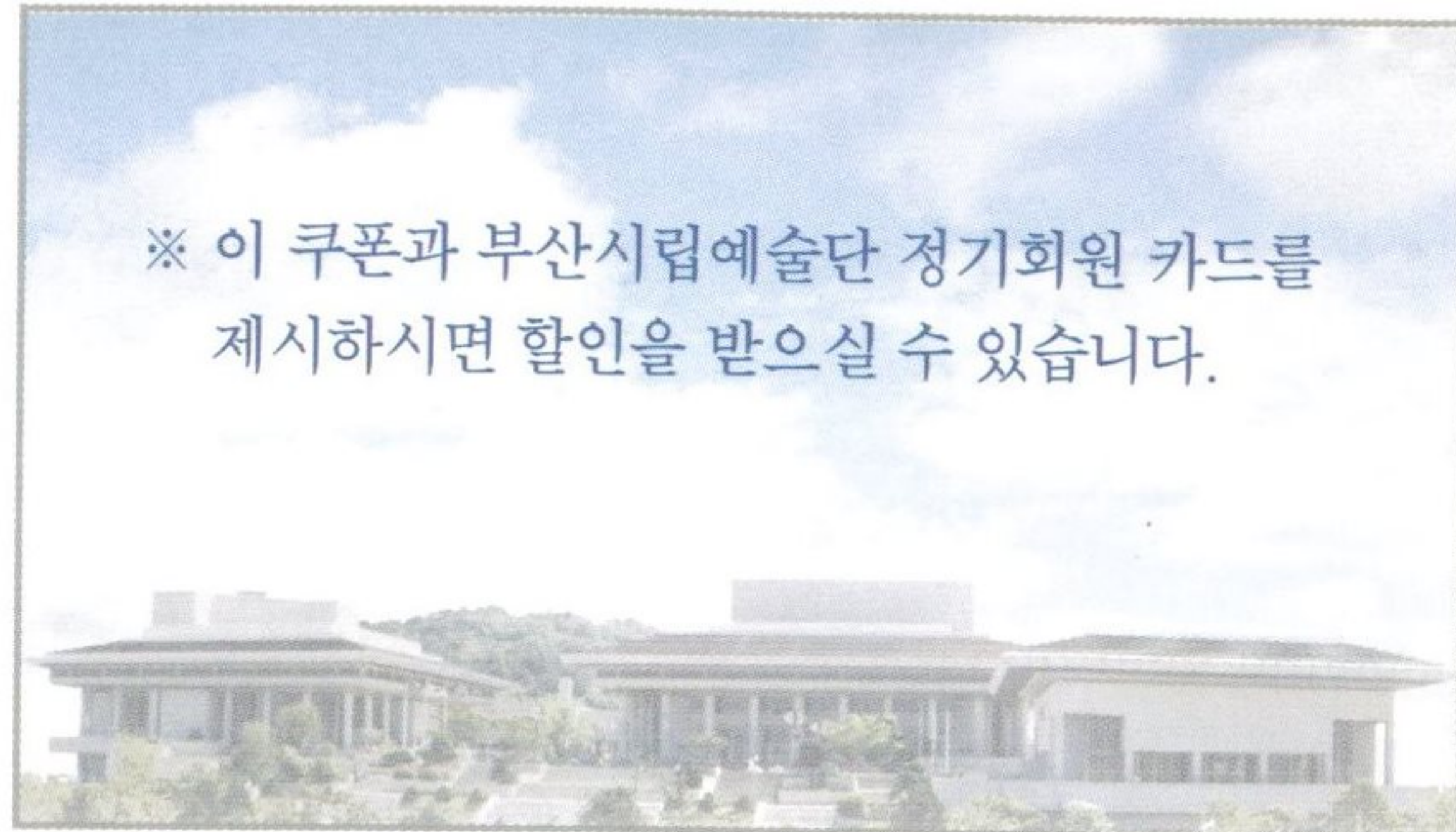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9월 23일(토)은 부산예술제, 9월 28일(토)은 6대광역시 및 제주도예술교류전 행사로 공연이 없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힙합뮤지컬 질풍

10% 할인



- ▶ 날짜 : 2006. 9. 22(금)~10.22(일)
- ▶ 시간 : 평일 7:30/토요일 4:30, 7:30/일요일 3:00, 6:00(월 공연없음)
- ▶ 장소 : 가마골 소극장
- ▶ 입장권 : 균일 20,000원
- ▶ 문의 및 예매 : 051-245-0042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이미 예매하신 분은 할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로미오를 사랑한 줄리엣의 하녀

10% 할인



- ▶ 날짜 : 2006. 8. 25(금)~9.17(일)
 - ▶ 시간 : 평일 7:30/토요일 4:30, 7:30/일요일 3:00, 6:00(월 공연없음)
 - ▶ 장소 : 가마골 소극장
 - ▶ 문의 및 예매 : 051-245-0042
- www.kamagol.co.kr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이미 예매하신 분은 할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월 테마여행을 응모합니다.

- 회원명
- 회원번호
(※ 마이비카드는 마이비숫자 10자리를 적어주시시오.)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 응모엽서는 9월 15일까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로 보내 주십시오.

퍼즐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 이번호에서 유익하거나 재미있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2007 상반기 부산문화회관 대관안내

● 대상 : 극장(대·중·소), 전시장(대·중)

● 대관내용

• 대관기간 : 2007년 1월~6월(6개월간)

※ 무대정비 점검으로 인한 대관 불가기간

대극장 : 1월 2일(화)~1월 8일(월) (5일간)
중극장 : 1월 2일(화)~1월 8일(월) (5일간)
소극장 : 1월 2일(화)~1월 8일(월) (5일간)

• 접수기간 : 2006년 9월 18일(월)~9월 29일(금) (10일간)

접수시간 : 09:00~18:00(토, 일, 공휴일 제외)

• 대관 심의 및 결정 통보

접수 마지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용허가 통보

● 기본 방향

- 순수문화예술 공연·전시에 우선 대관하고, 대중 예술 공연에 대해서는 제한적 허용
- 국제적 수준 또는 순수예술인,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 문화창달을 위한 공연·전시에 우선 대관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에 우선 대관
- 소규모 연주회는 소극장으로 대관안내, 대·중극장 편중 지양
-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공연·전시

● 대관신청 및 허가 절차

• 상담(구두, 전화) → 신청 및 접수(적정 여부) → 대관심의(일정 조정) →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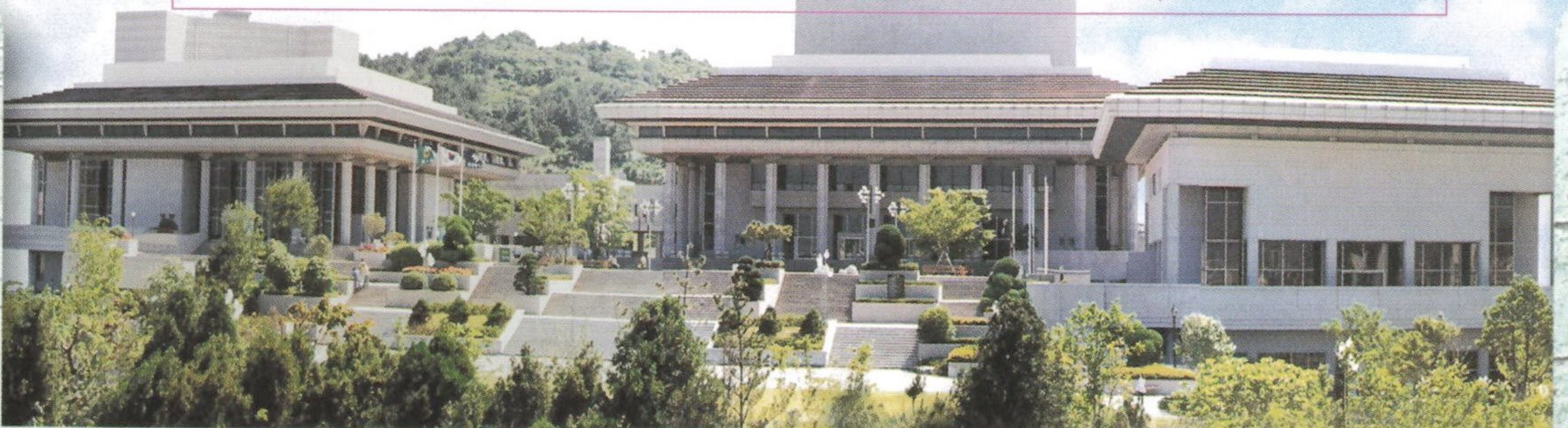
● 대관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프로그램, 프로필 등 첨부) 1부

● 사용료 납부

- 계약금(기본시설 사용료의 10%) : 사용허가후 30일내 납부, 계약체결
- 잔금 : 공연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
- ※ 기한내 사용료 미납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거 대관 취소시 납입된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의 10%는 시에 귀속됩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1~5)





제4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2006

2006. 9. 27(수)~29(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이정필
(진주시립전통예술단 지휘자)



김재영
(안산시립국악단 지휘자)



신용문
(전주시립국악단 지휘자)



박호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9월 27일(수) 1부 진주시립전통예술단, 2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9월 28일(목) 1부 안산시립국악단, 2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9월 29일(금) 1부 전주시립국악단, 2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입장권 **균일 5,000원**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예약관람, 50인 이상 단체 4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607-6070)